

성도의 빛



7

1990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0차 연차 대회 보고

1990년 3월 31일~4월 1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내클에서 행해진 말씀과 대회 진행에 관한 기록

“벤슨 대관장님은 저에게 이 대회에서 그분을 대신하여... 전세계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그분의 인사와 사랑과 축복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대관장단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교회의 제160차 연차 대회의 개회 모임인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말씀했다.

또한 몬슨 부대관장은 벤슨 대관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벤슨 대관장님과 핑클리 부대관장님 및 모든 총관리 직원과 더불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역사상 오늘날처럼 국가간이건 개인간이건 사람들 사이에 협조와 이해와 친선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적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형제애의 이상과 진실한 형제애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주 적절할 뿐만 아니라 절실히 필요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이번 대회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나 모든 모임에 참석하시고 감리하셨다. 대관장님의 두 보좌인 고든 비 핑클리 부대관장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모임을 사회했다.

핑클리 부대관장은 연차 대회의 폐회 모임인 일요일 오후 모임에서 벤슨 대관장님을 대신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벤슨 대관장님은 91세의 고령이시라 자리에서 일어서시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벤슨 대관장님이 이곳에 함께 참석하셔서... 손을 흔들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영적으로 크게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이 대회를 마치면서 저는 벤슨 대관장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분을 대신하여 ‘나는 나의 형제 자매인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위대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라고 말씀하라고 저에게 당부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는 행정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 모임에서 10명의 형제들이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받았으며,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해임되고, 새로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지지받았다. 또한 새로운 보좌 한

명이 본부 청녀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받았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받은 총관리 직원들은 다음과 같다: 칠레 산티아고의 에두아도 아알라 장로; 솔트레이크시티의 리그랜드 알 커티스 장로; 유타주 드레이크의 클린튼 엘 커틀러 장로; 솔트레이크시티의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장로; 아이다호주 아이다호 폴스의 해롤드 지 헬럼 장로; 영국 노리치의 케네스 존슨 장로;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의 헬베시오 마틴스 장로; 아이다호주 아이다호 폴스의 린 에이 미컬슨 장로; 애리조나주 페이지의 제이 벨라드 워시번 장로; 캘리포니아주 스톡튼의 더럴 에이 울지 장로. 새로 부름받은 총관리 직원들은 5년의 임기 동안 봉사하게 된다. 이로써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 수는 38명으로 늘어났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인 바바라 더블류 윈더 회장, 제1보좌인 조이 에프 에반스 자매, 제2보좌인 조안 비 독시 자매가 해임되었다. 새로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 부름받은 자매들은 다음과 같다: 엘레인 엘 잭 자매, 회장; 지에코 엔 오까자끼 자매, 제1보좌(잭 자매와 오까자끼 자매는 둘다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임); 에일린 헤일즈 클라이드 자매, 제2보좌.(유타주 스프링빌 출신임)

잭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받기 때문에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의 직에서 해임되었다. 유타주 프로보 출신인 제니트 시 헤일즈 자매가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아테스 지 캠프 회장과 제인 비 델런 자매는 각기 본부 청녀 회장과 제1보좌로 계속 봉사한다.

또한 대관장단의 특별 대표로 봉사해 온 데이비드 엠 케네디 형제의 해임과 그의 보조로 봉사한 블레인 시 톨러 형제의 해임이 발표되었다. 케네디 형제는 1974년부터 특별 대표로 봉사해 왔다.

대회의 모임 실황은 인공 위성과 그 외의 중계 시설을 통해 영어와 15개국의 다른 언어로 전세계에 방송되었다. 대회 실황의 생중계 방송이 되지 않는 나라와 생중계 방송이 지연된 지역에 있는 회원들을 위해 연차 대회 비디오 테이프가 배부된다. -편집인 *

성도의 빛

색인

1990년 7월호

교회 잡지인 1990년 7월호 성도의 빛은 1990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일련 연차 대회 기사가 실려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편집장단: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렉스 디 피네가, 진 알록, 윌리엄 알 브레드포드, 프란시스 엠 기번스, 제프리 알 홀런드

통 권: 제291권, 제27권, 제7호
등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90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홍 무 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0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 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0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0907 320 Printed in Korea 7/90

아래의 주제는 다음 연사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다.

가르침... 보이드 케이 패커
가족...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렉스 디 피네가, 엘 톰 페리, 맬콤 셋 켈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감사... 제임즈 이 파우스트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마빈 제이 애쉬튼
개혁자... 제임즈 이 파우스트
결심... 하워드 더블류 헌터
겸손... 스펜서 제이 콘디, 마빈 제이 애쉬튼
경전... 보이드 케이 패커
경청... 에이치 버크 피터슨
경험... 닐 에이 맥스웰
고결한 성품... 조셉 비 워스린, 로버트 디 헤일즈,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관용...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교회의 명칭... 러셀 엠 넬슨
구원의 계획... 데이비드 비 헤이트,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기도... 토마스 에스 몬슨,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모범...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한스 비 링거, 맬콤 셋 켈슨
물몬경... 보이드 케이 패커, 클린튼 엘 커틀러
봉사... 리차드 피 린지, 데이비드 비 헤이트, 한스 비 링거, 스펜서 제이 콘디, 제임즈 이 파우스트, 조셉 비 워스린, 클린튼 엘 커틀러,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바바라 더블류 윈더, 멀린 알 리버트,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엠 러셀 벨라드, 데릭 에이 커스버트
부활... 에프 맬빈 하몬드
사랑...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데릭 에이 커스버트, 리차드 피 린지, 한스 비 링거, 조셉 비 워스린, 에이치 버크 피터슨, 클린튼 엘 커틀러,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선교 사업... 데이비드 비 헤이트,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성신... 조셉 비 워스린
성장... 데이비드 비 헤이트, 리차드 지 스코트
성전...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엘 톰 페리,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순종... 러셀 엠 넬슨, 데이비드 비 헤이트, 스펜서 제이 콘디, 로버트 디 헤일즈, 맬콤 셋 켈슨
신앙... 델린 에이치 옥스,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제임즈 이 파우스트, 엠 러셀 벨라드, 닐 에이 맥스웰, 로버트 디 헤일즈
아론 신권... 로버트 디 헤일즈
여성... 엘레인 엘 잭
역경... 렉스 디 피네가, 닐 에이 맥스웰,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제임즈 이 파우스트
영성... 엠 러셀 벨라드, 데릭 에이 커스버트, 에이치 버크 피터슨
예수 그리스도... 케네스 존슨, 맬콤 셋 켈슨,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한스 비 링거, 에프 맬빈 하몬드
예언자... 칼로스 이 에시,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엠 러셀 벨라드, 클린튼 엘 커틀러
요셉 스미스... 조셉 비 워스린, 칼로스 이 에시
우정 증진... 맬콤 셋 켈슨, 바바라 더블류 윈더, 엘레인 엘 잭, 멀린 알 리버트
의료... 델린 에이치 옥스
의사 소통... 에이치 버크 피터슨
이스라엘... 엘 톰 페리
인내... 닐 에이 맥스웰
자녀 학대...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자유...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자유 의지... 에이치 버크 피터슨
엠 러셀 벨라드, 한스 비 링거, 로버트 디 헤일즈, 케네스 존슨
재활동 촉진... 보이드 케이 패커, 멀린 알 리버트
지도력... 스펜서 제이 콘디
지혜의 말씀... 맬콤 셋 켈슨
청소년... 엘레인 엘 잭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로버트 디 헤일즈, 케네스 존슨
친절... 리차드 피 린지,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평화... 델린 에이치 옥스
하나님 아버지... 클린튼 엘 커틀러
합당성...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회개... 리차드 지 스코트

목차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0차 연차 대회 보고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토요일 오전 모임

- 4 대회가 여기에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6 작고 간단한 일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9 “가정이 우선입니다”
렉스 디 피네가 장로
- 13 봉사의 영성
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
- 15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리차드 피 린지 장로
- 18 나의 교회는 이렇게 불리우리라
러셀 엠 넬슨 장로
- 22 가족의 전통
엘 톰 페리 장로

토요일 오후 모임

- 25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26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
윌포드 지 에들링
1989년도 통계 보고서
에프 마이클 왓슨
- 27 온 세계를 가득 채우며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30 “오늘날 택하라”
한스 비 링거 장로
- 32 지도자의 자질에 관한 경전의 가르침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 34 부활
에프 멜빈 하몬드 장로
- 36 고결한 성품
조셉 비 위스런 장로
- 40 “이를 잘 견디어 내면”
닐 에이 맥스웰 장로

토요일 신권 모임

- 43 주님의 도서관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 46 아른 신권 : 명예로운 귀환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
- 50 오토바이 타기
케네스 존슨 장로
- 51 가장 큰 기쁨
클린튼 엘 커틀러 장로
- 52 누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맬컴 셋 켈슨 장로
- 54 형제를 지키는 자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58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지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 62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68 하나님의 증인이 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 71 “인간의 작은 한 발자국이 인류의 거대한 도약이 됨”
칼로스 이 애시 장로
- 74 “신앙이나 위대한 업적을 자랑하지 말찌니”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 77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 82 세계 평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85 되돌아가는 길을 찾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 89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
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
- 90 “가서 행하겠나이다”
엘레인 엘 잭 자매
- 92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르침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장로
- 94 말일성도 사마리아인
멀린 알 리버트 장로

- 96 마음을 준비시킴
에이치 버크 피터슨 장로
- 98 감사는 구원의 원리임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 102 “성스러운 결의”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104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 106 신임 총관리 역원 및 본부 역원
- 121 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 122 교회 및 지역 소식

사진 : 모든 대회 사진은 시청각 기획 및 개발 부서의 사진부에서 촬영한 것이다 : 제드 에이 클라크(감독), 웰던 앤더슨, 필 서틀리프, 크레이그 다이어몬드, 존 루크, 페기 켈링하우젠, 엘던 린쇼튼, 에드 토마스.

표지 :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그레그 브이 올슨 그림, 1988년. 윌리엄 앤드 수전 호슬리의 승인을 얻어 게재함. 뒷 표지, 성스러운 숲의 사진, 리 브이 코헨더퍼.

대회 음악을 위해 참여한 합창단 : 물론 청소년 합창단, 로버트 시 보우든-지휘자와 클레이 크리스찬슨-오르간 반주자(토요일 오전 모임); 유타 그레인저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 글렌더 시 노드랜트-지휘자, 클레이 크리스찬슨-오르간 반주자(토요일 오후 모임); 에브라임, 오렘, 솔트레이크시티, 욕든, 로간 신학 연구원 연합 남성 합창단, 더글러스 브렌츨리-지휘자, 로버트 컨딩(신권 모임); 태버내클 합창단, 제럴드 디 오틀리와 도널드 리플링거-지휘자, 존 롱거스트와 로버트 컨딩-오르간 반주자(일요일 오전 모임과 오후 모임).

대회가 여기에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역사상 오늘날처럼 국가간이건 개인간이건 사람들 사이에 협조와 이해와 친선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적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저에게 이 대회에서 그분을 대신하여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며 전세계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그분의 인사와 사랑과 축복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템플 스퀘어에도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잘 다듬어진 잔디는 칙칙한 겨울 색조를 버리고 화려하게 만발하는 기품있는 화단을 드러내며 녹색의 양탄자를 수놓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소생의 계절이고, 감사의 시기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모인 이후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양쪽에 있는 가족들이 서로 만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환희를 맛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독일 민주 공화국에서 자유의

종이 울려 퍼져 우리의 시대를 위한 새로운 날이 열림을 알리고 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 우리 모두는 회원들이 거의 굶주리고 절망에 빠져있던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의 어두웠던 시대를 기억합니다. 그당시 대관장님께서는 음식, 의복, 의약품을 교회의 창고에서 꺼내 유럽에 있는 전쟁에 유린된 가족들에게 분배하는 극적인 임무를 총괄하셨습니다.

대관장님, 대관장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은 크고도 분명하게 메아리칩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우리의 힘을 바쳐야만 합니다. 저는 궁핍한 사람들에게 물건, 집, 의복 등을 분배해 주는 것과 같은 자선 사업은 개인이나 교회와 같은 조직체에서 이행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의 가르침,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88, 261페이지)

벤슨 대관장님의 권고에 비추어보면, 우리는 굶주린 사람들과 집없는 사람들, 그리고 고향이나 해외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도움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움은 모든 사람의 축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 보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수많은 도시에서 주께서 명하신대로 금식 헌금을 후하게 바친 사람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며 절망으로 주름진 얼굴들이 확신에 찬 미소로 바뀌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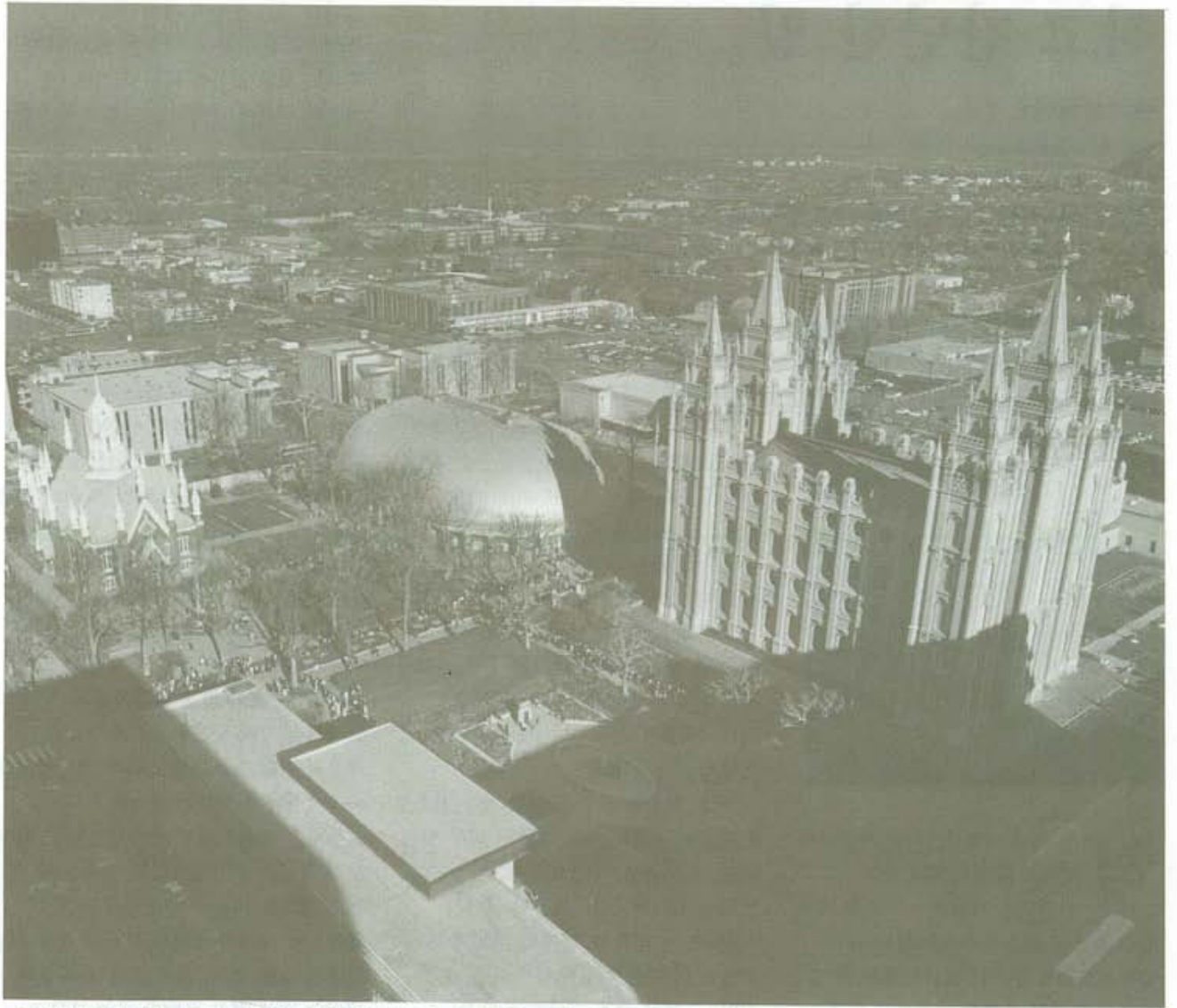
대한 감사함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교회의 청소년 여러분, 벤슨 대관장님은 오랫동안 여러분의 훌륭한 지지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여러분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극복해야 할 시련과 유혹이 따르겠지만, 여러분의 앞에는 영원이라는 위대한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교성 115:5)하며, 세상의 빛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표준이 되시길 바랍니다.”(뉴이라, 1986년 6월호, 8페이지)

청남 청년 여러분, 벤슨 대관장님은 소년단 대장 시절부터 전 교회를 관리하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성취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강인함을 칭찬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친구이시며 여러분의 옹호자이십니다.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오랫동안 권고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송고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기도하시면서 많은 감사를 드렸으며, 주님께 원하는 요청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함께 기도를 하는 자녀는 가족과 화합하게 될 것이며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벤슨 대관장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내 플로라 자매님께서서는 매주 성전을 즐겨 참석하십니다. 다음 말씀에서 성전에 대한 대관장님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이곳은 지상에서 하늘 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 즉 주님의 집입니다.”(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의 가르침,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88년, 253페이지)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 건물 왼쪽부터: 어셈블리 홀, 돔의 지붕으로 된 태버네클, 솔트레이크 성전

이 대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벤슨 대관장님과 핑클리 부대관장님 및 모든 총관리 역원과 더불어 전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역사상 오늘날처럼 국가간이건 개인간이건 사람들 사이에 협조와 이해와 친선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적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형제애의 이상과 진실한 형제애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주 적절할 뿐만 아니라 절실히 필요합니다.

에드윈 마크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되어야 할 운명이라네

*아무도 홀로 걸어갈 수는 없다네
우리가 다른 이의 삶에 보내는 것은
다시 우리 삶 속으로 돌아 온다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실제로 그분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우리에게 이름도 모르는 사람으로, 혹은 그가 누구였는지 몰랐던 고대의 호숫가의 사람들에게 오신 것처럼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요한복음

21 : 22)고 말씀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시대를 위하여 성취해야 할 일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현명한 사람이든 단순한 사람이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십니다. 주님은 인간들이 그분을 동반자로 삼고 겪게 될 고생, 갈등,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경험으로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작고 간단한 일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주님은 획기적이고 극적인 것들이 아니라 작고 간단한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대하며 여러분도 저와 같이 놀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손길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계속 굴러,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2:34~35 참조) 우리는 좋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떠들석하게 하는 큰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생애에 있어서 주님은 획기적이고 극적인 것들이 아니라 작고 간단한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 힐라멘에게 낫쇠판에 쓰여진 기록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지극히 간단하고 작은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며,

여러 가지로 예증된 것을 보아 작은 수단이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영원하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편으로 일하시나니,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방편으로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엘마서 37:6~7)

예를 들기 위해, 남미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 충실한 자매 선교사가 막 선교사 부름을 받은 남동생에게 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매 선교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경험이란다. 그들은 너무 말이 없고, 소심하고, 수줍어하며, 찢찢매기도 한단다. 그들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할거야. 그들은 이 작은 마을에서 살다 죽을 거야. 그들은 매우 가난하고 아주 단순하며 마치 어린애들 같단다. 그들은 총관리 역원 한 분도 보지 못하고, 연차 대회에 한번도 참석 못하고, 결코 브리감 영 대학교에도 가지 못할 것이야. 그들은 보이 스카웃 단원이 되거나, 큰 교회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거나, 차를 몰고 스테이크 대회나 지역 농구 결승전이나 그 어디도 갈 수 없을 것이야. 우리가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생각나고 당연히 취하는 많은 것들을 그들은 결코 보지 못할 것이야. [다음 부분이 요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이 있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신을 받고, 매주 성찬을 취하며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한단다. 그들은 매일 기도하며 경전을 읽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들이 해의 영광에 들어가리라고 믿어. 그들이 결코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하지만,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구나.

“처음에는 이곳 교회가 유타주 오렘 중심가에 있는 교회와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였단다. 나는 스스로 이것은 같은 교회이며 우리는 모두 똑같은 예언자를 따르고 있음을 계속 상기해야만 했어. 이곳의 회원들은 시내로 나갈 차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시골에서 갖고 있단다. 야외의 평평한 땅에 있는 나무 의자에 석양을 마주하고 앉아, 참석한 여섯 사람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성찬을 취하면서, 여기가 고향에서 갖던 성찬식보다 그리스도 교회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 그러나 나는 그 어느 쪽도 다룰 것이 없다고 생각해. 중요한 것은 니파이삼서 1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복음의 참된 요소들은 유타주 오렘에서나 이곳에서나 똑같다는 것이야.”

주님은 친절하게도 가장 간소하고 아주 보잘 것없는 환경일지라도 개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를 중에는 간단한 것보다는 복잡한 것을 보고, 개종을 위해 복음의 중심이 되는 작고 간단한 것들 보다는 건물, 예산, 프로그램 및 활동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행복한 영적인 느낌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마음속 이외의 것을 더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보잘 것 없는 환경에 있는 새로운 회원이 교회 본부 가까이에서 평생 신앙 생활을 한 회원처럼 복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분입니다.

이런 겸손한 회원들을 만날 때 저는 교회가 필연적으로 가능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에 세워지고 있음을 봅니다. 복음은 경전과 복음 원리 교재를 통해 가르쳐 집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면서 영을 느끼고 간증을 전하며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믿음, 회개, 침례, 성신,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해의 왕국의 승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달 저는 찰스 디데이 장로님과 함께 트리니다드 토바코, 가이아나, 수리남, 그리고 프랑스령인 기아나에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주님의 사업이 펼쳐지도록 헌납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직도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초창기에 있는 지역의 어려운 환경과, 교회가 안정되고 성숙한 지역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환경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수리남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의 회원들을 만났으며 그곳에서 봉사하는 림버그 부부 선교사가 그들에게 일련의 간단한 교습 방법을 사용하여 복음을 가르쳤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크고 특별한 행사나 활동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다만 영의 속삭임에 민감하게 응답함으로써 오는 매일 매일의 영적인 경험을 얻었을 뿐입니다.

새로운 부부 선교사인 돈 라피어 부부가 디데이 장로님과 제가 도착하기 하루 전에 수리남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처음으로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던 일요일에 성도들의 가정에서 성찬식을 네 번 가졌습니다. 라피어 장로는 우리의 새로운 개종자 중 한 사람의 초라한 집에서 성찬을 축복한 것에 대한 느낌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오는 동안 겪어본 가장 초라한 경험이었습니다. 집은 대부분 짧은 판자를 이어 만들었으며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었습니다. 지붕은 풀이 진 양철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과 뜰은 깨끗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가졌던 곳은 집앞 현수 아래였습니다. 회원들과 총관리 직원들은 벽돌 위에 놓은 나무판에 앉았습니다. 성찬대는 더러운 바닥을



대외 방문자

덮기 위해 그 위에 리놀륨(마루 깔개)한 조각이 놓인 조그마한 나무 천열대였습니다.

“저는 성찬을 축복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서 이곳 사람들에 대해 금방 갖게 된 사랑의 영으로 가슴이 벅참을 느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구세주께서, 그렇게 초라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의 예배를 생각했습니다. 고향에서는 이 특별한 경험을 한 후에 지금 제가 가질 수 있는 성찬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만큼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한 이 행복하고 겸손한 회원들이 한 사람의 사도들 포함한 두 총관리 역원이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과 가족들을 축복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라피어 형제의 경험은 그곳에 있었던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네번째 성찬식을 마친 후 저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성64 : 33)

작은 것의 중요성에 대한 또 다른 예는 가이아나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인 잭슨 부부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 가이아나의 선교 지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 지역 조지타운 신문에서 ‘이달의 십대 청소년’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기고자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마카로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려낸 그 신문 기사와 물론경과 마카로니 한 상자를 가지고 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방문한 이후 가족 중 일곱 사람을 가르쳐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 작은 일이 가이아나에 교회를 세우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난 달에 이와 같이 영적인 경험들을 한 반면, 저는 사소하고 간단한 일들이 인간의 구원에 얼마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작게 보이지만 옹지 못한 일련의 선택들이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우리 간증의 샘을 갈아 먹는 흰 개미와 같은 미미한 것이 되어 우리를 영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파멸의 길로 나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벨라드 자매와 저와 함께 캐나다에서 봉사했던 선교사 중 한 사람이 지난 달



왼쪽부터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예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그 과정이 바르지 못하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 해서 파멸에 이르도록 커가는데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후, 저는 결혼을 하고 건축업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 년 후, 우리는 세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이 기간 동안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의 업무량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정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여파가 즉시 가정에까지 미치게 되었으나 이해심 많은 아내의 도움으로 우리는 사태가 나아질 때까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해 그의 아내도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일하기 시작했으며 가정과 교회 직책을 동행시켰습니다. 그는 격무로 인해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신체적으로도 쇠진했습니다. 그는 가족 구성원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남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평안과 행복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때

남편과 아내로 알았던 애정과 다정함은 단지 기억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성격상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사소한 일에도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결함을 들추어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가망이 없다는 느낌이 제 마음속을 채우기 시작했으며 절망의 먹구름이 저를 감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이혼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조인을 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재정 문제를 검토한 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는 우스개 소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을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우스개 소리만으로 생각했습니다. 수 주일이 지나자 재정적인 파산과 이혼이라는 심각한 위협이 실제로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거라는 순수한 농담이 진정한 해결 방법으로 진전되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한 채 집에 혼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이 절망적인 시간에 그분의 자비와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잠시 후 응답이 왔습니다. 즉 제 선교부장님이 시내에 계시는데 한 시간 후에 저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부장님과 앉아 있었을 때 저는 누구에게나 그랬던 것처럼 제 문제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부장님께서 질문하시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나?”

“잘 지냅니다.”

“자네 아내는?”

“잘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떤가?”

“좋습니다.”

그런 다음 잠시 쉬었다가 선교부장님은 제 눈을 들여다 보며 물으셨습니다.

“자네 사업은 어떠한가?” 저는 그분께 제 얘기를 드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얘기를 나누는 동안 선교부장님은 저에게 물문경을 읽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자 선교부장님은 축복을 주시며 복음을 따라 생활하며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움을 구하는 저의 간청을 들어 주셨음을 선교부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작고 간단한 이 많은 일들이 이 훌륭한 젊은이의 생애에 어떻게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알 수 있었습니까? 약한 섬유질이 실이 되고 끈이 되며 결국 밧줄이 되듯이 함께 결합된 이러한 작은 것들이 너무 강해져 풀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성을 쌓는데 있어 작고 간단한 것들이 가질 수 있는 힘을 깨달아야 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절망과 불행으로 이끌기 위해 작고 간단한 일을 이용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그를 만나보라는 것 같은 작게 보이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 젊은이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당시 그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의 생을 인도해 주는 복음의 쇄막대를 다시 잡게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서로에게 봉사하라는 영의 속삭임을 무시하거나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대단하고 기적적인 일들은 우리에게 동기를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작은 일들은 종종 우리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리아호나가 신앙으로 움직였음을 지적하면서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은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저들에게는 놀라운 일로 보였으며, 저들이 신앙과 근면을 잃으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그쳐 어디로 여행을 계속해야 할지를 모르게 되었더라.”(엘마서 37:41)

작은 것들의 중요성을 잊을 때 우리의 여행은 때때로 방해받지 않습니까?(엘마서 37:46) 조그마한 키가 거대한 배의 진로를 결정하듯이 작은 일과 선택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야고보서 3:4, 교리와 성약 123:16) 우리는 문둥병자 나아만과 같이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열왕기하 5:1~4 참조)

주님은 예언자의 권고를 따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가족 및 개인 기도를 하고, 경전, 특히 물몬경을 읽고, 가정의 밤을 갖고, 서로 사랑하라는 구세주의 가르침을 따르며, 가족들간에 사려 깊고, 친절하며 온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과 이와 유사한 작고 쉬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리라는 것을 약속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이곳이 그의 교회인 것을 압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교회의 각 회원들의 가슴을 채우듯이 세상을 계속 채워나가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가정이 우선입니다”

렉스 디 피네가 장로
칠십인 회장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시험과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게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피난처이고, 보호망이며, 성소이자, 우리의 구원입니다.”



수 주일 전 저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웃에 수 십개의 밝고 노란 풍선들이 구불 구불한 세 블럭 길가에 늘어선 나뭇 가지와 가로등 기둥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흐린 겨울 날에 참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보다 하는 예상을 하며 그 친근하고 현란한 거리를 따라 운전하며 저는 마음이 설레임을 느꼈습니다. 길을 돌 때마다 노란색 풍선이 떠올랐으며 언덕 위를 향해 흔들렸는데 언덕 위에는 다음과 같은 다정한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브리감 형제님의 귀가를 축하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브리감 포덤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이 18살된 젊은이는 비극적인 사고를 당해 불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저는 이곳이 그의 고향이며 오늘이 그가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날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집앞에 만들어진 경사진 길을 보았고 그의 인생의 변화를 수용하도록

그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다른 변화들을 생각했습니다. 브리감 형제의 가족 또한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포덤 가족의 생활이 달라질 것이며 힘들어 질 것입니다. 그러나 노란 풍선들이 브리감 형제와 이 거리를 지나간 모든 이들에게 밝게 신호했듯이 그는 가족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을 수 있으며 그를 돌봐줄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시험과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게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존재하는 것은 또한 가족 관계라는 기쁨과 특권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피난처이고, 보호망이며, 성소이자 우리의 구원입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가정은 자녀들이 지금처럼 분쟁이 일고 혼란할 때에 의지가 될 수 있는 굳건한 장소이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종의 말씀, 알 클레이튼 브러프 편저, 유타주 바운티폴, 호라이즌사, 1975년, 154페이지)

필 피어설 박사는 ‘가정의 힘’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모든 가정의 울타리에는 기쁨이 있는 최상의 시기와 특히 슬픔이 있는 최악의 시기에 흘러나오는 사랑의 원동력이 있습니다.”(뉴욕: 더블데이, 1990년, 134페이지)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부모 중 한 분만 계시는 가족이든, 대가족이 함께 사는 가족이든, 가족이 함께 화합하도록 하는 노력이 세계를



십이사도 정원의 회원들, 왼쪽부터 :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다빈 제이 애쉬튼 장로, 앨 톰 페리 장로,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닐 에이 맥스웰 장로, 러셀 엠 벨슨 장로,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구하는 일입니다.”(뉴욕 : 더블데이, 351페이지)

주님께선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정의 신성한 힘과 영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정을 대신할 곳은 없습니다.”라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토대는 이 지상의 토대만큼 오랜 것이며 그 임무는 태초로부터 주님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이란 있을 수 없으며, 가정의 영향력을 신성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려 하는 모든 노력 자체가,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봉사하지 않고 얻어지는 행복이란 없으며 가정을 가족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보존하는 신성한 곳으로 만들려는 봉사보다 더 큰 봉사는 없습니다.”(복음 원리, 제5판,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39년 300페이지)

1989년 9월 어느 날 저녁 휴고호 태풍이 남 캐롤라이나의 아름다운 도시인 찰스턴 시를 무자비하게 휩쓸고 갔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인 알비 에반스는 바다에서 가까운 지대가 낮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거대한 폭풍우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좀더 높은 지대에 있는 어머니댁으로 옮겼습니다.

밤 늦게 시속 240킬로미터의 강풍이 휘몰아쳐 나무들이 뽑히고 집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폭풍우가 생각보다 더 거세지자 그들은 몸을 다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알비는 아내와 자녀, 어머니와 형제 자매 및 그의 가족들과 함께 집 거실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겸손하게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황폐해진 주변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댁 정원에 자라던 50여 그루의 크고 튼튼한 참나무들 중 단지 여덟 그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과 자동차와 도시 전체가 해를 입었지만 가족은 무사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며, 그들을 폭풍 속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알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으나 우리 가족이 해를 입지 않고 무사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전에 “말일성도의 가정에 일시적인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대회 보고, 1919년 6월, 77페이지)

맥케이 대관장님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현대 예술과 부를 통해 온통 장식이 되어있는 아름다운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눈을 즐겁게 하는 모든 외형적인 것들을 갖출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 가정이 누옥이나 오두막집이나 천막집, 초가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갖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은 말일성도들이 이루고, 그들이 세우려고 노력하는 참된 가정을 갖게 됩니다.”(복음 이상, 솔트레이크시티 :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년, 480~481페이지)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사악한 영향력이 가정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이 견디려 한다면 부모와 자녀는 가정과 가족을 보존해 주는 복음의 이상에 자신을 바쳐야만 합니다.

피어셀 박사는 가정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 생활을 세상에서 가장 우선으로 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그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가정을 최우선으로 놓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등한시 하며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학업, 사업,

취미 활동 및 기타 수많은 조직의 요구 사항에 쏟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선 순위를 세우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최우선의 위치에 하나만을 놓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가정일 수 있습니까?”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정을 첫번째로 꼽지 않는다면 당신의 가정은 유지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피어설, 18페이지)

높은 이상과 복음의 가치가 유지되는 가정에선 자녀들의 가슴에 성품과 신앙의 기초를 놓아 주는 사람은 교사가 아니라 바로 부모들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가정에서 받아야 할 훈련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교회나 학교도 그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대관장단과 심이사도 정원회의 최근 가르침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리 회원들에게 간증을 심어주고 신앙을 키우는 경험을 제공하는 우선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계속 도와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몬슨 부대관장님은 신권 지도자들에게 “굳건하고 복음이 중심이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배가로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연차 대회 말씀, 1990년 4월)

우리가 이 지극히 중요한 일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돕기 위해 교회 예산 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가르치고 권고하고 활동하는 많은 책임을 가정으로 돌리는 데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나 활동을 방해하거나 가족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교회 활동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교회 활동은 가족 활동으로 대체되어야 만 합니다.”

패커 장로님은 끝으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진로



대회가 끝난 후 심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인 앨 톨 페리 장로와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가 함께 담소하고 있음

수정이며, 영감에 의한 변화입니다.”(연차 대회 말씀, 1990년 4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높은 목표를 갖고 가정과 가족을 최우선으로 놓으려고 협동할 때만이 가정은 하나님에 의도하신대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바로 몇 주 전에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일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딸이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하기 전에 잠깐 머물기 위해 그들의 세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다른 딸과 사위도 모든 가족이 함께 주말을 보내기 위해 그들의 네 자녀와 함께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일요일 저녁 우리 모든 가족이 저의 집에서 함께 모인 것을 기념했습니다. “모두가 다시 한 지붕 아래에 모였구나.” 아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추억 만들기”라는 적절한 주제로 그날의 특별 순서를 계획했습니다. 아내는 한 딸이 추억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녹음했습니다. 아내는 아들과 딸들에게 각각 줄 특별한 선물로 그 제목에 관한 특별한 책을 여러 권 갖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의 추억을 멋있게 마무리짓기 위하여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 상세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가족 각자에게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확실치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럴 가능성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뒤에서 부드럽게 들려오는 동안 거실에는 아이들의 잡담과 웃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가만히 앉아있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킁킁거리고 놀리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다 큰 자녀들도 역시 서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 차례 모두 함께 지난 날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며 그리고 자녀들의 익살스런 행동을 보고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루 위에서 서로 간지럼을 태우거나 초코렛 케익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꺾꽂 찢었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엉망이 되었으나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것이 더 실망스럽고 어느 것이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프로그램은 시작하자 마자 곧 끝났습니다. 추억이 될 모임으로 만들려던 보니는 실망하여 “그만 두겠어, 아무도 들질 않아!”하며 한숨지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에도 화가 난 어른들이 좀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꿈틀거리는 열 한 명의 자녀에게



대회 방문자

포즈를 취하게 하려고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가족 기념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족 서어커스였습니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보니가 의도한 방법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내는 가족이 함께 모인 그 시간이 의미있고 기념이 될 만한 시간이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저의 집이 다시 조용해진 며칠 후, 조그만 책자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가족 사진첩이었는데 거기에는 “나의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즐거움이 가득한 가족 모두에게”라고 새겨져 있었으며, 엄마에게 덧붙인 특별 메모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란스럽고 즐거웠던 일들, 멋진 사진들, 아름다운 모임 장소와 엄마가 우리들이 모여있을 때마다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신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후에 다른 딸로부터도 다음과 같은 짧은 편지가 왔습니다. “행복하게 머무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몇 달 동안 이런 행복한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그토록 사랑받고 극진한 관심과 주의를 끌었다고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저는 저희 모두가 클라크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을 지켜 볼 수 있었고, 그가 사랑하는 조부모, 이모,

삼촌 및 조카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기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돕는 그런 가족들을 가진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또 다른 딸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께서 제 꿈의 집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궁전이 아닐 겁니다. 내 가장 행복을 느끼는 그곳, 그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 즐겁고 소란스러웠던 가운데 확실히 모든게 다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가족이 그렇듯이 저의 가족도 문제들 즉, 심각한 병, 연로해가시는 부모님, 학교 교육, 직장 등에 관련된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짐과 근심은 상호간의 사랑과 뒷받침, 신앙의 기도 안에서 단합된 가족의 힘으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께서는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신 후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초라한 오두막 속에서 생활한다 해도 그곳에 사는 가족이 화합해서 사랑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미래의 인류에게 다른 어떤 부귀보다도 훨씬 더 가치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이라야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가정에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연차 대회 말씀, 1965년 4월)

몇 년 전 어느 일요일 아침, 지금은 아멜릴로 텍사스 스테이크 부장인 도널드 피넬 형제님이 그의 집 근처 교회에 참석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누군가 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피넬 형제님, 집에 불이 났어요.”

피넬 부장님은 황급히 12살과 16살이 된 두 아들을 찾아서 그의 목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최근에 수술을 받고 회복중인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해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가 돌아오는 소방차의 운전사를 통해 아내가 안전하다는 말을 비로소 들었습니다.

피넬 부장님 부부는 마을에서 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목장에다 그들이 소망하던 스페인형의 집을 지은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아주 근사했으며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되었었습니다.

그와 아들들이 언덕 위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불타고 있는 집에서 나는 연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도널드 피넬 형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집이 화염에 완전히 삼켜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차를 언덕 위에 세우고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보아라, 너희들은 세상의 재물을 쌓는 데에 너희 온 생애를 바칠 수도 있고, 언덕에 앉아 그것들이 화염 속에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다. 또한 너희들은 의로운 보물들을 쌓아 영원히 그것들을 취할 수도 있다.’”

의로운 보물들은 우리 가족이며 복음 중심의 가정에서 가르쳐지고 배우게 되는 거룩한 성품과 자질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족을 우선으로 놓고 우리 가정을 이러한 영원한 보물로 채우는 데 요구되는 개인과 가족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봉사의 영성

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
칠십인 정원회

“봉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봉사는 우리 각자를 세련되게 하고, 정화시키며, 더 큰 이해력을 주고,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대변자가 되시는 벤슨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생활하고 영으로 가르치라.”고 요구 하셨습니다. 우리는 벤슨 대관장님이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업은 영적인 사업입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생활, 참된 가치를 개발하는 것, 세상적인 영향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커스버트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좀더 영적일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좀더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봉사는 우리 각자를 세련되게 하고, 정화시키며, 더 큰 이해력을 주고,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 단지 우리 자신 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봉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것에 앞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의로운 봉사는 구세주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참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봉사를 통해 우리의 영성을 높일 수 있습니까? 제가 간단히 열 가지 형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그중 자신의 처지에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봉사는 없어지는 물질적인 것들의 가치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들의 가치를 분별함으로써 참된 가치와 우선 순위를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찾으려 한다면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자신을 잊고 여러분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고 성취된 삶에 이르는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연차 대회 말씀, 1979년 4월) 우리는 주위에 27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랑스런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노년의 모임이나 그녀가 도울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즐거운 미소와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을 잊고 남을 돕고 있습니다.

둘째, 봉사는 의로운 전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봉사할 기회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에서 자라나면 지역 사회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이 흔히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되지?”라고 반문하는 세상에서 자발적으로 하려는 정신을 키워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범사에 일일이 명령해야 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교성 58 : 26~27)

스테이크 대회를 참가하면서 저는 성전에서의 침례 의식, 지역 사회를 청소하기 위한 노력 봉사, 방학 중 선교 사업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청소년 봉사 계획에 대해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이기적이며 방종한 세대가 되는 것으로부터 자라나는 세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신 만을 바라보는 즐거운 활동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는 그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셋째, 봉사는 우리가 이기심과 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 부도덕, 탐욕, 또는 나태, 그 어느 것이든 모든 죄는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죄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나 주님의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봉사는 반면에 비이기적이며 선을 행하는 긍정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는…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사야 53 : 6) 현대적인 말로, 남에게 어떤 역효과를 끼치든 간에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자유의지나 또는 도덕적 의지를 이해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조차 자유를 멋대로 하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넷째, 봉사는 이기심과 죄를 극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보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니…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에스겔 33 : 16) 또, 야고보는 “영혼을…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야고보서 5 : 20) 우리는 잘못된 일에 대해 후회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개에는 봉사를 하는 것과 같은 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봉사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감사를 받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봉사함으로써 그들의 환경, 어려움, 소망 및 포부를 알게 됩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이젠 매우 가까운 친구가 된 몇몇 홀로된 자매님들을 방문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선교 사업과 성전 봉사와 그리고 이제는 가족 기록 초출 봉사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섯째, 봉사는 구세주께 감사를 나타내 보이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사랑과 무한한 대속 희생,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칠 때 그것은 봉사로 흘러내리게 되며, "(그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구세주에게) 한 것"(마태복음 25:40)이 됩니다.

일곱째, 봉사는 우리의 욕구와 정렬이 방향을 바꾸어 의로운 활동으로 변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은 욕망과 정력의 창고이자 발전소이기도 하며 이것은 선이나 악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 큰 잠재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데 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기근에 관한 영화를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 자선 연주회를 계획한 젊은이들과 특별 금식을 하라는 대관장단의 권고에 응하는 수많은 교회 회원들을 생각해 봅니다. 금년은 아프리카에서 기근과 빈곤이 더욱 심하리라 예상되는데, 먼곳에 있는 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는 우선 순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째, 봉사는 우리를 깨끗하고 순수하고 신성케 하는 것을 돕습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어린 시절에 배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성자의 기도에서 표현된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되 준 것을 헤아리지 말고 싸우되 부상당한 자를 무시하지 말며, ...일하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을 알아보고 보상을 바라지 말라."(용서를 위한 기도, 1548, 존 바틀렛, 친숙한 인용, 14판, 보스턴: 리틀 브라운사, 1968년, 180페이지)

아홉째, 자선 봉사를 통해 우리는 구세주께서 행하신대로 행하게 됩니다. 손을 뻗쳐 돕고, 들어올려 축복하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이 구세주의 전 성역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누가복음 22:27), "이는 나를 의롭게 섬기고자 하는 순결한 백성을 일으켜 내게로 세우려 함이라."(교성 100:16) 도처에 자선 봉사를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은 나이지리아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과 회원들을 방문하던 중 우리 차가 외딴길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마침내 한 자동차가 다가오더니 두 명의 젊은 나이지리아인이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멈추어서 당신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열번째, 봉사는 구세주를 알게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사람이 어찌 섬기지도... 많은 주인을 알 수 있으리요?"라고 한 때문입니다. (모사이사서 5:13)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전념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자아를 발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몇 달 전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선교 본부를 방문하여 눈먼 젊은 선교사를 만나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업에 전념했으며, 그의 영은 빛이 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의롭게 봉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좀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영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돕습니다. 그러한 봉사는 주님이 시온을 구속하실 그 시간에 사람들이 합당하게 되도록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10월 연차 대회 직후 저는 벌써 말기에 접어든 암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와 축복과 애정있는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사랑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새로운 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에 있어 훌륭한 점은 봉사하는 데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그러므로 형제애로 서로 봉사합시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에 결코 실증을 내지 말고 인내하며 견디며 관대하게 됩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두리라,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레트 출판사, 1960년, 173~174페이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발전하며,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성도가" 됩니다. (모사이사서 3:19) 즉, 정직하게 구세주를 따르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고,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할 때 우리에게 좀더 충만히 부어지는 주님의 영을 지니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사이사서 18:8~10 참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회복된 교회와 살아 계신 예언자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전해 드립니다. 아멘. *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리처드 피 린지 장로
칠십인 정원회

“그리스도는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모든 길은 파멸로 이끕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결심한다면 그의 교회의 가르침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지난 해 저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구세주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외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경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 : 37~40)

지난 해 30여 개 이상의 시온의 스테이크를 방문하면서 수많은 참된 말일 성도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조용하고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봉사를 보고 경험하면서, 저의 생은 축복을 받고 저의 신앙은 증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와 순수한 사랑의 예는 지리적 위치나 연령, 성별 또는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고 사랑하는 행동은 칭찬이나 보상을 구하지 않으며 가난한 가정 속에서, 그리고 헌신적인 주님의 종들의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자주 행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생애에서 있었던 그러한 몇 가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연초 스테이크 대회에서 페리오어 장로님과 저는 1958년 8월 26일에 산재 사고를 당한 어느 형제를 방문하도록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냉각 탱크에서 구멍으로 빠져 10미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양 어깨 아래를 못쓰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의학사상 그는 31년 동안 반신불수가 된 사람으로는 가장 오래 생존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그의 생애와 간증을 담은 간결하고 정성껏 준비한 비디오가 토요일 저녁 모임에 방영됐습니다. 그는 31년 동안 침대에 누어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형 철제 고정대에 묶인 채로 지내며, 헌신적인 간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우리는 그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형제는 그의 간호사들과 신권 지도자들, 가정 복음 교사들,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돌봐주고 그의 영적, 물질적 필요 사항들을 보살피

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님은 지혜롭게 그를 정규 연락원으로 부름을 주어 그의 스테이크 선교사들과 군인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저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젊은 선교사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신앙을 복돋우기 위해 그가 보낸 편지들을 읽을 때 여러 번 영감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보낸 이 편지들 중 두 귀절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모든 길은 파멸로 이끕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결심한다면 그의 교회의 가르침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다른 스테이크의 일요일 초등학교 모임에서 저는 한 충실한 말일성도 의사와 그의 헌신적인 아내와 귀여운 두 딸을 만났습니다. 큰 아이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동생이 열심히 밀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는 선천적으로 건강이 저하되고 악화되며, 고칠 수도 없는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들은 한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아름답고 맑았으며 사랑하는 부모와 조부모, 헌신적인 교회 교사들을 통해 그들의 생애에서 살아 계심을 알게 된 구세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많은 자녀를 갖기를 소망하던 이 헌신적인 부모님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두 명의 딸을 입양했습니다. 육이 신앙을 시험받는 다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의 친구들로부터 부추김을 당할 때의 경우와 같이 이 부부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대신, 두 명의 다른 아름다운 딸에게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 두 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마음과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부모의 사랑과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게 된 것을 축복으로 느낍니다.

최근 한 스테이크 대회를 마친 후, 아내와 저는 아이다호에 있는 또 다른 신앙이 깊은 가정을 방문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의 젊은 아버지는 위독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영원히 아로 새겨진 한 광경은



왼쪽부터 : 토마스 예슨 몬슨 부대관장, 에즈라 패프트 벤슨 대관장, 심이사도 정원회의 빌 에이 맥스웰 장로, 러셀 엠 넬슨 장로

어머니와 아름다운 다섯 자녀가 아버지의 신권 정원회 지도자들과 함께 그의 침대 곁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훌륭한 형제를 위해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신앙의 고리에 둘러싸여 병자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 젊은 부부를 다시 만나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켜준 주님의 축복에 대한 그들의 아름답고도 겸손한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스테이크 대회에서 휠체어를 탄 한 사랑스런 자매가 물론경을 읽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녀가 얻은 힘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헌신적인 남편이 도와 병으로 인해 신체 장애자가 된것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몸져 누게 되었으며 그녀는 주님께서 좀더 자립하고 자신의 필요 사항을 좀더 잘 돌볼 수 있는 더 큰 힘을 주신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더우기 그녀에겐 여러

해 동안 그녀를 다정하게 보살피 주었고 지금도 그렇게 해주는 사랑하는 남편의 필요 사항을 돌볼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동료들 또한 그들이 초창기 행복했던 가족들에 대한 귀중한 추억을 간직한 채 자신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시지만 그것은 보통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주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킴블 대관장님의 재직 후반기에 있었던 한 사건은 그분의 메시지와 그의 영감에 찬 권고가 참됨을 자신의 생활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랑스런 자매를 문병하기 위하여 한 지역 병원으로 갔습니다. 40여년 전 저는 그 자매와 그녀의 남편과 함께 학교에 다녔는데 그들과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년단 지도자로, 그리고 자매는 ‘소년단 어머니’로서 한 세대에 걸쳐 많은 어린 소년들에게 봉사하면서 이 허전함을 메꾸었습니다.

그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부부의 생애에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 주일 동안 이 사랑하는 형제는 병원에서 아내 곁에 밤낮으로 머물면서 위안을 주며 그녀의 짐과 고통을 덜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날 제가 그녀의 병실에 들어서려 했을 때, 아내의 병실에서 복도로 나오는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고된 시련의 빛이 역력했던 지난 방문 때와는 달리 이번엔 그의 얼굴에 빛이 났으며 그의 눈빛은 타는 듯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 병원에서 환자로 수술을 받으셨던 킴블 대관장님께서 우리 병실로 들어 오셨는데 내 아내와 나는 너무 가슴이 벅찼었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기도하셨으며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은 마치 구세주께서 친히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 같이 강인했었다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병원에 있던 다른 많은 환자들도 고통과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으로부터 비슷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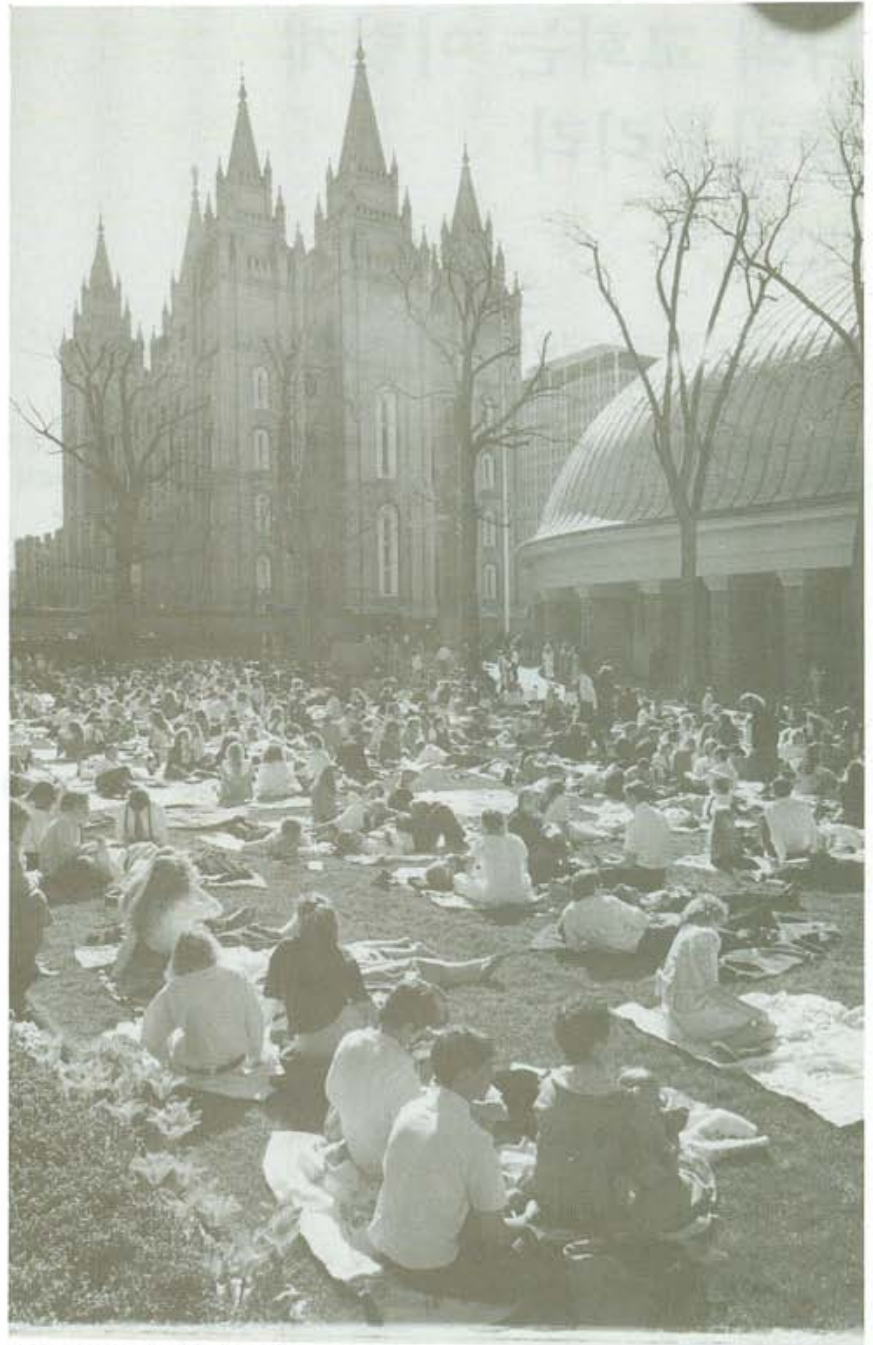
제 자신도 살아오면서 많은 주님의 종들이 지닌 친절함과 선하심을 통해 구세주의 많은 사랑을 경험해 왔습니다. 베냐민 왕이 그랬듯이 저는 우리가 전심 전력을 다해 구세주를 섬긴다 할지라도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모사이야서 2:21 참조) 이는 구세주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사랑과 대속, 희생 때문입니다.

몇 달 전 저의 아버님의 좋은 친구셨던 90세된 한 축복사님께서 이 계곡에 조용히 안치되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1932년 대공황이 절정에 달했을 때 돌아가셨으며 열흘 후 열 네 살된 저의 만형이 작고했습니다. 어머님이 미망인으로 지내시는 47년 동안 그 훌륭한 형제님은 아버지가 안계신 저의 가정을 방문하셔서 지혜로운 권고와 격려, 그리고 신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모범과 개인적인 관심은 다른 많은 신권 지도자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의 선하심과 더불어 저의 어머니와 다섯 명의 남은 자녀들이 경제 공황, 전쟁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극복해야 할 세상적인 영향력과 일상적인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유사한 환경에 처해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면으로 감명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그분은 야고보서에 기록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본보기였습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야고보서 1:27)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중



템플 스퀘어에 있는 대외 방문자들을 공중에서 내려다 본 풍경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봉사해야 할 필요성이 참으로 큼니다. (마태복음 25:40) 우리가 실제로 손을 아래로 뻗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좀더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는 방법을 아는 데에 얼마나 많은 분별력과 지혜와 자비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저는 날마다 우리가 좀더 부지런히 아버지의 사업에 힘써(누가복음 2:19)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상한 자를 위로하고(마태복음 25:37~39),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하며(교리와 성약 81:5), 구세주의 교리를 믿고 그대로 생활하며, 주님을 따르고 우리 생활에서 그의 왕국의 일을 우선으로 놓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

나의 교회는 이렇게 불리우리라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주님의 성스러운 이름을 존중하는 것같이 주께서 지어 주신 교회의 이름도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정확히 발음되고 정확히 쓰여지면 기분이 좋습니다. 때때로 실제 이름 대신 별명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별명을 부르는 행위는 불리워진 사람이나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름은 개인의 이름은 아니지만,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이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우리라.”
(교성 115 : 4)

주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분은 “교회라 이름지어지리라”고 하시지 않고 “교회라 불리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몇 해전, 총관리 역원들께서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몰몬 교회’란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해서 오해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회원- 선교사반 교사 지도서, 솔트레이크시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82, 2페이지) 어떤 다른 적절한 이름을 대용어로 사용할 것인지를 고려하기 전에,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주신 하늘 부모님의 느낌을 경건한 마음으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확실히 주님의 입을 통하여 나온 모든 말씀은 값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 아래 불리우는 모든 단어는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으며, 어떤 이유로 인해 신성하게 지정된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중요 단어들을 연구해 보면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를 보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우리 교회 명칭에는 성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을 받고서 있었던 논평을 기억하면 웃음이 납니다. 저의 의사 친구 한 분이 어느 의학 학술 모임에서 “넬슨 박사님은 이제 더이상 심장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교회가 그를 ‘성자’(성도)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한 보고서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이 짧은 논평은 재미있기도 하였지만 그 말을 한 사람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언어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를 입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보다 성도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 흠정역에서 단지 세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귀절은 역사적인 사실을 묘사하면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사도행전 11 : 26)라고 되어있고, 다른 귀절은 빈정거리며 믿지 않는자, 아그립바 왕(사도행전 26 : 28)에 의해 인용되었으며, 세번째 귀절은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자는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베드로전서 4 : 16)

대조적으로 성도(또는 성도들)라는 용어는 구약에서는 36귀절에, 신약에서는 62귀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의 서한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에베소서 1 : 1)라고 썼습니다.

새로이 개종한 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에베소서 2 : 19, 3 : 17~19 참조)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바울은 성도라는 단어를 매 장마다 최소한 한번은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98번이나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라는 용어가 아직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이나 완전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이며 그의 완전한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주는 성도는 진실된 사랑의 정신으로 나누어 주며 받는 성도는 진실된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 들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봉사를 하면 할수록 그 영이 신성하고 순결케되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압니다.

성도는 너그러우며 다른 사람의 탄원에 주목하고 말로 표현된 의사뿐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의사까지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성도는 한 관심사를 두고 “난 관심 없어”라고 반응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과는 다릅니다. 진짜 성도는 “뭐라구요? 저도 걱정이 되는군요.”라고 응답합니다. 만일 우리가 걱정이 되면 행동을 취할 것이며, 그것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 : 25~27; 고린도후서 7 : 12 참조)

성도는 “게으르지 않도록 주의하며”(엘마서 38 : 12)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합니다. 교육, 특히 경전 공부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얻습니다. (교성 88 : 118 참조)

성도는 정직하고 친절하며, 재정적인 채무를 즉시 모두 지불하며 그가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합니다. (마태복음 7 : 12; 니파이삼서 14 : 12; 교성 112 : 11 참조)

성도는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를 보호해주는 각자가 속한 정부를 지지하며 세금을 속히 지불하고 그의 합법적인 정치 제도에 각자 참여해야 함을 아는 영예로운 시민입니다. (교성 134 : 5 참조)

성도는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를 올바르게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항상 예의가 바릅니다. 이는 출퇴근시의 혼잡한 교통 속에서조차도 그러합니다.

성도는 정결치 못하고 품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피하며 좋은 것조차 지나친 것은 멀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경건합니다. 주님과 주님이 지으신 지구에 대해, 지도자와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과 법률 및 존재의 고결성에 대해, 그리고 예배당 및 다른 건물들에 대해 경건한 마음을 품는 것은 성도다운 태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 : 30; 엘마서 47 : 22, 교성 107 : 4, 134 : 7 참조)

경건한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템플 스퀘어에 있는 대회 방문자

일상적인 기도, 주기적인 금식, 십일조와 헌금을 내는 것은 충실한 성도들의 중요한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충실한 아들과 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요엘 2 : 28~29; 사도행전 2 : 17~18 참조)

말일

말일(Latter-day)이라는 용어는 적당히 상응하는 용어가 없는 말로 번역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어떤 번역은 마지막 날이라는 뜻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전에는 일시적으로 별의 상태로 존재하는 지구의 마지막 날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구는 새로와져서 낙원 또는 달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개조 참조) 결국, 지구는 성결케 되고 불사 불멸의 영원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 : 1; 교성 77 : 1, 88 : 25~26 참조)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앞서 말일(Latter days)이 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일에 살고 있으며 그 징조가 확연합니다. 예언자 요엘이 정확히 예언했듯이 주님의 영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모로나이 천사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재확인시켜줄 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요엘 2 : 28~32; 요셉스미스서 1 : 41)

천년 동안 농사, 여행, 그리고 통신 수단의 발달은 고대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의 출생 이래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오래 전에 충만한 때에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예임되었습니다. (니파이서 3 : 7~15 참조) 그가 출생한 지 25년 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같은 세기의 조금 후에 무선 전신이 개발되었고 처음으로 기선이 대서양을 횡단했으며, 전화, 자동차 그리고 영화가 발명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훨씬 더 엄청난 발전이 있었으며, 농업은 기계화 되었습니다.

현대의 교통 수단은 세계 어디든지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교회가 살아 있는 회원을 관리하고 장막 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정보를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족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태버나클에 들어오신 후 회중에서 앉으라고 손짓을 하심

일세기전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을 사용하여 조상의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장거리 전화, 팩시밀리(모사전보),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위성 통신이 생활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일에 주님의 말씀이 교회의 본부로부터 지구의 가장 먼 지역까지 방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회복된 “복음은 모든 나라와 혈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리라”(교성 133 : 37)는 신성한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것이 풀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을 구속했던 껍질이 벗겨지고 자유를 외치는 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는 그 시간 안에 나의 일을 서둘리라.”(교성 88 : 73)고 말씀하셨으며, 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교회의 명칭에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이 포함되었습니다.(교성 115 : 3~4 참조) 주님은 이것을 한 번 이상 선포하셨습니다. 약 2천년 전에 주께서는 “너희는 교회도 나의 이름으로 부르라...”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가 되겠느냐? 고 하셨습니다.(니파이삼서 27 : 7~8 참조)

우리는 성신의 권세에 의해 독생자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자 여호와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의 교회 조직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돌”이 되심을 압니다.(에베소서 2 : 20) 우리는 주님이 그의 대변자를 통해(고린도전서 10 : 4; 힐라맨서 5 : 12 참조) 계시를 주시고 그를 합당하게 구하는 자에 반석이 되심을 압니다.(교성 88 : 63 참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지상에 오셨음을 압니다.(니파이삼서 27 : 13 참조) 그리스도의 신성한 임무는 우리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주고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해 대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살아 계신 주님의 신성한 임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받는 자는 흠족할 것이요, 저가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아버지 앞에서 저가 죄없다 할 것이나,”(니파이삼서 27 : 1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교회

주님이 지상의 조직을 위하여 선택한 첫번째 단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여 침례를 받은 신자들의 공식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명칭은 매우 중요합니다.(교성 10 : 67~69, 18 : 20~25 참조)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성신의 증거와 영감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행하시며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 건물 왼쪽부터: 어셈블리 홀, 돔의 지붕으로 된 태버나클, 솔트레이크 성전

수단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의식 및 이와 관련된 성약들은 회원들에게 가장 큰 보상입니다. 많은 조직이 좋은 지침과 우정을 줄 수는 있어도 오직 주님의 교회만이 침례, 확인, 성임, 성찬, 축복사의 축복 및 성전 의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신권의 권능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 권능은 국적에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굴러 퍼지며”(교성 65 : 2; 다니엘 2 : 37~45; 교성 109 : 72 참조)

주님(구세주)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성스러운 의식은 자기의 행위에 스스로 책임 능력이 있는 연령에 이른 어린이들 및 진실로 개심하여 준비된 성인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성구가 말하는 시험을 견딘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죽을 때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모사이아서 18 : 8~9)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고 이 말일에 성도가 될 것을 성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서에 기록된대로, 그리고 고대나 현대의 예언자들에게 계시된 대로 교회의 교리에 따라 살겠다고 성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9조)

이러한 계시에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위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진리가 담겨있으며, 또한 하나님, 가족, 어머니, 아버지, 자녀 그리고 가정에 대한 사랑과 자기 극복,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 봉사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와 같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의 우선 순위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시 아래 세워진 이 교회는 성경 시대에 맺어진 성약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 : 21) 그 교회가 회복되었으며, 주님 자신의 이름으로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엄숙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모든 자로 하여금 어떻게 나의 이름을 입술에 담을 것인지 조심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위에서 오는 것은 거룩한 것임을 기억하라. 또 신중히 말해야 함을 잊지말라.”(교성 63 : 61, 64)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성스러운 이름을 존중하는 것 같이 주께서 지어 주신 교회의 이름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승영으로 향해 있는 운명에 동승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교회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불리우리라”고 선언하신 주님을 영예롭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가족의 전통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의 즐거움인 그 위대한 유산에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전통을 갖는 것은 모든 가족이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 언자들은 우리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하늘에서 천국 회의가 있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께서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 하시고, 또한 땅 위와 땅 아래에 궁창이 있으라’하니 그대로 되었고, 그들이 ‘뜨거운 것과 찬 것을 있게 하자’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이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있게 하자’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상에 보내어 다스리게 하고 이 일을 이루게 할꼬?’라고 말씀하시자 장자가 말씀하시길 ‘내가 여기 있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침의 아들 ‘루시퍼’인 둘째 아들이 말하기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저는 지상에 사는 그리고 지상을 거처가는 아담과 이브의 모든 아들과 딸들을 구속하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른 방법이 아니라. 나는 나의 모든 자녀에게 각기 자유의지를 주고 내 왕국에서 승영을 얻기 위해 그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겠노라. 그들이 선택할 힘을 가진 만큼 그 능력을 키워야 하노라. 그들은 나를 닮은 나의 자녀들이므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하노라. 만일 네가 모든 자녀들을 구원할 책임을 맡는다면 너는 그들을 불의와 타락에서 구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 솔트레이크시티 : 테저렛 출판사, 1941년, 53~54페이지)

천국 회의에 참석했던 이 영들은 “지상으로 오는 차례”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유의지를 갖기를 갈망하고 있고, 또 사실은 그 자유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힘의 증거로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경험을 통해 보면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욕망은 그 뿌리를 영적인 것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욕망은 타고난 본능이며, 억제될 수 없는 강압적인 것입니다. 이 욕망은 삶 그 자체보다도 더 귀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세에서부터 가지고 온 또 다른 욕망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이 위대하고 영원한 계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주 구세주의 복음 안에서만 진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이 찾은 자유를 이제 막 사용하며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청하여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경전을 사용하여 주께서 다른 백성들에게 그들이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시켰는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이집트 땅에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그들은 요셉의 지도력 아래에서 번성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증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라 하노라”(출애굽기 1 : 6~10)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속박되었으며 이집트인들의 노예가 되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일으켜 세워지고, 단련을 받았으며, 그들을 속박에서 구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낼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약 2세기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시 그 지역에 만연되어 있던 여러 우상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인도가 없다면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구축하고 누가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이신가를 상기시키시기 위해, 모세는 그들이 참된 교리를 따르도록 돕기 위해 어떤 원칙과 실천 강령을 세우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첫째,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면서 이곳 저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성막을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의식이

수행되는 예배의 집으로서 주님의 율법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불순종하자, 그들이 성막에 참여하는 축복을 즐기는 특권이 거두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음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처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출애굽기 33:7)

이스라엘 자녀들이 다시 주님의 면전에서 선을 행하게 되자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장막도 함께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장막은 낮에는 그들을 인도하였으며, 밤에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었습니다.

후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에, 솔로몬 왕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시온 산 위에 공식적인 예배의 집인 장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50년 동안 솔로몬 성전에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충실히 지키지 못했으며, 각 지파들의 불화로 인해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심히 약하게 되어, 바빌론의 왕 느브갓네살이 그들을 침략해서 성전이 약탈 당하고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예배할 장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집과 그밖의 다른 것도 많이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느브갓네살의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 장소인 성막 뿐만 아니라 돌판위에 쓰여진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졌으며 지침과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히브리 율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십계명 중 네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음 가짐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여섯 가지 계명은 이웃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십계명의 기본이



대희 방문자

되었습니다. 또한 십계명은 사회의 법과 질서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의 일상 생활에 한 부분이 될 종교적인 전통을 확립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된 이후조차도 이러한 전통을 버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낮은 땅에서 고생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성전을 빼앗겼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적인 전통과 그들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요즈음엔 우리들 대부분이 국가들이 새로운 자유를 조직하는 것을 돕도록 부름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자신의 영혼 안에서 자유의 빛이 밝게



대관장단, 왼쪽부터 :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제1보좌,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토마스 에스본슨 부대관장, 제2보좌

타오르게 함으로써 그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써 자유가 어떻게 누리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고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운 신 모형에 따라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목적으로 경배의 집을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맺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충실함에 따라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습니다. 이제 성전은 세계 여러 나라에 세워져 있으며, 합당한 회원들이 그곳에 들어가 예배드리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분의 율법에 따르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인간은 지상에 처음으로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율법에 순종해야만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릇 창세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에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성 130 : 20~21)

여러 시대를 통하여 예언자들은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셨으며, 이 율법들은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데에 기초가 되며 우리를 혼돈에서 질서로 인도할 것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고 자녀들을 그 곳에 두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그들이 승영하여 영광스러운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왕국에는 주어진 율법이 있으며, 전 우주를 통해 만물이 율법에 의해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법을 지키든지 그는 그 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그 법이 그에게 보장 해주는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가장 높은 법에 순종하여 모든 불멸의 존재를 위해 정해 주신 가장 높은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떤 법을 지킬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셀지 호머 덜함, 솔트 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46년, 10페이지)

주님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축복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절기와 축일의 순서에 따른 종교적인 전통을 우리에게 규정해 주는 것을 명확히 해주신 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즐거움인 그 위대한 유산에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전통을 갖는 것은 모든 가족이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하고 함께 경전을 공부해야 하며, 매주 교회 모임, 특히 성찬식에 참석하고 주님의 날에 합당하게 행동함으로써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매주 가족들을 함께 모아 가정의 밤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아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매주 아내와 데이트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매달 우리는 금식하고 주님께 십일조와 헌물을 바쳐야 합니다. 만년마다 우리는 연차 대회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가족의 전통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우리의 위대한 복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전 가족 단합 모임을 조직해야 하겠습니까.

가정의 축복, 축복사의 축복, 선교사 준비, 성전에 가기 위한 준비, 정기적인 성전 참여 및 가족이 함께 돌아가신 가족들을 대신하여 성전에서 성스러운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 생활의 일부로서, 계속 지켜나가야 할 전통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가족내에 의로운 전통을 세운다면, 그 복음의 빛은 후손에게 계속 전해져서 자녀들의 삶을 통해 영원히 밝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자녀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 영원한 가족 단위로써 함께 연합할 때에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활동과 전통은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러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으로서 세상의 햇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여하는 주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형 제 자매 여러분, 벤슨 대관장님의 위임을 받아 이제 저는 총관리 역원과 교회 본부 역원들의 명단을 발표하여 여러분의 지지를 문겠습니다.

우리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고든 비 힝클리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형제를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에두와도 아얄라, 리그랜드 알 커티스, 클린튼 루이스 커틀러,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해롤드 지 헬람, 케네스 존슨, 헬베시오 마틴스, 런 에이 미켈슨, 제이 벨라드 워시번, 더럴 에이 울지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974년부터 대관장단의 특별 대표로 봉사해 온 데이비드 엠 케네디 형제와 그의 보조로 함께 봉사해 온 블레인 에이치 툴러 형제를 해임하며 이 두 형제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형제님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는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은 남편의 동반자로서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윈더 자매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의 직에서 해임하며 윈더 자매의 두 보좌인 조이 에프 이반스 자매와 조안 비독시 자매, 그리고 본부 상호부조회의 모든 임원을 해임합니다. 또한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인 엘레인 엘 잭 자매를 해임합니다. 이 자매들의 훌륭한 봉사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 분들은 그 뜻을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엘레인 엘 잭 자매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지에코 엔 오가자키 자매를 회장의 제1보좌로,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자매를 회장의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재닛 시 헤일즈 자매를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본부 역원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슨 대관장님, 만장 일치로 찬성 지지가 되었습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부름받은 형제님들과 본부 상호부조회와 청녀 회장단의 새로운 회원으로 부름받은 자매님들은 단상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

보고자 : 윌포드 지 에들링
교회 감사 위원회 위원장

수신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교회 및 교회 조직의 본부 기금의 영수와 지출에 대한 합당한 관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1989년 12월 31일자로 마감된 1년 동안의 교회의 예산, 회계 및 감사 체계, 이와 관련된 재정 결산 명세서 그리고 기금 영수와 지출 관리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연간 교회 본부 기금은 주님의 계시에 의해 규정된 대로 대관장단과 심이사도 평의회와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되는 십일조 지출 평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니다. 지출 위원회는 주례 모임에서 예산에 따라 중요한 지출을 집행합니다.

교회의 본부 기금 계정은 교회의 빠른 확장과 다양한 활동에 뒤지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현대식 회계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재정 기록부가 맡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모든 부서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감사부는 자격을 갖춘 공인 회계사와 이와 유사한 자격을 지닌 감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 감사, 운영 감사,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업무는 교회의 각 부서와 전세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 조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교부, 학교, 관리 본부 및 각 부서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와드와 스테이크의 지역 기금에 대한 감사는 스테이크 감사자가 실시합니다.

감사 절차는 교회 감사부가 제정한 것이며, 감사 보고서는 교회 감사부에서 검토합니다. 교회 재정 기록부가 회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교회 소유 및 운영 재단 법인 사업체는 교회내의 감사자, 독립된 전문 감사 기관이나 정부 감사 기관이 감사합니다.

교회내의 재정 관리 체제에 대한 우리의 조사에 의거하여 재정 기록부와 감사부 책임자들이 함께 계속해서 토론한 결과 우리는 예산, 회계 및 감사 관리가 교회의 필요 사항과 목적을 위해 합당하게 처리되었으며, 1989년 12월 31일자로 마감된 1년 동안 영수하고 지출한 교회의 본부 기금이 모든 면에서 현재 제정되어 있는 교회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회계 처리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교회 감사 위원회

윌포드 지 에들링
데이비드 엠 케네티
워렌 이 퓨
메릴 제이 베이트먼
테드 이 데이비스

1989년도 통계 보고서

보고자 : 에프 마이클 왓슨
대관장단 서기

대관장단은 교회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1989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발전과 현황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회원 수는 대회 전까지 입수한 1989년도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것임)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수	1,739
지방부 수	432
선교부 수	228
와드 수	11,536
지부 수	5,769
와드 또는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주권 국가의 수	128

(본 통계는 1989년 한 해 동안 32개의 스테이크와 747개의 와드와 지부가 증가했음을 보여 줌)

교회 회원

1989년말 현재 교회 회원 총 수	7,300,000
침례받은 기록상의 자녀	75,000
침례받은 개종자 수	318,000

선교사

복음 선교사	39,739
--------	--------

작년 4월 이후 한 해 동안 작고한 유명 회원

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 명예 총관리 역원; 로이스 에이 크야르 브라운 자매, 명예 총관리 역원인 빅터 엘 브라운 장로의 부인; 매리엔 클라크 샤프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 역임. *

온 세계를 가득 채우며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주께서 현재 지상의 모든 백성들이 그분이 전해 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받아들일도록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우리의 손을 들어 깊은 감사의 뜻을 담아 예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을 하나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로서, 또한 그분의 영감받은 보좌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을 예언자요 선전자요 계시자로서, 그리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다른 총관리 직원들을 지지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물론 보조 조직에서 새로 부름받으신 분에게도 지지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전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그 영감어린 교리와 교회 정책의 결과로 안정된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교회 통계 보고를 들었습니다.

최근 어느 기사를 보면 말일성도가 아닌 어느 학자가 이 교회가 160년 전에 회복된 이후 예상 밖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관해 신선하고도 매우 흥미있는 평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의 성장을 하나의 “기적”이자 “믿을 수 없을 만큼 드문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 “신세계 신앙의 부흥”, 종교 연구 비평, 26권, 1호, 1984년 9월, 18페이지)

1842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시카고의 어느 신문 편집인으로부터 한 질문을 받고 그 대답으로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대륙을 꿰뚫고, 모든 지역을 방문하고, 모든 나라를 휩쓸고,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릴 때까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완수될 것이며, 위대하신 여호와께서는 사업이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교회 정사, 4:54)

최근 몇 주 동안 전세계에서, 특히 동구권 여러 나라에서 몇 가지 놀라운 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화로운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온 세상을 주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벽이 무너지고 문이 열렸으며 수백만 명이 자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더 밝은 날이 동터오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낍니다.

뉴스 매체들은 동유럽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단순히 정치적 혁명으로만 보이게 했지만 억압받아 온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종교의 부활”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유에스에이 투데이, 1990년 3월 16일자, 13페이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어느 잡지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한 이념이었으며... 민주주의였고 미국과 [전세계 여러 나라에] 놀라운 만큼

성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 기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미국은 이념과 이상의 영역에서 전세계에 계속 공헌할 것이다.” (“1990년대를 바라보는 한 미국인의 시각”, 포춘, 1990년 3월 26일자, 14페이지)

동유럽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 즉 인공 위성, 라디오, 인쇄물, 심지어 물론 태버네클 합창단의 프로그램과 녹화 방송 및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하여 진리와 기본권에 조금씩 효과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진리의 씨앗을 그들의 의식의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씩 스며들게 해주어,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확신을 갖고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한 때 인간이 만든 강대한 제국이 매우 큰 속도와 결심으로 변화되어 수억 명의 압제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과 희망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습니다. 절망이 있던 곳에 이제 자유의 밝은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직 전능하신 분의 중재하시는 손길로 인한 기적적인 방법에서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창세기 18:14)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직후,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 두 사람에게 명하여 요단강의 마른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표징이 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물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나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와 손을 잡을 수 있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여호수아 4:21~24)

성경에는 백성들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하라는 권고의 말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온 세계에 크신 손길로 중재하심을 보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에 있는 자녀들의 복지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내심 많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험와 불을 비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창세기 19:24) 라는 성구에서 알 수 있듯이 경건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줄리아 워드 호우는 미국의 각 주 사이의 분쟁에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절실한 느낌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밤중에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가사가 마음속에 떠올랐으므로 그녀는 즉시 그 가사를 받아 적었습니다.

영광 중에 오실 주님 모습

나는 보았네

진노 가득한 포도즙 틀을

밟아 버리고

그의 무서운 분노의 칼 풀어 버렸네

진리는 이기리

승리의 나팔소리 널리 울려 퍼지네
심판대에 앉은 주님 우릴 심판하시네
우리 응답 빨리하며 주께 찬양하리라
우리의 하나님(“전승가”, 찬송가, 22장)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일에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설 수 있게 그의 전능하신 손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새우셨습니다...”

“그의 손길은 이 나라 전역에 미쳤고 이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확장하여, ...속박과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요 계획인 것입니다.”(복음 교리, 371페이지)

미대륙에 세워진 종교의 자유로

말미암아 물론경의 분명하고도 소중한 진리가 널리 전파되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물론경 서문) 해주는 일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져 그들이 “하나님의 명하심을 알게”하며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더서 2:11)

이 지식과 간증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종교의 자유를 은사로 누려온 교회 회원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회복된 복음의 원리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전인류에게 미치는 깊은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지 마십시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 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선을 행하게 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복음 교리, 66페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뜻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급속도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도 있고 바다 건너에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의 운명이 이제 결정되고 있습니다. 각 세대는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세대에 대해 책임을 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 세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수십억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의 이 영화로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르쳐지는 복음을 듣고 응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님은 전자 제품을 파는 상점에 들어서면서 램프와 초인종 등 전자

제품이 아름답게 진열된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램프를 고른 후 시험삼아 스위치를 올렸더니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종업원은 램프가 모두 전시용이며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초인종 있는 데로 가서 벨을 눌렀으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상점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모두 보기엔 그럴 듯 했고 예술품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으며 쓸모있게도 보였으나 전시된 그 제품들은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다만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점을 나서며 탈매지 장로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빛을 내는 촛불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매우 정교한 전자 제품보다도 훨씬 더 쓸모있군.” 이때 그분의 마음속에는 “영성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걸모양에 미혹되어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에 관해 경전에 묘사된 다음 구절이 적절한 비유로 떠올랐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디모데후서 3:5) (복음 회복의 지침서, 인디펜던스, 미주리: 시온 출판사, 1944, 389~390페이지)

몇 년 전 저는 아이슬란드 레이크자비에서 가장 높은 첨탑을 흥미있게 바라보았는데 그때 우리는 비행기로 공항에 착륙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높은 건물이면 교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만나 인사하고 제가 헌납할 우리 교회의 건물을 살펴본 후 우리가 공중에서 보았던 매우 높고 위풍당당한 첨탑이 있는 다른 건물을 방문하고 싶은 호기심이 났습니다. 그 건물은 멀리서 볼 때 매우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건물로 가까이 가서 보니 정문은 합판이었고 자물쇠로 잠겨 있었으며 뒷문으로 들어가라는 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상적인 정문과 높은 첨탑이 있는 이 큰 교회 건물은 단지 건물의 걸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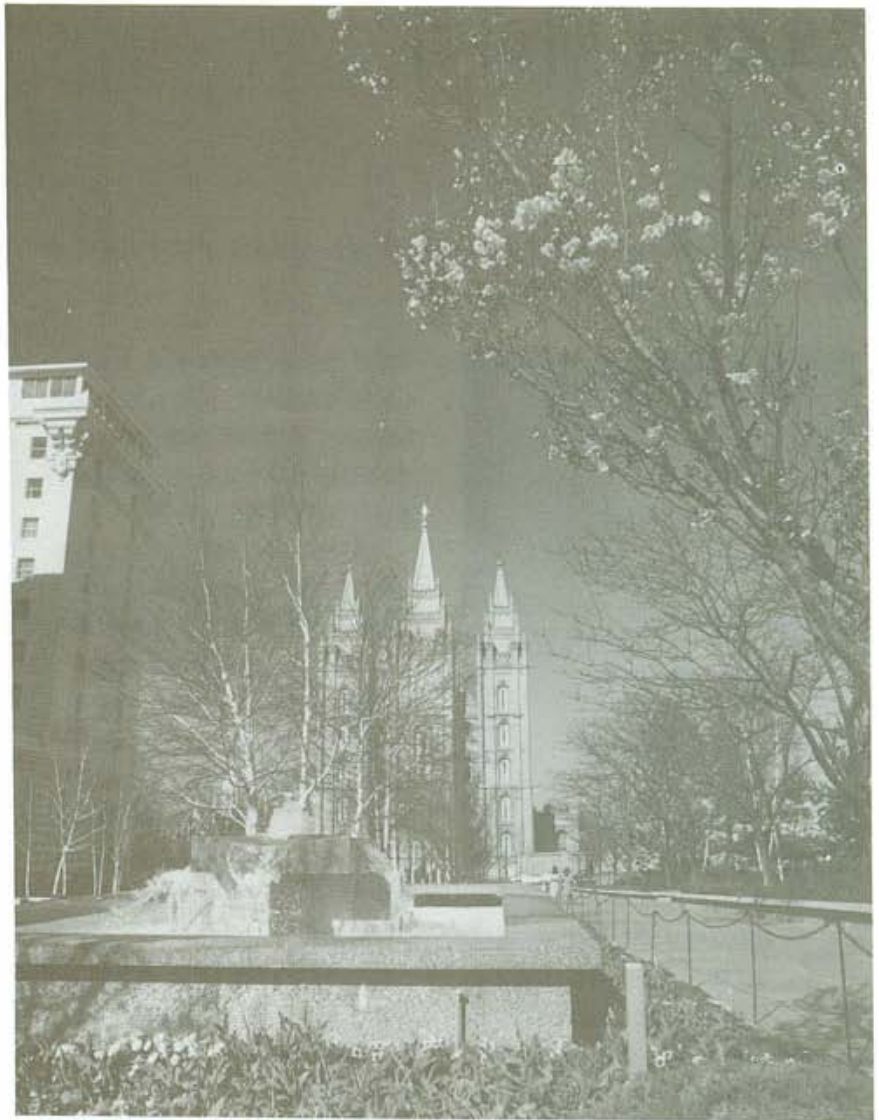
되었습니다. 40년간이나 공사 중인 이 건물에는 비바람에 시달린 건축 자재들이 그대로 놓인 채, 과거에 웅대한 규모로 야심에 찬 계획은 있었으나 완공에 대한 신념과 예지가 부족했음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탈매지 장로님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수수한 예배당으로부터 장엄한 성당에 이르는 것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물이 만일 성 신권이란 전류와 성신의 생명력 있는 전력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란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민 건물일 뿐입니다."(복음 회복의 지침서, 390페이지)

그후 우리가 레이크자빅에 있는 작지만 아늑한 우리 건물에 모였을 때 이 건물이 단지 껍대기가 아니라 이 작은 건물 안에 생명력과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현재 지상의 모든 백성들이 그분이 전해 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갖춘 사람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웃과의 관계 및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일단 자신을 준비하여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에게는 진리의 증언자이신 성신의 권세로써 그의 마음속 깊이 진리가 자리잡게 됩니다. 그런 후에는 진리의 모든 표준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그의 의무입니다. 여기에는 생활 양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며, 죄를 범한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 옆에 가까이 있으며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보상을



나무들과 봄 꽃들로 둘러싸여 있는 솔트레이크 성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심없이 봉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거둬나며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상의 인간들에게 그분의 사명을 이루시는 일을 도우려는 소망을 가져야 하며 그 일을 돕기에 합당함을 증거해 보여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늘 아래 유일한 이름이며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대하고도 영원한 승영을 얻으려면 이러한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1831년 10월 젊은 나이의 예언자 요셉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굴러 퍼지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퍼지듯이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교리와 성약 65:2)

저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선포하며 가르치며 마침내 심판하도록 맡기신 이 사업이 영원한 사랑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 주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오늘날 택하라”

한스 비 링거 장로
칠십인 정원회

“주님은 우리가 주의 길을 선택한다면 축복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십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진실성에 대해 간증한 후 사람들은 그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사도행전 2:37)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 이후 이러한 질문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복지 및 우리 이웃의 복지와 관련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고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이해력에 기반을 두고 결정을 내리며 실수와 잘못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평안을 염원합니다.

저의 생애에서 저는 더욱 행복하고 의미깊은 삶을 소망하고 염원하므로 매일 내리는 결정을 좀더 신중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만큼 우리를 인도해 주는 원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향 없이는 저의 길을 일관성있게 추구해 나갈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좋을지 알려 주는 원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적인 계획을 고안했지만 그것을 실천할 만한 동기나 시간 또는 용기가 없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참된 행복이란 자신의 계획과 신념과 소망을 실현시킴으로써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별 발전 없이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의 기반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의를 선택하려는 소망과 행복을 찾으려는 우리의 염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이 우리의 행동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을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 그 자체가십니다. 주님은 신앙, 회개, 침례 및 성신의 은사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생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당신께서 손수 가르치신 복음을 그대로 반영한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행동은 서로 완전히 일치되었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면 우리의 생활은 참된 원리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행동은 그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편리한 원리들만

고르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마음속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서 제가 기독교인의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어 온 원리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27) 사랑은 복음의 본질이며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주는 빛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저 높은 곳을 향해 보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둘러 보도록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과 우리 이웃과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진정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는 경전의 권고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편견과 변명이 없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모범대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진하여 더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와는 대조적인 예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야고보서 1:8)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유부단함을 묘사한 말로서 다음과 같은 옛 스위스 격언이 있습니다.

한 발은 안에다 넣고
한 발은 밖에다 놓으면
안에 있을 수도 없고
밖에 있을 수도 없다네.
따뜻하지도 않고 춥지도 않으며
네모나지도 않고 둥그렇지도 않으니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없고
언제나 얽매인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절대로 모를 것이기 때문이라네.

그리스도를 따라 생활하는 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길을 선택한다면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정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열광적이지는
않지만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찬
헌신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없이
이웃의 필요 사항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면서도 주님께
전념하여 헌신하는 삶입니다. 또한
그것은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고난이나
실망이나 불편함도 따르는 헌신적인
삶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평생 동안
노력합니다. 혼란에 빠졌거나 변화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와
지지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변방에 가셨을 때 한
청년이 그분에게 “이 모든 것을 제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답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마태복음 19:21)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간 젊고
부유한 그 청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진 부를 나누어 주기를 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물질적인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사람에게는
시간이나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삶의 편의
시설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고 궁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데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만이 우리 이웃의 짐을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눌 것이 거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우리가
오직 한 시간만 나눌 수 있다 해도
우리는 부유한 것입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위로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며 가르치고 격려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며 먹이고 입히고 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짐을 들어올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봉사를 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존경하며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나라에서
겪은 막대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탄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모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가정의 안락을 떠나야
할지라도 지금 봉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능력 이상으로 지나치게 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집이 없거나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을
기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세상을 바랄 수 없고 더욱 완전한 정부나
사회를 꿈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이웃이나 와드내에서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또는 절망에 빠진 사람을
발견할 수 없다면 더욱 열심히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뛰어 넘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종교적,

인종적, 사회적인 편견을 없애고 봉사할
수 있는 경계선을 넓혀야 합니다.

봉사하는 데 차별을 두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한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여긴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데 압도당할 수도
있고 인생에서의 불공평과 사회의 병폐를
보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한 일은 조금도 헛된 수고로 그치지
않으며, 우리가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세상은 더욱
훌륭한 곳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봉사할 것을 선택하시되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교회의 안락을 막론하고
행해야 할 좋은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불운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재능을 함께
나눌 자원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핀다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것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권고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준 대답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을 훔치는
결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과 반대되는
결정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저는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모사이아서 2:17 참조)
저는 우리가 모두 지혜와 결단력을 갖고
오늘 누구를 위해 봉사할 것인지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예언자 여호수아처럼 “오직 저와 제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15)하고 결정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지도자의 자질에 관한 경전의 가르침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철십인 정원회

“상황이 언제나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도자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교회의 새로운 회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19 참조)

이제 앞으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름을 받아 봉사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므로, 저는 지도자의 자질에 관해 경전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값진 진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받을 때 그가 산 꼭대기로 들려져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제 백성...을 속박에서 건져” 내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주셨습니다. (모세서 1:26) 그리고 나서 주님은 장기적인 목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우리는 물문경에서 젊은 예언자 니파이도 산에서 시현을 보았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니파이일서 12:1 참조) 약속의 땅을 본 니파이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배를 만드는 일을 단념할 수 없었습니다. (니파이일서 17~18장 참조) 각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한 번 아들이 선교사 복장을 한 모습이나 딸이 성전에서 흰 옷을 입은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본다면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는 저절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모세와 니파이에게서 우리는 **지도자란 앞 일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탈출해 나온 후 300년 이상(1429~1095 B.C.) 사사들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러 왕들이 다스렸는데 첫번째 왕은 예언자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10장 참조) 수십 년간 사울은 백성들의 찬사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후 사울은 교만해져서 주님의 예언자가 하는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기던 시절을 상기시켜 주었으며(사무엘상 15:17 참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사무엘상 15:22절) 영원한 가르침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울의 생애를 보고 우리는 **지도자는 겸손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 왕이 40년간

통치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 황금 시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윗 성으로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훌륭한 지도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져 매우 중대한 죄를 범했으며 더욱 큰 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생애에서 우리는 왕이라할지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유혹에서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사망한 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통치 초기에 솔로몬은 매우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좋은 작은 아이라...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7~8, 12 참조)

주님의 영으로 무장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세대 동안 간구했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으며, 그들은 그의 “마음을 돌이켰”으므로 그는 “여호와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3, 6) 솔로몬에게서 우리는 **지식과 지혜만 있다고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권고를 따를진대,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한 야곱의 말씀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니파이이서 9:29 참조)

솔로몬이 40년간 통치한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기 위해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장로들의 조언을 구했으며 그들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2:7 참조) 구세주께서도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가복음 9:35 참조) 하나님의 왕국내에서 지도한다는 것은 곧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신을 낮춰 겸손히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라는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렸으므로 결국 나라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열왕기상 12:20 참조)

그후 220년간 그 백성들은 대부분 거룩한 성약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길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런 후 히스기야라는 젊은이가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열왕기하 18:3, 5) 히스기야는 그 당시 신권 소유자들을 불러 모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하라”(역대하 29:5)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고로... 여호와께 귀순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역대하 30:7-8 참조)

예언자 이사야의 지지를 받은 이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으며(역대하 30:20)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31:18)

베냐민 왕에게서 처럼(모사이야서 2~5장 참조) 히스기야 왕에게서도 우리는 지도자의 자질에 관한 매우 훌륭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언제나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도자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과 커다란 소망은 온 백성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스승이요 예언자며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에스라 7:10) 우리는 말일 성도로서 현대의 에스라, 즉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께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구약 시대의 에스라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해 오셨으며, 주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한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대로 생활하라는 바울의 권고를 모범으로써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15 참조) 예언자 요셉의 커다란 장점 중 하나는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지도력을 개발시키고 일을 위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시온 진영의 기나긴 이동은 “와서 나를 좇으라”(누가복음 18:22)는 원리에 기반을 둔 요셉의 지도력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시온의 진영이 이동을 끝마칠 때 예언자는 새로 조직된 고등 평의회 회원들에게 그들의 부름과 관련하여 상세히 가르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만일 제가 없어도 되더라도 저는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위대한 사업을 성취했습니다.”(교회 정사, 2:124) 예언자 요셉은 순교하기 훨씬 오래 전부터 그가 죽은 후에도 왕국을 계속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부지런히 훈련시켰습니다. 여기에 지도자의 자질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앞으로 그들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채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묘지에 가면 한 때 자기가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던 지도자들의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웠으며 훌륭했던 지도자 중에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잃지 않고 구원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예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였)음이더라...”

“보라, 때가 지나매 시온이 하늘로 들리워 가리라”(모세서 7:18, 21)

“때가 지나매”라는 말씀에 유의하십시오. 훌륭한 지도자는 인내심을 갖고 멀리 내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에서 우리는 예수가 “승천할 때에는 사백 삼십 세(49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완전하게 되는 데는 매우 기나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48; 니파이삼서 12:48 참조)

모든 생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부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갯세마네 동산에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쓴 잔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제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2:42) 주님의 왕국의 지도자는 마음이 은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엘마서 37:34 참조) 주님의 사업에 참여한 우리가 모두 주님의 사업을 주님의 방법대로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은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즉시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후에는...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교리와 성약 121:41-43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부 활

에프 멜빈 하몬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의 구세주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남부 북부 지역에 사는 교회 회원들과 여러분의 훌륭한 아들과 딸들인 선교사들의 진실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은 계속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몬드 장로님, 사랑하는 예언자를 만나시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실 때 성도들에게 그들처럼 우리도 구세주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은 참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의 사랑이 담긴 요청을 들어주게 되어 기쁩니다. 이 대회에서 저는 특별히 온세상의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는 중요한 것들을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과 같은 짧은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오래 전에 우리 가족은 매주 갖는 가정의 밤에서 부활의 원리에 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활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하려고 애쓰다가 어린 자녀들이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명하듯이 그와 같은 것들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다섯 살이었던 레즐리가 제가 곤란해 하는 모습을 염려하는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마세요. 아빠 말을 알겠어요.” 그런 후 레즐리는 새로 배운 복음 지식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마루에 양팔을 짝 뻗고 똑바로 펫펫하게 놓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그건 간단해요. 이렇게 일어나는거지요.”
이제 저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주일에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을 경축할 것이며 우리는 모두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른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깊은 어둠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 전에 나사렛 예수의 시신을 모셔 놓은 무덤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이를 전에,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시어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로서 필멸의 육신의 생을 마치셨습니다.
산헤드린의 일원이며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십자가에서 옮길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허락을 얻은 후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졌고 전에 밤중에 예수께 찾아와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의 도움을 받으며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시신을 묻을 준비를 정성껏 했습니다. 친절하고도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죽은 분의 시신을 요셉이 소유하고 있는 최근에 만든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큰 돌을 굴러 입구를 막았고 그후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지 못하도록 로마인들이 와서 무덤을 봉했습니다. (마태복음 27 : 64 참조)
무덤으로 다가간 막달라 마리아는 큰 돌이 치워진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이 새로운 비보를 사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급히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요한복음 20 : 2)
수제자인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인 요한은 묘지로 급히 가보았습니다. 마리아의 말이 옳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무덤은 참으로 비워져 있었으며 시신을 싸기 위해 사용된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비통해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무덤으로 다시 왔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푸려 무덤 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 : 11)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무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크게 슬퍼하는 것을 보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슬퍼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요한복음 20 : 13)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마리아가 무덤에서 몸을 돌렸을 때 눈물에 젖은 눈을 통해 누군가 곁에 서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템플 스퀘어에 있는 대외 방문자들을 공중에서 내려다 본 풍경

그리하면 내가 가져 가리이다”(요한복음 20:15)

지극히 사랑이 담긴 매우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는 “마리아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음성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벅차 오르는 감격에 떨면서 이 사랑스런 여인은 단 한마디, 선생님이시여라는 뜻의 “랍오니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살아서 계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셨습니다! 결코 다시 죽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온전한 육신은 영광 영원히 결합되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곳에 있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영예롭게도, 우리 구속주께서는 죽음에서의 그의 부활에 대한 첫 목격자로서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사건들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악한 자들에 의해 그가 겪으신 끔찍한 고통, 즉 채찍에 찢기고 손과 발에 무시무시한 못들이 박히고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고통당하시고 마침내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 돌아가신 것 등을 생각하며 매우 큰 슬픔에 잠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 계십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그분 없이는 모든 인간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죽은 채로 남겨져 결국 티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가치 없는 손길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이나 귀여운 딸들을 무덤에 묻게 된 훌륭하신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충실하게

생활하면 우리는 그들을 잃지 않을 것이며 얼마 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곳에 계신 훌륭한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절을 경축하게 될 때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모두 언젠가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며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도 영원히 점점 더 크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부활에 관한 저의 겸손한 간증이며 이 간증을 주님과 여러분 모두에 대한 저의 깊은 사랑과 함께 전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고결한 성품

조셉 비 워스틴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고결한 성품에 대한 보상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속의 평화와 평온감이며, 또 하나는 죄를 지음으로써 오게 되는 죄책감과 불안입니다.”



주 님은 이렇게 계시셨습니다. “나의 종 하이람 스미스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의 마음이 고결하며 내 앞에서 올바른 것을 사랑하므로 저를 사랑하는 연고니라.”(교성 124 : 15) 저는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다소 구식같지만 고결한 성품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고결한 성품이란 즉각적인 결과가 어떻든지 언제나 올바르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행동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의 의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결한 성품에는 신뢰와 성약에 거저될 수 없는 신뢰성과 청렴함이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이 올바르게 선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좇는 자”(모로나이서 7 : 3 참조)에게 예언자 물몬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여 판단하는 일은 너희에게 맡겨진 일이라. 또한 이를 판단하는 일은 낮과 밤을 구별하여 온전하게 아는 것같이 지극히 간단한 일이라.”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 주리라. 무엇이든 선한 곳으로 인도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사로 인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줄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그러나 무엇이든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거든, 너희는 분명히 온전한 지식으로 이러한 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임을 알지니 악마는 이같이 행하여 단 하나라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마의 천사들도 그러하며 악마에게 매어 있는 자들이 다 그러함이라.”(모로나이서 7 : 15~17)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항상 선을 택해야 합니다. 흔히 속임수, 기만, 사기, 표리 부동 등이 이 세상에서 용납되는 듯 하더라도 우리는 잘못 인도되어서는 안됩니다. 거짓말, 도둑질, 속임수 등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도덕적, 윤리적 표준인 성실은 참된 말일성도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옛날 읍처럼 우리도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은 그가 소중히 여기던 가족, 친구, 건강, 재산 등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고결한 성품을 결코 버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결한 성품을 별로 가치도 없는 것과 바꿉니다. 사탕, 화장품, 보석 등을 가게에서 훔치는 사람은 빈약한 이득을 위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고결한 성품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수입을 보고하지 않거나 세금 감면을 근거없이 주장하여 소득 신고를 속이는 사람은 소득세를 조금 지불하기 위해 매우 값진 자기의 고결한 성품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상품과 용역에 대해 즉시 값을 치르기를 기피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중하고 고결한 성품을 일시적인 이익과 바꾸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성실하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는 그들의 값진 성품을 덧없는 순간의 환락과 바꾸는 것입니다. 고결한 성품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매우 소중한 것이며 그 가치는 무한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고결한 성품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최근 주일 학교 시간에 그에 대해 배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고결한 성품을 지녔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의롭고 선한 일을 행했으며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고 청렴 결백했으며 결코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자기 수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성품이 고결하고 의로웠으므로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증거가 됩니다.(로마서 8 : 28 참조) 요셉의 모범이 특히 우리와 관련이 깊은 이유는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이 그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그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요셉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꿈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갔을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접근하자 그의 의로운 성격상 보디발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합당치 못한 유혹을 거절하고 도망쳤습니다.

이 거절과 그로 인한 고발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시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요셉에게 바로의 술 시중드는 자와 떡 굶는 자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후 바로가 말한 일곱 마리의 살진 소와 여원 소에 대한 꿈과 무성한 일곱 이삭과 마른 일곱 이삭에 대한 꿈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바로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 전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흉년일 때는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일 때는 곡식을 나눠주는 일을 지시했습니다.

흉년 동안 22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판 그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려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므로 그의 높은 지위때문에 그에게 몸을 굽혀 절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고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기가 받은 학대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형들을 노예로 만들고 감옥에 가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롭고도 선한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인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창세기



에즈라 대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태버내칼에 들어오신 후 앉으라고 손짓을 하심

45 : 4~5, 7~8)

요셉을 통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이 번성하고 증가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알려진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요셉의 고결한 성품과 그것이 그에게 가져다 준 축복에 중점을 두고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가문에서 상속권을 가진 아들이 되었으며 미대륙을 상속의 땅으로

받았습니다. (이더서 13 : 8 참조) 주님은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할 모세에 대해 예언하게 하셨으며, (요셉 스미스 영감역 창세기 50 : 27~29 참조) 말일에 복음을 회복시킬 회복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해서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 영감역 창세기

50 : 30~33; 니파이서서 3 : 6~21 참조)

좀더 근대로 들어와 고결한 생활의 모범을 보인 사람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지식보다도 월등히 높은 고결한 성격을 지녔으므로 국민들은 그를 지도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는 마운트 버는 땅의 평화와 고요함을 사랑했지만 의무에 순응하기 위해 혼란한 공적인 생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기록한 정확한 비용만을 정부에서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보수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 중 45년을 나라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북크래프트사, 1968, 142~144페이지) 나는 2주 전에 마운트 버는 스테이크를 방문하면서 이 나라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의 영을 느꼈습니다. 이 훌륭한 사람의 고귀한 업적이 저의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 역시 고결한 성품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그는 주님이 지시하신 일을 할 때에는 목숨이 위협할 때조차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다. 그는 “삶을 피하지도

않았으며 그 경험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니다. ... 그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군했고, 건물을 짓고, 나무를 자르고, 땅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근육으로 발달된 그의 몸은 육체적인 노동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정신은 끊임없이 진리를 찾는 탐구심의 이상적인 모범이었습니다.”(레온 알 하트슨, *요셉 스미스, 회복의 예언자*, 테저렛 출판사 1970년, 67페이지) “그의 위대함은 단지 예언, ...연설, 저술에만 있지 않았으며 그의 인물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같은 책, 38페이지) 우리의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이신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고결한 성품에 대한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대관장단의 지명을 받아 유럽에서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덜어 주시면서 고결한 성품을 모범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참된 위대함은 스스로 자기가 누구라고 말하거나 사람들이 그가 누구라고 말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인물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고결한 성품은 우리의 참된 인격을 형성시켜 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결한 삶을 살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누가복음 6: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21)

조금 거짓말을 하거나 조금 속이는 것, 또는 합당하지 않은 작은 이득을 취하는 것 역시 주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없는 것입니다. (니파이이서 28:8 참조) 경전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조심스럽게”(21절)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는 사탄의 방법이라고 경고합니다.

복음이 회복된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구세주께서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나니.”(교성 8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받고 있으니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축복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야고보서 4:17)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몹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사기, 기금의 악용, 거짓 광고, 또는 이득을 얻으려고 속이거나 기만한 일들에 관해 듣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행위를 무척 싫어하십니다. 잠언에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잠언 11:1) 주님은 “만일... 빌린 것이 있거든 빌린 것을 갚으라.”(교성 136:25)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누탈하지 말며...”

“너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레위기 19:11, 13, 35~36)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정직한 것 이상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길 잃은 황소를 만나면 그 주인을 찾아 돌려 주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의도와 행위는 주님 보시기에 흠없이 순결해야 하셨습니다. 우리는 업자, 고객, 고용인들에게 공정해야 하며 채무를 갚고 약속을 지키고 투자나 사업에 대한 모든 사실을 감춰서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교성 121:35) 있으면 우리는 쉽게 고결한 성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 선행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3조)

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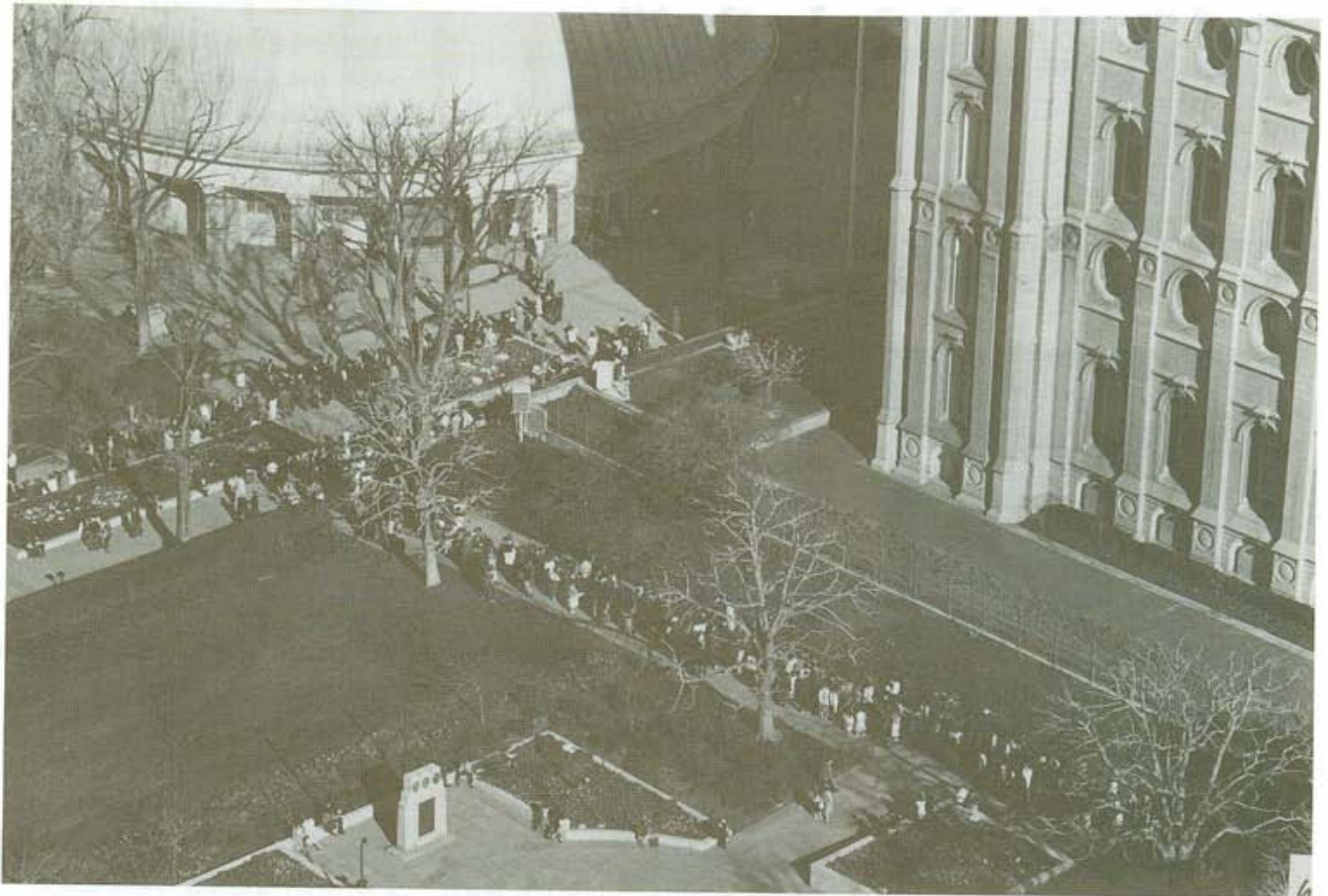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패보다는 정직을, 영리함보다는 선한 마음을, 방향감 없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십일조를 낼 때 주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충실한 성도들은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말라기 3:10) 부어 주실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십일조를 내는 문제는 돈보다는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수입의 십분의 일을 주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교성 119:4 참조) 그리하여 십일조를 내지 않아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또한 궁핍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그들을 돕기 위해 금식 기금을 후하게 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봉사함으로써 우리의 고결한 성품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 그리스도를 닮은 감독, 가정 복음 교사, 방문 교사 및 워드 회원들이 그렇게 생활했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덟 명의 자녀를 둔 한 젊은 어머니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는 열 두 살이었고 막내는 겨우 한 살이었으며 한 딸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가족과 친구들이 가까이 있는 워드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상태였으므로 무시당하거나 따돌림 받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사왔을 때 워드 회원들이 몰려와 축하해 주고 음식을 가져오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트럭에서 이사짐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지시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한 후 그녀와 가족은 셀 수 없이 많은 봉사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들은 그녀의 살림살이를 돕고 가전 제품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가정 방문 교사들은 그녀와 매우 가깝게 지내며 교회 모임에 그녀가 홀로 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성탄절에 그녀는 현관에서 익명의 돈을 발견하거나 악수할 때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차에 휠체어를 들어올리는 시설을



템플 스퀘어에 있는 대회 방문자들을 공중에서 내려다 본 광경

살 수 있도록 수백 불을 받았습시다. 잠시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그녀는 와드 회원들이 부엌을 개선시켜 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녀를 도와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자녀들을 돌봐 주었으며 그녀의 딸이 아파서 응급실로 갈 때 같이 가 주었습니다. 그들은 앞문에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게 비탈길을 만들어 주고 식품을 저장할 수 있는 선반도 만들어 주고 마당 일도 도와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친절의 행위들은 그녀가 매일 어려움과 역경을 대처해 나가는 데 큰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젊은 어머니를 돌본 사람들은 고결한 성품으로 "정결하고 더움이 없는 경건"(야고보서 1:27 참조)을 실행하였습니다. 구세주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도 "가서...

이같이"(누가복음 10:37) 행합시다.

고결한 성품에 대한 보상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아는데서 오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속의 평화와 평온감이며, 또 하나는 죄를 지음으로써 오게 되는 죄책감과 불안입니다.

고결한 성품으로 인한 또 다른 보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덕으로써 우리 생각을 장식할 때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의 신임이 두터워질 것입니다.(교성 121:45 참조)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는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데 머뭇거리거나 두려워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 주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결한 성품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보상은 성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교성 121:46) 우리가 악을

행하면 성신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면 성신은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신뢰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평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면에서 고결한 성품을 밖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심을 전해드립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이시며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도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이를 잘 견디어 내면”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견디어 낸다는 것은 단지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 늘 새로 지지받으신 형제 자매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은 만일 여러분이 여러 해 전 영적인 결혼을 그렇게 잘 하지 않으셨다면 생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이 참되며 진실하다.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니파이이서 31 : 15)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 중에서 특히 견디어 내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시험받고 자신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마련하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서 3 : 25; 모사이아서 23 : 21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셨으며 성스러운 그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 : 12) 그러므로 견디어 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일이며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낸 사람은 영적으로 앞에 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을 매고 끝까지 견디어 낼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특히 그분과 같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경험은 주님의 경험보다는 매우 협소한 것이지만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내야 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질병, 불의, 무관심, 가난, 외로움, 무반응, 오해 등이 있으며 때로는 적도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님이시지만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 : 3 참조) 그의 제자들도 이런 종류의 “거역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견디어 낸다는 것을 오직 인내심과 관련시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 발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엘마서 42 : 4-5 참조)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히브리서 12 : 11) 이같은 “평강한 열매”는 먼저 삭이 나고 꽃이 핀 후 정해진 계절에만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우리의 지상 생활의 경험이 단축된다면 그것은 마치 뿌리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보려고 꽃을 뽑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빵을 만들 때 너무 자주 뚜껑을 열어 보면 빵이 부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강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대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면으로 견디어 내는 것은 영원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엘마서 32 : 13 참조)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견디는 것은 단지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견디어 낸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란 벽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상을 뜻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할당된 것을 받아 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위해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엘마서 29 : 3, 6)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행복함을 판단하는 저울을 항상 사용한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나 공평함을 비교해 본다면 비현실적인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불공평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견디어 낸다는 것은 단지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중간까지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신앙 가운데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환경을 받아 들이고 참는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교성 63 : 20, 101 : 35 참조)

참된 인내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 몇 방울이 아니라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교성 19 : 18)

때때로 영적인 순종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버려 두라고 할 때에도 반항적인 아이를 사랑스럽게 껴안듯이 우리가 잡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

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내심은 우리가 환경이란 파도에 휩쓸릴 때 주님이 정하신 때를 믿는 신앙에 매달리게 해 줍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물결로 인해 우리가 부딪치고 멎을지라도 우리는 전진하게 됩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가장 큰 시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견디어 내셨으며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사이사서 15 : 5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유혹에 “개의치 않으셨”으므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교성 20 : 22)

우리는 유혹을 나중에 쫓아낸다 하더라도 얼마간 유혹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나중에 유혹에 굴복하는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험은 종종 가장 다루기 힘들고 매우 미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사이사 왕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으나 그의 아들들은 한동안 교회에 해를 입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모사이사 왕을 존경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난처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용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 위에 있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 밑에서 동정심을 품고 그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갈보리로 가는 끈고 좁은 길에서 경솔히 행동하는 여행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 : 13 참조)

그러므로 우리가 피곤하여 가는 길에서 벗어나려 할 때에도 인내심은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의지력을 심어 줍니다. (니파이서서 31 : 20) 주님은 지지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한 예언자를 특별히 칭찬하셨습니다. (힐라멘서 10 : 4, 15 : 6 참조)

바울은 충실한 제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 : 36) 처음에는 올바른 일을 하다가도 계속 압박을 받으면 그 일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압박이 심한 어려운 순간에도 올바른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평범한 일상 생활에서 좌절감을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 (히브리서 12 : 1) 해야 합니다. 이 경주는 단거리 육상 경기가 아니며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공연히 성급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한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보다도 좋아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때가 지나매”라는 말씀은 “결국”을 의미하며 모든 영적인 과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주께서 에녹에게 세상의 모든 주민을 보이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때가 지나매 시온이 하늘로 들리워 가더라.” (모세서 7 : 21; 교성 38 : 13; 창세기 4 : 3, 38 : 12; 출애굽기 2 : 23; 사사기 11 : 4; 역대하 21 : 19 참조)

물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탕한 아들처럼 우리는 종종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 “때가 지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 : 17)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오랫동안 형제간에 경쟁한 후 사막에서 다시 만나 감동적인 재결합을 한 일은 하나의 훌륭한 예입니다. 적대감은 관대함으로 대치시킬 수 있습니다. 반성함으로써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경험하며 얻게 되는 복음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경험은 수많은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큰 영적인 결실을 맺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만은 야곱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줄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0 : 27) 오늘날 교회는 시온을 세우기까지 “잠시

동안 기다려야”한다는 지시를 받았습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준비하게 하며...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성 105 : 9~10) 우리는 각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게 되며 그 “일에 대하여” (앨마서 32 : 34) 조금씩 알게 됩니다. 경험은 계속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물게도 됩니다. 각 개인의 영적인 발전은 오랫동안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마치 나뭇가지가 구부러져 모양을 만들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인내심과 온유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덜 배우게 되고, 더 조금 보고, 더 조금 느끼고, 더 조금 듣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참을성 없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열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정련하는 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기다림없이 더 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지 않고 어떻게 더 큰 사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의 짐도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을 통해 깨우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내버려야 합니다. 위선과 기만 및 그의 뿌리깊은 악습은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교성 121 : 8) 기꺼이 시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는 슬픔이 실제로 마음과 정신의 경계를 넓혀 나중에 기쁨을 누릴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은 중요한 성품이며 둘째 지체로 시험을 겪지 않고서는 개발될 수 없습니다. 인내심에 관해 아무리 잘 설명해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외의 모든 기본 덕목, 즉 사랑, 겸손, 자비, 순결, 순종, 정의 등은 인내심을



대희 방문자

통해 온전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것은 종종 깨달음에 이르는 문의 손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 손잡이를 굳게 잡고 신앙으로 신중히 돌려야 합니다. 영혼을 씨레질하는 것은 흙을 뒤엎어 씨레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그런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애굽의 온갖 보화와 특권을 버리고 이전에 살던 왕궁에 끌려와 예언자로서 능욕받기를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어 냈습니다. (히브리서 11:24~29 참조)

조지 맥도날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는 쉬우나 만족시켜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가 첫발자국을 떼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어지는 그 길이 얼마나 끈고 좁으며 기나긴 길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견디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에서의 시험 기간을 주시면서 영광스러운 것도 함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앙으로 참고 견디는 자는... 이 모든 영광을 누리리라.” (교성 101:35)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영생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모든 거룩한 의식과 관련하여 맺는 모든 특별한 약속을 온전히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7, 17:14)

현대의 경전은 이 특별한 사람들이 결국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임을 확실히 줍니다. (교성 84:38)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무한한 축복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인내심을 갖추면 가난한 데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풍요롭지 않아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의한 데서도 온유할 수 있으며 온유한 데서는 “쓴 뿌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15)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만일 우리가 읊처럼 지혜롭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욥기 1:22 참조)

모든 덕성에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큰 모범이 되는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명을 받을 때 “육신을 가지고 [서로를] 구해 내는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규모는 작지만 삶의 경험을 완전히 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30)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하도록 주신 일들을 마친 후 “[우리는] 준비를 끝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성 19:19; 요한복음 17:4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역경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 이유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27 참조)

미약하지만 충분한 방법으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으며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서로 작용하여 특별한 고통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제기되는 가장 엄중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자는 모든 자보다 낮게 몸을 낮추었나니 너는 저보다 크뇨?” (교성 122:8) 예수님은 만물을 이해하시기 위해 모든 깊이와 높이를 측량하셨습니다. (교성 88:6 참조)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히 속죄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완전히 꿰뚫어 보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속죄를 위한 고통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몇 마디 말씀을 보면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 서려고”까지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심 많은 그리스도께서는 그 쓴 잔을 “마셨고”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교성 19:19 참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모두 필수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2) 속죄의 고통을 묘사하신 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유하셨습니다. “내 영의 부드러운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 (교성 19:23)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평안을 누리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7 참조)

우리는 “이를 잘 견디어”낸 사람들에게서 내적인 깨달음을 얻은 조용하고도 평화스런 모습을 보며 그들이 바울처럼 “신앙을 지켜”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신앙에 대해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스런 초등협회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견디고 참는 것에 관해 훌륭히 모범을 보여 주신 데 대해 저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님의 도서관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한복음 5:39)



우리는 종종 침례자 수, 선교사 수, 와드와 스테이크의 수 및 회당이나 성전 수처럼 눈으로 보아서 헤아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발전을 측정하곤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몸을 상징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헤아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교회의 영성을 더욱 잘 상징하는 또 다른 척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전의 새로운 발행

1980년대 초에 헌신적인 자원 봉사자들의 10여년간의 노고로 말일성도판 홈정역 성서가 출판되었습니다. 곧 이어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값진 진주의 새로운 판이 나왔습니다. 초기의 필사 원고들은 많은 출판상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물몬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이라는 부제가 붙여졌습니다. 또 두

가지 계시가 교리와 성약에 더해졌으며 그것은 계속 더해질 것입니다.

홈정역 성경은 그 내용 자체가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책에는 모든 표준 경전간의 전후 참조와 서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수만개의 각주가 더해졌습니다.

또한 주제별 분류와 용어 색인, 그리고 성경 사전과 지도들이 함께 장정되었습니다. 모든 장에 새로이 표제도 달았습니다.

주제 분류난의 '예수 그리스도' 항목은 모든 참조 성구를 찾기 위해 작은 글씨로 18페이지나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과 가르침에 관한 경전의 내용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400페이지 이상의 색인표가 교회사 지도와 함께 합본 성경에 붙여졌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경전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100여년 만에 최초로 실제적인 관심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새로운 판이 출판될 무렵에 신권에 관한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백한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모두 1,268페이지의 주해가 표준 경전에 더해졌습니다. 86권의 기록, 138편과 두개의 선언문, 2,540페이지, 그리고 42,000개 이상의 귀절로 구성된 이 경전들이 바로 주님의 도서관입니다.

현재 농아들을 위한 표준 경전의 영어 수화 번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맹인들을 위한 물몬경의 점자판은 지금 완성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의 점자판도 나와 있으며 값진 진주도 곧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점자판들의 각주도 진행 중입니다.

교회는 점자판 책의 부피를 반으로

줄일 수 있게끔 양쪽 다 인쇄할 수 있는 점자판 출판기를 구입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출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경전의 번역

교회 초기부터 1988년까지 35가지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다른 일곱 가지 언어도 번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에 표준 경전을 51가지 언어로 출판한다는 승인이 났고 예산이 설정되었습니다.

수년 간에 걸칠 자잘한 일들이 놓여 있지만 그 중요한 번역 사업은 꼭 행해져야 합니다.

이 번역들이 다 완성되면 지구의 반을 차지하는 또 다른 이십 이억 오천 사백만의 사람들이 각기 자국어로 된 경전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언어의 번역들도 시작될 것입니다.

표준 색인과 주제별 분류, 각주와 전후 참조 및 주해들도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져 왔습니다. 스페인어 물몬경 합본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으며 다른 언어로 된 물몬경 합본도 착수될 것입니다.

녹음 테이프 경전

표준 경전이 영어로 녹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일할 때나 운전을 할 때에 경전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년 전에 브리감 영 대학교의 교수인 몬테 셀리 형제와 제임스 로센발 형제는 경전을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어떤 단어나 귀절을 치면 곧장 화면에 나타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조심하는게 좋아. 성구 분석상의 문제가 일어날지도 몰라. 다시는 도로 닫을 수 없는 제앙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게 될지도 모르지. 그 일은 하지 말아야 해."라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경전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이 형제들은 그 일을 진행하도록 격려받았습니다. 그 결과 엘디 에스 뷰라는 컴퓨터화된 경전의 소프트웨어가 출현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작법이 쉬우며 주님의 성스러운 도서관을 찾고 비교하며 분석하는 데에 무한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재앙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경전을 분석하게끔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치면 그 단어가 표준 경전에 696번이 언급되었다는 것이 곧장 나타나고 한 번 더 키를 누르면 그 귀절들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더 치면 46번이 언급되었다는 것이 나오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치면 75번이 나오며 다시 키를 누르면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같은 구절에 19번이 인용되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을 찾는 데 3초 반도 걸리지 않습니다.

한 귀절을 택하면 그것이 들어있는 장과 함께 나타납니다. 또한 창세기부터 값진 진주 마지막 절까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수 있으며 키 하나로 사본을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쇄된 경전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자료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스페인어와 독일어 그리고 다른 언어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 과정이 경전에 맞추어짐

이와 같은 시기에 교회의 전 교육 과정이 재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이 경전과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게끔 바뀌어졌습니다. 또 다시 헌신적인 자원 봉사자들이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20년 이상을 일했습니다.

이제 경전이 교재가 되었고 복음은 훌륭한 학습 자료들과 함께 신권회와 보조 조직 모임 및 주일 학교 그리고 성찬식과 일반 모임에서 더욱 잘 가르쳐지게 되었습니다.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

좋은 교수법은 주님의 도서관에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교수법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 자질 향상 과정은 와드 내에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될 그 프로그램이 종종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신학 연구원의 중등부와 대학 과정에서는 아주 훌륭한 참고 자료들이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은 교실에서도 쓸 수 있으며 개인 자습서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국민학교 3학년생이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컴퓨터를 조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우리가 전에 가지지 못했던 자료들을 활용하여 경전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보를 잘 나타내줍니다.

신학 연구원 중등부는 이제 90여개 국에서 총 27,000명이 등록했습니다. 신학 연구원 대학부는 전세계에 1,711개의 대학교와 협조하여 설립되었고 126,000명이 등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신학 연구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구약 과정에서 여러분은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및 성전 엔드우먼트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을 배웁니다. 예언자에 관해서도 배웁니다. 그리고 순종, 회생, 성약,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과 같은 말들도 친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에도 관련이 있는 유대 민족의 종교에 대한 전체적인 기초도 배우게 됩니다.

왜 십일조와 헌물을 내는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구세주의 강림과 복음의 회복에 대한 예언도 읽게 됩니다. 엘리야가 인봉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며 인봉의 열쇠를 가진 엘리야가 보내질 것이라고 말라기가 예언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신학 연구원에서 여러분은 구약을 알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지금 기독교 세계에서 거의 돌아보지 않는 구약이 우리에게 구세주의 성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약

신약 과정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업적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또한 성임과 속죄를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열 두 제자의 부름과 그들의 업적도 읽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관해서도 배웁니다. 성신과 성령 및 개인적인 계시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고 십자가를 꿰어지신 날을 상기에 보고 속죄와 부활의 진실성을 직관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사랑과 율법, 구속주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사 복음서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책에는 주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과정에서 여러분은 대배도를 돌이켜보며 복음의 회복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스러운 숲속의 계시로부터 오늘날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리와 성약 각 편을 역사적 배경과 연관지어 순서대로 읽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책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에 의해 번역되었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와 말라기 예언의 성취로 회복된 인봉 권능의 열쇠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박해와 배도 그리고 순교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부름과 해임에 대해서도 배우고 성전과 죽은자를 위한 의식 및 선교 사업과 성도들을 온전케 함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물문경

다음 과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인 물문경을 자세하게 다룹니다. 물문경은 구약과 신약을 증거하며 잃어버린 구원의 교리를 자세하게 나타내줍니다.

각 페이지마다 공의와 자비, 타락과 속죄, 육신의 사망과 영의 사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더할 나위없는 선함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조용하고 작은 속삭임으로 주어지는 개인적인 계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양들에게 나타나는 것도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물문경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나이서 10:4)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에 의해 가르쳐집니다.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서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활동도 합니다. 그 나이의 남녀 학생들은 서로 찾아다니기도 하는 데 성구 익히기 프로그램은 종종 ‘성구 찾기’라고도 불립니다.

교회의 대학교들

신학 연구원과 교회의 대학에서는 살아 계신 예언자, 선교 사업 준비, 세계의 종교, 신권과 교회 행정 및 기타 과정 및 경전 과정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가르쳐 집니다.

학생 지부와 와드 및 스테이크가 여러분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신학 연구원 대학부에서도 활동 시간을 가지며 구애와 결혼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가집니다. 결혼이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집니다.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 졸업생들의 성전 결혼률은 교회 평균치의 두 배가 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 졸업생들의 성전 결혼률은 교회 평균치의 두배가 넘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훌륭한 보증이 필요합니까?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 그리고 교회 학교의 모든 과정들이 전문적인 교사들에 의해 가르쳐집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존경과 깊은 감사와 완전한 지지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와 교회 지도자들은 신학 연구원의 등록을 장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모님과 신권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학 연구원에 참석하는지 주의 깊게 봐 주십시오.

수 년 전에 저는 킴볼 대관장님과 같이 아리조나주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역 스테이크의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에서 대관장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저의 말을 인용하십시오.”라고 답하셨습니다.

바울은 말세에 위험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록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선한것을 좋아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디모데 후서 3:1~7)

또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디모데후서 3:13)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대회 방문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디모데후서 3:13~16)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계시를 서로 읽어줄 때 그분의 능력에 의해 우리는 “나의 음성을 들었고 나의 말을 알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성 18:35~36)

이것이 우리 발전의 참된 척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셀 수 있는 것보다 몇 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한복음 5:39)

저는 주님께서 이 세대에 우리에게 주신 표준 경전들과 계시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은 신권의 지침서입니다.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지니신 형제님들에게 저는 주님이 살아 계시며 경전은 그분에 대해 증거한다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아론 신권 : 명예로운 귀환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
관리 감독

“아론 신권을 소유하신 여러분, 순종하고 자유 의지를 의롭게 행사하십시오.
합당하게 되어 여러분의 부름을 잘 수행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사 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감독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론 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본질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어떤 활동이 아닙니다. 둘째, 신권은 연령에 따라 자연히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합당성에 따라 신권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론 신권이란 과연 무엇인가 토론해 봅시다.

아론 신권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명예롭게 돌아가기 위해 합당하게 되도록 이 지상 생활에서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인생의 준비 기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며 아마도 이와 흡사한 모임에 앉아,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계획을 설명들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루시퍼가 아버지의 계획에

대항하며 그가 우리 모두를 고향으로 이끌고 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시되는 우리의 자유 의지, 결정을 내릴 자유를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으면, 이 지상 생활의 시련을 받는 목적이 없을 것이므로 그의 계획은 우리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대되는 것도 회개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됨을 따랐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감을 목적으로 한 이 지상 생활에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니다.

지상에 온 우리 모두는 엘마가 준비의 상태로 묘사한 이 현재의 시험을 받을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승리자입니다. (엘마서 12 : 24, 26, 34 : 32, 42 : 10, 13 참조)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영원한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미 공군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편대의 각 부대마다 한 가지 모토가 있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게 했습니다. 우리 비행기 측면에 표현된 우리 부대 모토는 “명예로운 귀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토는 우리가 말은 사명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 후에 명예롭게 기지로 돌아온다는 결심을 줄곧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명예로운 귀환”이라는 이와 같은 모토는 영원한 진보의 계획에 들어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지상 생활을 하러 온 우리는 하늘의 집으로 명예롭게 귀환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명예롭게 귀환합니까?

비행기 조종사들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규칙에 따라야 하듯이, 우리가 영생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 지상 생활—준비 기간—을 해 나가는 동안 이해하고 순종해야 하는 율법과 의식과 성약이 있습니다.

예비적 복음은 우리가 더욱 큰 봉사와 거룩한 성전 의식과 영생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기회를 주는 전체 복음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개조 제4조는 복음의 첫번째 의식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삼,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교사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의로움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정도가 클수록 [신앙의 은사]의 주어짐도 커지게 됩니다.” (물론 교리, 북크래프트사 제2판, 1966년, 264페이지)

다시 말해서,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얻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은 지극히 단순하게 순종의 이러한 주요점을 강조합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끊임없이 지키라.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 (교성 25 : 15)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 : 15)

파일럿 훈련시에 우리는 실제 비행을 모조한 훈련 장비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교관이 전투기로 음속 비행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사태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비상시에 대비하여 우리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절차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든 절차를 수없이 연습하여 실제로 비상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소위 자동 또는 조건 반사라고 하는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재 경보 등이 켜지거나 계기판에 비행기 내부의 기타 기술적인 결함이 표시되는 경우에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제어키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에도 안전한 고도를 미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훈련 과정은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준비 기간인 아론 신권 정원회에서 배우는 공과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이 신권 모임에서 우리가 강하고 헌신적인 신권 소유자가 되기 위해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순종, 희생, 봉사, 순결 및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헌납하는 것과 같은 더 높은 율법과 성약을 받기 위해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합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가기 전에 이러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그것은 우리 각자가 용감한 선교사가 되고, 영원한 동반자를 돌보고, 헌신적인 가정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체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명예로운 귀환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 기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말해 주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전 미 축구 선수였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팀은 신년 결승전에 출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십만 명의 관중과 무수한 텔레비전 시청자 앞에서 그의 팀은 큰 점수차로 졌습니다. 그와 그 팀의 다른 선수들은 그들의 코치가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훈련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르었습니다. 그들은

큰 대회에 출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안 결과를 끝내 벗어 버리지 못했으며, 그 참담한 점수로 마지막을 장식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로 그 축구 팀의 두 사람이 우리 비행 훈련 부대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범적으로 착실하게 훈련받은 훈련생으로, 결승전 시합에서의 실패를 통해 훌륭한 교훈을 받은 모범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는 더 많이 알고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가 교관에게 가서 비상시 대피 훈련 과정을 배우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발적,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훈련받는 시간이 되자, 이 전 미 대표 선수는 교관을 얼싸 안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 시간의 비상 훈련 과정을 마쳤다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훈련은 받지 않고, 수영장이나 사격장 또는 골프장으로 가고는 했습니다. 그 후 훈련 중에 교관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비상시가 닥치면 어찌 하려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낙하산을 타고 뛰어 내릴리가 없습니다. 비상시 같은 것은 닥치지 않을테니까요.” 그는 결국 예비 훈련 과정에서 이수했어야 할 비상시 절차를 배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수개월 후, 야간 훈련 비행 중, 고요한 텍사스 상공에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화재 경보 등이 켜졌습니다. 비행기가 불길에 휩싸여 1,500미터로 떨어졌을 때, 그와 함께 있던 어린 파일럿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빠져 나갑시다.” 착실하게 훈련을 받은 이 젊은이는 원심력의 작용으로 가까스로 비행기에서 빠져 나와 낙하산을 매고 뛰어 내렸습니다. 낙하산은 즉시 퍼졌으며, 그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심하게 부상당했으나 생명은 건졌습니다.

훈련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나의 친구는 비행기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폭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훈련을 받지 않은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화재 경보 등이 켜질 때, 우리의 영원한 발전은 차단될 수 있으며, 우리는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고 등을 무시한다면, 명예로운 귀환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의 화재 경보 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켜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알콜, 담배, 약물 등을 복용하게 되면 경고 등이 켜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복용하기를 택할 때, 우리는 그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는 제한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해로운 것을 조건반사적으로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영의 이끌여 주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되고 명예롭게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아 갈 능력을 손상받게 됩니다.

때로는 좋은 친구를 선택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는 생활해 나가면서 중요한 선택을 할때에 친구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의 행위 때문이라고 또는 그들이 우리에게 압력을 준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친구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는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 줍니다.

참된 친구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참된 우정의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참된 친구란 우리가 그와 함께 함으로써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친구는 우리에게 자신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된 친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명예롭게 다시 돌아가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친구 선택에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을 것이며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떤 친구가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이며 북미 노스웨스트 지역 회장단의 보좌인 요시히코 기쿠메 상로가 대외 방문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

아론 신권 소유자인 우리는 과연 어떤 친구입니까?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지혜의 말씀이나 순결의 법과 같은 복음 원리대로 생활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늘 확신시켜 주는 그러한 친구입니까?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과 주님이 그들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꽃다운 자매가 사랑하고 믿어온 형제에게서, 그녀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거룩한 율법 또는 도덕률을 범해서라도 그것을 증거해 보라는 말을 번번히 들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보다 감독님이나 부모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본능의 경고 등이 켜질 때, 우리 마음속으로 옳은 일을 하도록 결심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인생의 목적에 따라 행동할 것을 오늘 저녁 다짐합니다.

아론 신권 책임을 잘 배우는 것은 훈련 과정에 있던 파일럿 연수생의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는 복음 표준을 지키기 위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라도 계명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므로 적대자도 그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고, 교회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므로 우리는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므로 아론 신권에서 함께 일하는 청남은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또한 예배실에 있는 모든 회원들도 성찬대를 바라보며 신권 소유자들이 합당하게 주님의 의식을 행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주일, 우리는 거룩한 성찬 의식에 참여하면서 제사가 떡과 물을 축복할 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성찬대에서 기도드리는 제사의 음성은 우리 각자가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항상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한 그의 대속의

희생을 기억할 것을 약속합니다.

둘째, 우리는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우리의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셋째,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 순종의 성약을 새롭게 함을 약속합니다. (교성 20 : 77~79 참조)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하나를 받게 됩니다. 즉 주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여 매일같이 성신이 우리 삶에 임하시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식에 오는 이유도 이러한 성약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며, 명예롭게 귀환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협착하고 좁은 길에 머물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니파이서서 31 : 17~21 참조)

저는 순종의 중요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중요한 만큼, 때때로 사람들은 눈가림식으로 선별하여 순종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자신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해가며 자신이 하도록 명령받은 것만을 행합니다.

니파이서서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많은 자들이 말하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는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이 우리에게 좋으리라.”하며

“또한 많은 자들이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은 죄를 조금 지으면 용서하시리니, 거짓말도 조금 하고 사람의 말을 트집잡아 이익을 얻으며, 하나도 해될 일이 없으니 이웃을 빠뜨릴 함성을 파는 등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라. 우리는 내일 죽으리라. 우리에게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매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리라.”(니파이서서 28 : 7~8)

형제 여러분,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로 분명 속임수입니다.

죄란—아무리 작은 죄라도—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엘마서 41 : 10 참조)
절대로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명예롭게 되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나의 계명을 끊임없이 지키라...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 (교성 25 : 15)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큰 희생을 치르며 선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운동, 기술, 장학금 및 취업의 계획도 미루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 자매를 떠나 와야 했으며 그 자매를 먼저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다른 젊은이에게 빼앗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족이 선교 사업이나 그밖의 것을 위해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르게 된다고 해도, 그들이 선교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순종하며, 그들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바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그 큰 축복을 충분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기에 앞서 순종하기를 배운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명예로운 귀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신의 영과 매일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른 신권을 소유하신 여러분, 순종하고 자유 의지를 의롭게 행사하십시오. 합당하게 되어 여러분의 부름을 잘 수행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저는 아버지로서, 선교사로 떠나는 아들들을 껴안아 주며 그들의 귀에 대고 “명예롭게 귀환하라.”고 속삭여 줍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면전을 떠나는 우리 각자를 껴안아 주시며 “명예롭게 귀환하라.”고 속삭여 주시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우리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명예롭게 귀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토바이 타기

케네스 존슨 장로
철심인 정원회

“저는 그날 다시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 생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임무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청남 시절의 동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 여섯 살 때부터 몇 년 동안 인쇄소 견습생으로 있던 때였습니다. 한 동료 견습생이 오토바이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들은 영국제 오토바이를 탔었는데 그는 매우 강력한 엔진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쾌청한 여름 날 그 동료가 나에게 “내 오토바이 타러 오지 않겠니?”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호복을 입지 않았으므로 저는 아주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그의 오토바이 뒤에 탔습니다. 우리는 노르위치 거리를 이리 저리 빠져 나와 곧게 뻗은 길에 닿았습니다. 그는 몸을 뒤로 젖히고 나에게 “한 시간에 일 백 마일로 달려본

적 있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번 해 볼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속력을 내기 시작했고 오토바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렸습니다. 시속 구십 팔 마일을 지나 백 마일로 달리자 제 얼굴의 피부가 팽팽하게 경직되며 옷이 날아갈 듯이 휘날렸습니다. 저는 그날 다시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결심했습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권유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모든 부탁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하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저는 1959년에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알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무도회에서 저는 이 복음 안에서 자란 한 젊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성전에서가 아니라면 당신과 결혼하는 것을 결코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응해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지금 그 젊은 여인은 저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에게 그 제안을 해준 것에 언제까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제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훌륭한 아들을 두는 축복을 첫 아들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받을 축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주님의 성약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성전을 방문했으며, 아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7월이면 아들이 그가 선택한 반려자와 성전에서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날이 무척 기다려집니다. 아들이 살아온 삶의 방법이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하였습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선교사 부름보다 더 성스러운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이 부름에 우선하며, 이 부름이 끝나도 계속되는 성약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약들은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성스러운 것들을 인봉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영국 세도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위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청남 청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오라는 권유에 응한다면 그들은 이 사업을 행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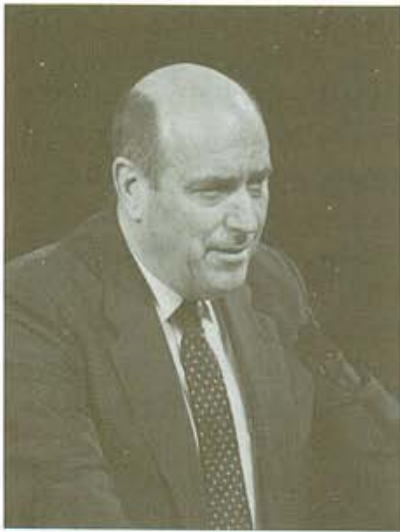
물몬경 시대의 야곱과 같이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을 때 백성들이 짓는 죄를 대신 떠 맡지 않도록 주 앞에 우리의 사명(야곱서 1:19 참조) 다하도록 권고드립니다.

일생을 통해 그토록 많은 선한 사람들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는 권유를 해 주었으며, 제가 그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저는 예수님을 살아 계시며,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모든것을 신성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가장 큰 기쁨

클린튼 엘 커틀러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제 마음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이신
구세주에게로 올 것을 바라시며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사 랑하는 형제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추억의 길을 거닐었습니다. 사십 칠년 전 집사였던 저는 정원회 회원들과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드베일로부터 버스를 타고 와서 이 신성한 건물안에 앉았던 추억에 잠겼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이었던 그 당시 우리는 모임 십분 전에 도착하였지만 그 때까지 아직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총관리 역원 형제님들이 연단 뒷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관중석 복도로 걸어 연단 위로 올라 가실 때 제가 받았던 느낌들이 떠오릅니다. 어느 일요일에 우리가 밖에 서 있었을 때 템플 스퀘어 동편으로 나 있는 작은 문을 통해서 몸집이 크고 키가 훗칠하신 형제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시던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이었습니다. 스미스 회장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도께서

시골에서 온 네 명의 집사에게 오셔서 이야기 하셨던 그 때의 느낌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추억이 담긴 길을 거닐면서 제 인생에 일어났었던 그리고 제가 간증했던 많은 기적들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이신 구세주에게로 올 것을 바라시며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시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여든 한 살의 고령으로 아직도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가족의 모범이신 어머니, 교사님들, 고문들 및 당시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은 모든 선택된 영혼들을 생각해 봅니다.

엘마 일세가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게 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나 그 밖에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다른 어느 때 보다 지금 더욱 명백하게 깨닫습니다. (엘마서 31 : 5 참조) 저는 이것을 지난 삼 년 동안 커틀러 자매와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특별한 아들들과 딸들과 함께 봉사하는 특권을 가졌던 그 기간 동안 그 선택된 선교사들의 생활에서 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지고 그 말씀을 들은 자녀들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님에게로 나아올 때마다 저는 거듭 되풀이 되는 그 기적들을 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우리가 이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순수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즉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게 될 때, 그밖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높은 곳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의 위대한 꾸러미 속에 싸여지게 됩니다.

저는 바로 지난 주에, 최근에 개종한 세 명의 개종자들이 얼마 안되는 동안 얻은 지식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던 간증을 전함으로써 말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시며, 몸몬경에는 그들을 안전하게 고향으로 데려다 줄 청사진이 들어 있다고 간증했으며, 요셉 스미스는 이 시대의 예언자이고 오늘날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주님의 대변자이시라고 간증했습니다. 제가 받은 생명과 축복들로 인해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의 간증을 그분들의 간증으로 대신합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누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맬콤 셋 켈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친구를 현명하게 택하십시오. 그들은 영적인 힘의 토대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일 년 전 제가 칠십인으로 부름받았을 때, 어떤 비회원 환자가 제게 재미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칠십인이 감독보다 더 높은지 낮은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자기는 단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물론 교회에서는 감독 이하의 모든 부름은 일만하는 것이고, 감독 이상의 모든 사람은 말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오늘 저녁에 아론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술뿐 경우도 있었으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은 애완 동물을 가져본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는 가족이 함께 휴가 여행을 떠났다가 퍼짓 사운드 해안가에서 잡은 조그맣고, 사람을 잘 따르고, 길이가 짧은 물범인 짐 이상한

애완 동물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스니키 스네이크라는 이름을 줄여 스니키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가족이 모텔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 동안, 스니키가 종이 상자에서 조금 나와 보았나 봅니다. 그때 객실 종업원이 우리가 없는 사이에 방을 정리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린 것을 본 스니키가 그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여 종업원이 혼비백산하여 문을 쾅 닫았으며, 스니키가 그 문에 끼어 말 그대로 으스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스니키는 종말을 맞이했고, 여 종업원은 신경 과민이 되기 시작했으며 우리 아이들은 울고 불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 종업원은 스니키를 친구가 아닌 그보다 나쁜 것으로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헤일즈 감독님으로부터 참된 친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에 관해 한 두 가지 생각을 덧붙여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가 과연 진정한 친구인가에 관해 혼동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제 병원 진찰실에서 여러분 아론 신권 소유자와 대략 같은 나이 또래인 젊은이를 진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질병으로 보이는 것에 나는 좀 이상했습니다.

여러 번 시험하고 엑스레이 검사 후, 진단 결과에 제 자신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어린 나이에 알콜 중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소위 친구들의 권유로 아주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노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어기도록 권유하는 친구들이 진실로 참된 친구들인가 하는 궁금중에 휩싸였습니다.

“딱 한번만” “모두 다 하는데” 또는 “누가 알게 뭐람”과 같은 말은 너무나도 흔히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친구라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겠습니까?

실상, 인생을 살아가자면 과연 누가 진정한 친구인가를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진찰한 그 어린 환자의 친구들은 과연 그가 애써 사귀었어야 할 친구들이었을까요? 객실 종업원은 스니키를 친구가 아니라 독을 품은 적으로 생각했으나,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친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입에 대기 시작하는 젊은 사람의 대다수는 친구들의 권유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의학계의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술을 의미하는 독한 음료나 담배는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어린 친구들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십 년 동안 지혜의 말씀에 들어있는 말씀이 진실됨을 직접 목격해온 의사로서, 저는 그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잡지 광고에 나오는 멋있는 장면은 흡연의 결과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잡지 및 신문 광고는 상당히 기만적인 것입니다. 끝에 나타나는 결과는 그다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끝에 나타나는 결과는 대체로 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흔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정맥 주사를 맞고 오랜 시간을 고통과 비참함을 겪으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보내기 마련입니다.

미국에서만도 매일 약 5,000명이

담배를 끊고 있는 반면, 매일 1,000명 또는 90초에 1명은 흡연으로 인해 사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매일 6,000명이 담배를 끊거나 아니면 생명을 끊는다는 뜻입니다. 담배 회사에서 죽음의 계품을 순진한 고객들에게 계속 팔기 위해 수십 억 달러를 쓰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병원 대기실에 있는 잡지의 모든 담배 광고에 나의 의견을 적어 붙여 놓았습니다.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잡지에 들어있는 많은 광고는 사람의 마음을 속이며, 현혹시키며,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은 사람을 멋있고, 남자답게 또는 운동 선수같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병들고, 초라하게 하며 끝내는 죽게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듯이 사실상 흡연은 차츰 인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로 솔트레이크 벨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면,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매년 담배로 인한 인명 피해의 숫자입니다. 미국에서 여섯 사람 중 한 사람은 흡연의 결과로 죽습니다.

대체로 마약 사용자는 먼저 알콜이나 담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연적인데, 두 가지가 다 상당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인한 실제의 해독은 우리의 육신보다는 영적인 생활에 더 심각하게 미칩니다. 자, 이러함에도 그러한 것을 사용하도록 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들은 정말 귀한 친구들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친구를 위하여서는 목숨이라도 내어 놓을 정도로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친구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 그런 다음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대관장단, 왼쪽부터 고든 비 힐러리 부대관장, 제1보좌,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제2보좌

“너희가 나의 명하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14~15절)

우정은 여러분의 삶에서 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기를 쉽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청남 중에서 많은 분들은 언젠가는 여러분이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여러분의 부모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혜의 말씀을 범하거나 도덕적인 범법을 자행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를지야.” 소위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게다가 뭐가 달라지겠어?”

사랑하는 어린 친구 여러분, 그릇된 길에 들어서 있는 친구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들을 저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보살피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말해 주고, 용기를 주고, 간증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모범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조건으로 여러분에게 그들의 길과 주님의 길 사이에서 선택하기를 요구하는 친구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지 않게 해 드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주님의 길을 택하고 새로운 친구를 찾아 보십시오.

특히 우리가 외로움이나 절망감을 느끼는 절박한 때에 우리 친구들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편이 될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그는 주님에게서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친구는 네 편이 되어 따뜻한 마음과 우정어린 손으로 또 다시 환성을 울리며 너를 맞이하리라.

“너는 아직 읍과 같지는 아니하니, 네 친구는 읍에게 한 것같이 너와 다투거나 네게 죄를 지우지도

아니하느니라.”(교성 121:9~10)

친구들이 그의 편이 되어 주리라는

것을 아는 것은 시련 중에 있던 요셉 스미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여러분이 갖게 될 가장 믿음직하고 애정 깊은 친구로 여러분의 부모와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자녀를 갖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의 굴레를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누가 진정한 친구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해 부모님이 들려 주시던 충고가 과연 믿을만하고 값진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로 삼으십시오. 주님의 친구가 되면 반드시 더 멀리 바라보게 되고, 위안과 인도하심과 평화가 오게 되며, 더 나아가서 다른 진정한 친구와도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성령으로부터 주님의 사랑과 연민의 정과 자비하심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은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춰진 보화까지 찾으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교성 89 : 19)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됨으로써 여러분은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에 대항하여 여러분을 지켜 줄 큰 힘과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친구를 현명하게 택하십시오. 그들은 영적인 힘의 토대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누구보다도 구세주의 친구가 되십시오. 어린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고귀한 신권을 명예롭게 소유한 분들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며 여러분은 그의 참된 친구가 되리라는 것을 주님께 알려드리도록 하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형제를 지키는 자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봉사가 아주 극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으며, 추운 자에게 옷을 입히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고, 비탄에 빠진 이에게 위안을 주며, 고귀한 영들을 높이 들어 올려 줄 수 있습니다."



성 경은 저에게 항상 영감을 줍니다. 이 성스러운 책은 인간의 마음에 영성을 불어넣어 주며 읽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동기를 주어 왔습니다. 그것은 가장 많이 인쇄되었으며 가장 많이 번역되었고 인간의 심금을 가장 많이 울린 책입니다. 저는 특히 세상의 창조를 다룬 창세기를 좋아합니다. 다음과 같이 선포할 수 있는 권능에 대하여 숙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창세기 1 : 27, 28)

아벨이 친형인 카인의 손에 죽는 비극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쁨은 슬픔으로 변합니다. 여러 장에 이르는 권고, 삶의 교훈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인도가 한 짧은 귀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창세기 4 : 9)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경전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지고 대답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삶에서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것이 다른 형제들의 노여움과 질투심을 불러 일으킨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한 후, 사는데 필수적인 음식과 물도 없이 구덩이에 그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마침 대상들이 지나가자,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죽이느니 차라리 그 대상들에게 팔아버리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은 이십 개 때문에 요셉은 구덩이에서 구출되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 그는 애굽땅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창세기 39 : 2)

칠 년의 흉년뒤에 칠 년의 기근이 뒤따릅니다. 이 기근 중에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땅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되고 그 곳에서 바로의 총애를 받는 그들의 친 형제인 요셉에 의해 축복받습니다. 요셉은 전에 그 형제들로부터 받았던 무지비하고 잔인한 대우를 생각하고 그들을 거칠게 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제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왔으며 다음과 같은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창세기 45 : 5, 7~8, 15) 그들은 동생을 찾았습니다. 요셉은 진실로 그 형제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선명하게 교훈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19 : 19)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적절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물론경에 기록된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모사이야서 2 : 17)이라는 베냐민 왕의 훈계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볼 때 전체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에 대관장단과 십이사도들은 템플 스퀘어 서편의 박물관에서 새로이 전시된 교회사 전시물들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계곡내에 처음 설립된 와드 중의 하나인 4와드의 모조품은 아주 멋있었습니다. 나무에서부터 시작되는 개척자의 순례길이 표시된 단순한 지도도 매우 흥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손수레가 명예롭게 전시된 것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은 진실로 감동되었습니다. 그 손수레는 침묵하고 있었으나 나에게 그 길고 기억에 남는 여행에 관해 웅변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잠시 에드워드 마틴 대장과 그가 이끄는 손수레 대열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록 우리는 그들이 느꼈던 굶주림의 고통이나 연약한 몸을 파고드는 살을 에는 추위를 겪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참아낸 고통과 그들이 보여준 용기 그리고 그들의 충만한 신앙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극적인 대답을 눈물을



서로 의논하고 있는 관리 감독단 :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중앙),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감독(왼쪽), 제2보좌인 글렌 엘 페이스 감독

머금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손수레가 11월 3일에 이동을 해서 강에 도착하였을 때 그 강에는 떠다니는 얼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굉장한 용기와 불굴의 정신을 필요로 했으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헤낼 수 없는듯이 보였습니다. 자매님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쳤고 형제님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밀고 나갔으나 어떤 사람들은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구조대에 속한 세 명의 열 여덟 살된 소년들이 그들을 구조하려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는 가운데 그들은 그 불행한 손수레 부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을 살 얼음이 찬 강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영웅적인 이야기를 듣고나서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어린아이처럼 영영 울고서 공공연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행동만으로도 알렌 헌팅톤과 조지 그랜트 그리고 데이비드 킴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해의 왕국, 곧 끝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르로이 헤이픈과 앤 헤이픈, 시온의 손수레들, 그랜데일, 캘리포니아 : 아더 클라크사, 1960년, 132~133페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봉사가 아주 극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으며, 추운

자에게 옷을 입히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고, 비탄에 빠진 이에게 위안을 주며, 고귀한 영들을 높이 들어 올려 줄 수 있습니다.

가로 정비반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쥘니스 버트는 한 감동적이고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날 아침에 그가 속한 가로 정비반 반원들이 길가의 도랑에서 큰 얼음 덩어리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직원들은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했던 임시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임시 직원이 얇은 스웨터 하나만을 입고 추위에 떨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턱수염을 멋있게 기른 훌쭉한 남자가 그 직원 옆을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오늘같이 추운 아침에는 더 많이 입어야 해요. 코트는 어디에 있소?” 그 직원은 입을 코트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서 그 직원에게 건네주며 “이 코트는 이제 당신의 것이요. 두꺼운 모직이라 따뜻할 거요. 나는 바로 이 길 건너편에서 일하고 있소”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은 사우스 템플이었습니다. 교회 본부 건물로 코트도 없이 매일 일하러 오가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조지 알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이었습니다. 사심이 없고 너그러운 그분의 행동은 온유한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형제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1989년 12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름다운 라스베가스 성전이 3일 동안 계속된 영적인 모임 가운데서 헌납되었습니다. 헌납식에서 주어진 말씀과 음악은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늘로 높이 주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과 나사렛 예수께서 가르친 의로운 삶의 모범을 따르려는 마음을 고무시켜 주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생각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 변하였습니다. 한 말씀 중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온 주님의 가르침이 강조되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19~21)

이 경전이 인용된 모임이 끝난 후 손으로 써서 조심스럽게 봉인된 봉투에 싸인 편지가 접수인을 통해 나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감동적인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몬슨 부대관장님,

“저의 남편과 저는 아름다운 라스베가스 성전의 완공과 헌납이 이 성스러운 시기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은 세상에 대한 아주 감미로운 선물입니다. 부대관장님으로부터 주님의 집에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의로운 성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성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저희들의 가슴은 몽클했습니다.

“몬슨 부대관장님, 틀림없이 어디엔가 성전에 꼭 참석하고 싶은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남편과 저는 이 특별한 성탄절기에 상점에서 어떤 선물을 사더라도 성전 헌납식에서 받은 축복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인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와 새로 지지받은 침심인 정원회의 회원인 리그랜드 알 커티스 장로

위하여 상점에서 돈을 쓰는 대신 저희는 선물 살 돈 500불을 영원을 통한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기 원하는 가족을 돕는 데 쓰고 싶습니다. 저희의 선물을 올해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편지에는 서명도 없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익명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마 이 형제님은 오늘 이 신권회 모임을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는 그 기부금이 포르투갈의 포르토 선교부 빌라 리얼 지방부의 합당한 가족이 값진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한 여행비로 사용되어졌다는 소식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귀중한 선물을 주신 알려지지 않은 분에게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성탄절이 기쁨과 평화로움으로 넘쳤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언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여리고로 가는 길은 이렇듯 없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여행자는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종종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선한 일을 하고자하는 운운한 마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 본부에서 받은 편지에는 참된 감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발송 주소도 없었으며 오래전주 포틀랜드 우체국의 소인만 찍혀 있었습니다.

“대관장단께

“수년간 방황할 당시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성도들의 사랑에 찬 호의를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로 가는 버스 대륙 횡단 여행에서 저는 필요한 약을 먹지못해 수면 부족이 되었고 그로 인해 쌓인 고통과 경련때문에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보스톤에서의 나쁜 상황에서 급히 빠져나오느라고 저는 소지품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템플 스케이 호텔의 식당에서 나는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마시기 싫은 커피를 응시하면서 풀죽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서 어떤 부부가 제 테이블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부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약간은 떨리는 채로 그때 처한 곤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은 저의 일관성없고 산만한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인내심있게 들어주었으며 저를 위하여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식당 지배인과 이야기를 했으며 그 다음에 저에게 2일 동안 그곳에서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옆의 호텔 접수처로 데려가서 제가 5일 동안 묵을 방도 예약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서 제가 필요로 하는, 저를 온전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생명선과 같은 약을 사주었습니다.

“제가 건강을 회복하고 힘을 쌓는 동안 매일 있는 태버나클 올겐 연주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올겐이 내는 가냘프다가 우리와 같아졌다하는 천국에서 나는 듯한 소리는 제가 아는 것 중에서 가장 장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영이 연약할 때 언제든지 달래주고 강하게해 줄 수 있는 태버나클 올겐 연주와 합창단의 판과 테이프를 몇 개 샀습니다.

“여행을 다시 시작하려는 전 날, 즉 호텔에 머문 마지막 날 방의 열쇠를 돌려줄 때 그 부부로부터 온 다음과 같은 쪽지를 전해 받았습니다. ‘당신의 여정에서 다른 곤란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시면 우리에게 빛진 것을 갚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의 인생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더욱 주의 깊게 보리라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시길 빕니다. 저는 경전에서 말하는 대로 지금이 정말 ‘말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두분 회원들은 제가 진실로 도움이 필요할때 도와준 성도들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이 일을 아신다면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수께서 열 명의 문둥 병자를 치료해 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 엎드려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누가복음 17 : 15~16, 19)

다른 사람을 도와고자 하는 열망,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단번에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그 진보는 아주 느리고 어쩌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 질 와너의 경험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가 막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을때 와드의 회원 “더글라스”가 범법을 하고 회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슬퍼했고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글라스 형제는 곧 다른 주로 떠났습니다. 지금은 고등 평의원인 와너 감독은 몇 년이 지나서도 계속 더글라스 형제의 변화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1975년 나는 팔리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해서 일요일 아침 일찍 신권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선도 조치에 관해 설명하고 잃어버린 어떤 회원이라도 성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와너 형제는 그때 더글라스 형제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누가 더글라스 형제를 도와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할 책임이 있을까요?” 와너 형제는 나중에 저에게 그 질문에 제가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대답해 주었다고 야기했습니다. 저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형제님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님은 그의 감독이었고 그는 형제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와너 형제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 전주에 더글라스 형제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끔 금식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와너 형제가 더글라스 형제를 적극적으로 돕기를 결심하고 더글라스 형제의 어머니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너 형제는 그를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글라스 형제와 만났고 지난 날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상기시켰습니다. 간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전하자 자신감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발전 상태는 괴로울 정도로 느렸습니다. 종종 좌절감에도 휩싸였지만 더글라스 형제는 한 발짝씩 진보해 갔습니다. 마침내 기도는 응답되었고 노력의 대가를 받았으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더글라스 형제에게 침례가 허용되었습니다.

침례 날짜가 정해졌으며 그 때에 전 감독 질 와너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시애틀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와너 감독이 하얀 옷을 입고 허리까지 잠기는 물 속에서 더글라스 형제와 함께 서 있는 그 지극한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오른 팔을 직각으로 높이 들고 이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를 침례하노라.”(교성 20 : 73) 더글라스 형제는 잃었다 찾은 양이었습니다. 사랑과 노력으로 26년에 이르는 기나긴 선교 사업은 성공했던 것입니다. 와너 형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날 중의 하나였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온 생애동안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 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라고(교성 18 : 15) 선포하실때 약속하신 그 기쁨을 맛보는 듯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전 아담의 아들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오늘날 와너 형제에게도 물어보셨습니다. “네 형제 더글라스가 어디 있느냐?” 와너 감독은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주여, 아버지의 아들 더글라스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지킴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얻게 되는 특권이지 교회 회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힝 제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는 많은 훌륭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소년이나 성인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권고와 영감을 많이 받았습시다.

지난 수 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신권회에서 아론 신권 소유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왔습시다. 오늘 저녁에 저는 청소년들에게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성인들에게 말씀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두 장의 신용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카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첫번째 것은 은행 신용 카드입니다. 그것은 신용으로 거래할 수 있음을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구입 물품의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합니다. 이것은 가치가 있으며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분실하거나 부정직하게 사용한다면 큰 손실을 가져오거나 굉장한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받아들이면 저는

계약을 맺고 의무와 협약을 지게 됩니다. 카드를 받아들이면 저는 발급된 조건에 따르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년간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제공하는 특혜를 누리려한다면 매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제 것이 아닙니다. 은행이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은행은 신용 관계를 끊고 카드를 회수할 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카드는 성전 추천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가장 훌륭한 은사들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신용 카드입니다. 은행 카드가 세상적인 것들과 연관이 있다면 성전 추천서는 하나님의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자격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합당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번 인정받았다고 영원히 유효한 것이 아니며 매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소유자가 그러한 특권을 누리기에 합당치 않은 어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성전 추천서를 위한 자격은 재정적인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개인의 행동과 선한 행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돈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은행 신용 카드는 재정적인 신용을 갖게 해줍니다. 성전 추천서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신성한 일을 하는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준비를 채 갖추기도 전에 성전 추천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부당하게 사람들을 성전으로 몰고 있다고 느낍니다. 개종자와 최근에 활동화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복음의 광대한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정기간 동안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는 방법대로 생활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게 될 의무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래 전, 대관장단은 개종자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침례받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1년 동안 개인적인 합당성을 나타내 보일 자체력을 행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해력도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1833년에 주님은 예언자 요셉에게 다음 사항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 시온의 구원을 위하여 집 한 채를 지어 내게 바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니, ...

“나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집을 지어 내게 바치며 더럽히지 않게 부정한 것을 일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리라.

“참으로 내가 그곳에 임하리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것임이라. 그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두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나 더럽힘을 받으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따라서 나의 영광도 그곳에 있지 아니하리니, 나는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교성 97 : 10~17)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집에 관한 주님의 설명이며, 정의이며 강조의 말씀인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성전의 정면에는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주님의 집이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 신성하게 보존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의무는 일차적으로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의 어깨 위에 놓여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 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관한 합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 각자도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합당성에 대해서고 둘째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도록 권장하고 도울 사람들의 합당성에 대해서입니다. 초기에 교회 대관장단은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대관장이 각 추천서에 일일이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그것은 비실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1891년 11월 10일에 와드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에게 보내드렸던 회람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의식에 참여하려고 성전에 가려는 회원들을 위해서 추천서를 우드럽 대관장에게 보내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의 서명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와드 감독들과 스테이크 부장들은 보다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은 사람이 성전에서 의식을 받도록 추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윌포드 우드럽, 조지 큐 캐넌, 조셉 에프 스미스”(제임스 클라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6권,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5-1975, 3 : 229)

그 당시에는 세인트 조지와 멘타이 성전 그리고 로간 성전 세 곳이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은 그때까지 헌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43곳의 성전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891년에 교회의 대관장이 모든 성전 추천서에 서명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다면 오늘날은 어떻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숫자나 상황이



좌부터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제2보좌 고든 비 윙클러 부대관장, 제1보좌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어떠하든지 간에 성전 추천서를 발급하고 서명하는 일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기에 작고 단순한 이 서류는 소유자가 어떤 엄격하게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었으며 주님의 집에 들어가 지상의 어느곳에서든 집행되는 가장 거룩한 의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이 생의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집에서만 죽음의 장막 너머까지 연결되는 권능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신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원한 결과를 갖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불멸의 것들과 영원한 것 그리고 인간과 그 영의 부모 및 구속주와의 관계에 관한 것들을 다룹니다. 이 거룩한 곳에 있을 때는 손이 깨끗해야 하며 마음이 정결해야 하며 영원한 것과 관련된 생각만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인간의 영원한 여정의 위대한 계획을 배웁니다. 여기에는 거룩하고 영원한 성약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얻게 되는 특권이지 결코 교회 회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특권을 얻습니까?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성전 추천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합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선 절대로 징직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난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감독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문제들을 경솔하게 들추어 내려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독은 그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가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 중 몇 가지는 본질상 구체적입니다. 십일조의 법과 지혜의 말씀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완전한 십일조를 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십일조를 내는 것은 주님의 계명에 대한 아주 충실한 응답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뜻에 대한 순종의 표시입니다. 더 나아가 오랜 관습을 통해 불 때 십일조를 충실하고 정직하게

바치는 것은 다른 문제에서도 충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할까요? 총관리 역원인 형제들은 분명히 그래야 한다고 오랫동안 느껴왔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영의 장막, 즉 성전인 육체를 돌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장막, 곧 성전이니 어떠한 성전이든지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파멸시키느니라.”(교성 93 : 35)

어떤 감독이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찾아온 한 자매에 대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켰는지 묻자 그녀는 때때로 커피를 한 잔씩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감독님, 설마 그것 때문에 저를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진 않으시겠죠?”라고 물었습니다.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집과 자매님 사이에 커피가 있는 한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십일조와 지혜의 말씀은 솔직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소 좀 미묘하지만 좀더 중요한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정직, 기본적인 고결함과 교회의 가르침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 지도자 및 총관리 역원들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관리하도록 부르신 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그의 교회들 관리하도록 부르셨다는 것과 예언자가 다른 사람들을 불러 그와 함께 공정하게 일하도록 하셨다는 것과 그들이 믿고 가르치는 것은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함께 숙고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따름으로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아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단위의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에 대한 충실함이 없다면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충실하게 봉사하는

데에 주저함과 의심을 갖게 되며 항상 신앙을 파괴할 분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대관장이나 대관장단 또는 총관리 역원이나 스테이크 부장단, 감독단, 장로 정원회 회장단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거나 그러한 특권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게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개조 제5조)

지도자에게 충실한 것은 주님의 군대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입니다.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할 것입니다. 단합은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교성 38 : 27)

권능있는 자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과 모순되는 일입니다.

헌법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한 것 또한 요구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2조)

때때로 우리는 공개적으로 납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러한 활동 때문에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이 그들에게 성전 추천서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편지를 받습니다. 교회사를 통해 볼 때 교회와 교회 회원들이 국가의 법률에 대항하여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법정에서 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우리에게 반대되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비록 그것을 감수하기 어려웠을지라도 받아들이고 따랐습니다. 법률이 합법적으로 선언되었으면 법률에 순종하는 것은 말일성도의 의무인 것이며 그것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아버지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특권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가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전에는 자녀에 관한 아버지의 책임에 대해 분명하게 천명되어 있습니다. 이혼하고서 대체로 그렇듯 어려움이 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돌보아야 할 법적인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애씁니다. 그것은 법적인 재판에 의해 강제로 부여된 것을 어기게 되며 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동이 됩니다.

정직하게 받은 것이라면 여러분이 지닌 성전 추천서는 여러분의 도덕적인 합당성의 증거입니다. 방탕하여 아내에게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좀 불확실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호소하는 여인들로부터 받은 편지철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받은 책임을 지닌 남편들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남편이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거나 공개적으로 학대받은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은 흥분하여 아내와 자녀들에게 소리치르고 욕하는 남편들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추하고 심지어는 잔인하고 저속하기도 한 관계를 요구하는 남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합니다. 자신들을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남편들과 자녀들에 대해 인내와 자제라는 의미조차 모르는 듯한 아버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합니다.

형제 여러분, 감독이 성전 추천서 접견을 할때 이런 미묘하고 민감한 개인적인 것들은 이야기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불경하고 불결하거나 주님 앞에서 어떠한 종류의 악을 행하는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성전 추천서는 얼마나 특별하고 훌륭한 것입니까! 그것은 단지 이름과 서명이 들어간 종이 조각이지만 사실 그것은 소유자가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며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구하여마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신앙개조 제13조)

다른 모든 자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천서를 소유한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것이 그분들의 신성한 사업임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구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될 몇몇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유감스럽습니다. 감독들이 개인적인 행동이 조금 의문시되는 와드의 어떤 회원에게 추천서 발급을 거절하기가 어려우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한 거절이 당사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로 합당하지 않고서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죄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성전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결코 성전 밖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의무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신성한 문제는 신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엄격하고도 중요한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전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성전 내의 문제를 밖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57년 전에 처음으로 성전에 갔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내 친구 한 사람도 같이 갔습니다. 그후 그는 성전 언어의 몇 구절을 경솔하게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성스러운 신뢰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대회 방문자들이 도착하기 전 거의 텅 비어 있는 템플 스케이

수년 동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충실했던 그는 모든 교회 활동으로부터 표류하더니 마침내 선조들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큰 이유는 사소하지 않은 것을 사소하게 다뤘던 작은 불경스러움으로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형제 여러분, 성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성전 밖에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성전 내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성전장이나 보좌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집 문을 나서면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스러운 신뢰에 충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오는 것은 거룩한 것임을 기억하라. 또 신중히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해야 함을 잊지말라.”(교성 63 : 64) 그리고 다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교성 6 : 12)

결론적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지닌 이 추천서가 귀중하고 훌륭한 것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유일하고도 놀라운 특권을 갖게 해주는데, 그것은 “주님께 거룩함-주님의 집”이라고 벽에 쓰여진 그 집에 들어가는 특권입니다. 그 집에서 봉사하는 데 합당하도록 생활하십시오.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주님의 집을 어떤 불결하거나 더러운 영향력이나 사람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여러분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그 아름다움을 누리십시오. 그곳에서 배풀어지는 놀라운 것들과 아름다움과 그곳에서 집행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성전에 가보지 않은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죽은 자를 위해 성전에서 침례받는 기회를 이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그 거룩한 경험이 여러분의 생활의 닻이 되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항상 모든 경우에 그렇게 행동하게 하여 적당한 때가 되면 주님과 특별하고도 엄격한 신뢰 관계를 맺어 그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는 추천서를 받아서 모든 축복과 특권을 그곳에서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보좌

“어린이가 참으로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린이와의 관계에서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구 세주께서 갈릴리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마태복음 18:1-6)

최근에 신문을 읽다가 이 경전 구절을 생각하면서 구세주의 말씀이 확고한 진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의 한 난에는 이혼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어린 자식을 차지하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를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납치해가며 여러 국가를 무대로 이곳 저곳에서 옮겨 다니면서 고소하고 협박하고 분노했습니다.

두번째 기사는 열두 살 짜리 소년이 마약을 먹으라는 동네 불량배의 말을 거역하였다 하여 두들겨 팬 후 소년의 몸에 불을 지른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위독합니다.

세번째 기사는 자신의 어린 딸을 성적으로 희롱한 어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어린이 학대로 보고된 사례들입니다. 세상에는 결코 발표되지 않은 수많은 사례들이 있으며 전례와 같이 심각한 것들입니다. 한번은 의사가 우리가 사는 시에 있는 지역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온 많은 어린이들에 대하여 저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들은 아이가 어린이용 식탁 의자에서 떨어졌다거나 장난감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찧었다는 등의 그럴듯한 이유를 댍니다. 그러나 부모가 학대자이고 어린 아이는 무고한 희생자로 밝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비열한 짓을 하는 자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엄하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할 것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이러한 어린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예언자의 손을 잡기 위해 조그만 손을 내밀며 또 그분의 뺨에 키스하려고 어린이들이 예언자의 주변에 모여드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가져야 하는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대관장님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도 어린이를 어린이 이외의 호칭으로 부르지 못합니다. 예언자는 어린이를 그 이외의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정정함에 있어서 단호하고 직접적입니다. 한번은 외국에서 온 대사가 그런 실수를 하였습니다. 예언자는 사랑으로 그 실수를 고쳐 주었습니다.

어린이가 참으로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린이와의 관계에서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얼마전에 슐트레이크 성전에서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성전 음악실에서 성실한 봉사자들의 친절한 보살핌을 받은 어린이들이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팔에 안겨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이가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랑스런 자매님들을 향해 몸을 돌려 손을 흔들면서 마음 속의 느낌을 “천사님들 안녕히 계세요.”라고 외쳐 전했습니다.

한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지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아이를 “이 지상에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향으로부터 갓 떨어진 신선한 인간 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를 팔에 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것처럼 작으면서도 완벽한 그 작은 손은 당장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누구든지 갓난아기의 주먹 권 손 안에 새끼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됩니다. 입가의 미소, 반짝이는 눈, 시인에게 영감을 주어 다음과 같은 시를

쓰게 해 준 갓난아기의 천진스런
분위기에 누구나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의 출생은 한낱 수면이고 망각일
뿐

우리와 함께 소생하는 인생의 별인
영혼은, 어디엔가 거하던 곳,
먼 곳으로부터 오는 것,
완전한 망각도 아닌,
완전한 별거승이도 아닌,
영광의 구름 옷자락을 끌며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윌리엄 워즈워스, “불멸의 송가”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주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마가복음 10 : 14~16)

우리가 따라야 할 얼마나 훌륭한
모범입니까?

대관장단이 케냐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를 절름발이가 되게 하거나 죽게
하는 무서운 병에 대한 면역을 주는
소아마비 백신을 위한 국제 로타리
기금에 참여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특별
금식 헌금으로부터 엄청난 액수를 기부할
것을 승인하였을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료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어린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먼
나라로 여행하는 우리 의사들의 업적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린이에게
신체적인 손상과 정신적인 상처를 주는
언청이와 다른 기형들이 감쪽같이
고쳐집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제
이 어린이들이 거울을 들여다 보며



월심인 정원회의 회원 : 에프 앨빈 하몬드 장로(왼쪽)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자신들의 생애에서 일어난 기적에
놀랍니다.

최근에 있었던 모임에서 저는 매년
필리핀 군도를 찾아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어린이들의 이를 치료해 주는
우리 와드의 한 치과 의사에 대하여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웃음이 다시 찾아왔고 생기가 넘쳤고
앞날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 회중 가운데 그 치과 의사의
딸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 딸이 앞으로 나와
자랑스런 미소를 지으면서 “형제님이
말씀하신 분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그분이 어린이들을 위해 하는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서는
한 선교사가 의사인 그의 매형에게
“매형의 부유한 환자와 궁전같이 안락한
집을 떠나 지금 매형의 의술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자녀들에게
오십시오.”라는 말을 전했기 때문에 거의
실명 상태에 있던 수 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은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안과 의사는 주저하지 않고 그 선교사의
말에 응낙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섬을
방문한 것이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훌륭한 봉사였으며 그의 마음에 찾아온

평화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기를
희망하면서 자신의 콩팥 한쪽을 기증한
아버지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밤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힘든 수술을 통해
딸에게 자신의 간의 일부를 주기 위하여
시카고로 간 이 지역에 사는 한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이 딸을 낳을 때도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이 어머니는
다시 한 번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목숨을 딸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불평 한 마디 없이 언제나 기꺼운 마음과
신앙의 기도로 말입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루마니아에서
돌아와서 그 나라의 고아들의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부카레스트
시에만 삼만 명의 고아가 있습니다. 넬슨
장로님은 그 중 한 고아원을
방문하셨으며, 교회가 백신, 봉대 및
필요한 다른 응급품들을 전달하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이 고아들을 위해
봉사하게 될 부부 선교사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없는 어린이를 팔에
안거나 아버지 없는 아이의 손을 잡아
주는 것보다 더 그리스도같은 봉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선교사로 부름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무한정 많습니다. 고아는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으며 때로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작년 여름 오랫동안 비활동이다가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자매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닌 남편과 지금 자신이 느끼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몹시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남편과 세 아들과 함께 아이다호주에 있는 할머니댁에 간 여행에 대해서 적어 왔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를 지나가는 동안 광고판에 쓰여있는 메시지에 눈이 끌렸습니다. 템플 스퀘어를 방문해 주십사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비회원인 남편 봄은 한 번 방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방문자 센터로 들어가서 아버지는 두 아들을 “천국에 이르는 경사로”라고 불리우는 경사로로 데리고 올라 갔습니다. 어머니와 세 살난 타일러는 멈춰 서서 벽에 장식된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느라 그들보다 약간 뒤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토 발손의 대작인 그리스도 조각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어린 타일러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라고 외치면서 어머니 옆에서 그리스도상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타일러를 자제시키려고 하자 타일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해 돌아보면서 “걱정 마세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좋아하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방문자 센터를 떠나 다시 할머니 댁을 향해 고속 도로를 달리는데 타일러가 앞 좌석으로 와서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타일러에게 템플 스퀘어에서 구경한 것 중 무엇이 제일 좋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타일러는 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이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니, 타일러야?”

타일러는 몹시 심각한 얼굴로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아빠,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보셨어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사야 11장 6절의 “어린이가 그들을 이끌리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찬송가 가사가 어린이의 마음의 느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들려 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들,
지금 내 곁에 계시면 묻고 싶은,
갈릴리 바다 걸어가신
재미난 일을 들려 주세요.

예수님의 무릎 위에 어린이가,
어떻게 축복을 받고 놀았는지,
자비와 사랑 가득히 찬
인자한 얼굴 보고 싶어요.
(어린이 찬송가, 1989년, 57페이지)

경전 가운데 구세주께서 어린이를 축복한 것에 대한 기사로서 니파이삼서에 기록 된 것만큼 감동적인 귀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로 이루어진 굉장한 군중에게 감동적으로 말씀하신 후 더 머물러 계셨으면 하는 그들의 신앙과 소망에 응하시면서 그들에게 다리 저는 자와 장님과 병든자를 데려오게 하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군중들은 기쁘게 주님의 부락을 받아 들였습니다. 니파이삼서 17장 9절의 “예수께서 그 앞에 데려온 자를 낱알이 고쳐 주시니.”하는 귀절이 알려 줍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하나님에게 힘있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군중들은 니파이삼서 17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심을 우리가 보매 이 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눈이나 귀로는 보고 들은 일이 없으며”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우시니,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예수께서 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 저들이 눈을 들어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치 불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 와 어린 아이들을 에워싸매…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니파이삼서 17:21, 23~24)

거듭 반복하여 제 마음속으로 다음 경전 귀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마가복음 10:15)

구세주의 훈계를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따른 사람은 선교사였던 토마스 마이클 윌슨이었습니다. 그는 알라바마주 라페이에트에 사는 윌리와 쥬리아의 아들입니다. 윌슨 장로는 1990년 1월 13일에 그의 지상에서의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가 십대 소년이었을 때 그리고 그의 가족이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니었을 때 그는 암에 걸렸고 고통스러운 방사성 치료를 받아 조금씩 병에 차도가 있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은 삶이란 귀중할 뿐 아니라 또한 짧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이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도록 도와 줄 종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교회로 소개되었으며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 젊은 윌슨 형제는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소망했습니다. 그에게 유타주 솔트레이크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이 왔습니다. 선교사로서 가족과 주님을 대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윌슨 장로의 동반자는 그의 신앙은 의심하지 않고 빛나가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어린이의 신앙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모범이었습니다. 십일 개월 후에 암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골수암으로 그의 팔과 어깨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계속하려는 윌슨 장로의 용기와 강한 소망에 비회원이었던 아버지가 감동되어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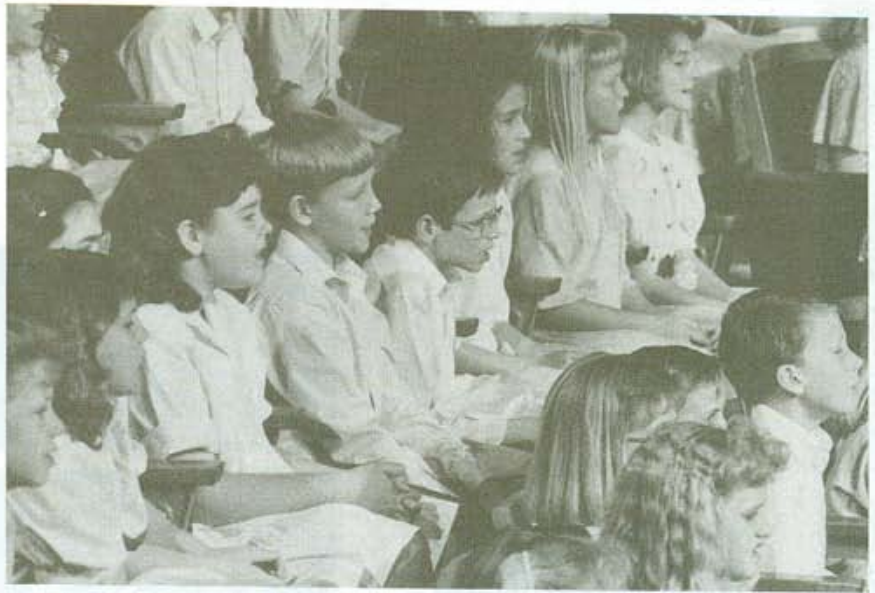
익명을 요구하는 한 여자의 전화로 윌슨 장로의 커다란 역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그전에 한번도 총관리 역원에게 전화해 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윌슨 장로같은 사람은 만나기 드문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윌슨 장로가 가르친 구도자가 템플 스퀘어 침례당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자신이 몹시 존경하는 윌슨 장로로부터 안수 확인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매는 다른 몇 사람과 함께 병원에 입원한 윌슨 장로의 병상을 찾아 갔습니다. 그곳에서 윌슨 장로는 남은 손을 그녀의 머리 위에 얹고 그녀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했습니다.

윌슨 장로는 선교사로서 귀중한 그러나 고통스러운 선교 사업을 한달 한달 계속해 갔습니다. 병자 축복을 받았고 기도도 받았습니. 동료 선교사들의 영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벅차왔습니다. 그들은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하였습니다.

윌슨 장로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종말이 다가온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한달 만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달 더러니요. 부모를 절대 의지하는 어린애처럼 윌슨 장로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토마스 마이클 윌슨이 묵묵히 신뢰했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부모인 윌리 윌슨과 줄리아 윌슨 그리고 그의 동생 토니가 알라바마 집으로 귀환하는 윌슨 장로를 도와주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기도하고 소망하던 축복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저에게 조르단 리버 성전에 그들과 함께 가 줄 것을 부탁했으며 그 성전에서 현재 뿐만 아니라 영원을 위한 성스러운 가족 인봉 의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윌슨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그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 준 것을 고마와하는 윌슨 장로를 기억합니다.



유타 그레이저 지역 초등학교 합창단이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노래함

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얼마나 큰 자신감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윌슨 가족은 라페아에트까지 긴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마스 마이클 윌슨은 이 세상을 떠나 내세로 갔습니다.

윌슨 장로의 지부장인 케빈 케이 메도우스 형제가 장례식을 주관했습니다. 저는 오늘 메도우스 지부장이 장례식이 끝난 후 저에게 보낸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이 치루어지던 날 저는 윌슨 가족을 한 옆으로 데리고 가서 몬슨 부대관장님이 저에게 보내오신 연민의 심정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그 가족에게 윌슨 장로가 몬슨 부대관장님에게 했던 말 즉 그가 복음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르치든 저 세상에서 복음을 가르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의 말을 다시 해 주었습니다. 저는 몬슨 부대관장님께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글을 참고해서 그들에게 보내 주신 영감적인 말씀, 즉 윌슨 장로는 이 지상에서 선교 사업을 완수하였으며 또 그는 ‘이 경륜의 시대의 모든 성실한 선교사들처럼 이 세상을 떠나, 어둠 속에

거하며 영의 세계에서 죄의 속박 가운데 거하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계속해서 회개와 구속의 복음을 가르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이것이 그 경우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마이클 윌슨 장로는 그의 선교사 명찰과 함께 묻혔습니다.”

윌슨 장로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시골 묘지를 찾아와 아들의 무덤에 추도의 꽃을 꽂을 때 그들은 그가 태어나던 날 그들이 느꼈던 긍지와 순수한 기쁨을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기억할 이 작은 어린이는 후일 그들에게 승영에 이르는 기회를 가져다 준 위대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묘지를 찾을 때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눈물을 막을 수가 없으며, 어린이와 같은 신앙심을 결코 잃지 않았던 선교사 아들을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다시 감사할 것이며 이사야 11장 6절의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숙고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축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의 왕을 기억하고 따를 때 평화는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役員

대관장단



고문 비 워클러 부대관장



에즈라 레프트 벨린 대관장



토머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

십이사도 정원회



하워드 더블류 윈터



보이드 케이 페커



마빈 제이 액쉬튼



엘 톰 페러



데이비드 비 웨이트



제임스 이 퍼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켈 러셀 헬라드



조셉 비 웨슬린



리차드 지 스포트

칠십인 회장단



딘 엘 라슨



메리온 디 웁스



로버트 엘 맥닐



제임스 엠 페리모어



레이 리차드 플라크



텍스 더 파네가



칼로스 이 예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안영 아브라함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테드 이 브루어



에프 앤저오 부쉬



존 케이 커먼



랄프스 에이치 아바도



에이치 빌만 캔머슨



에두아도 아말라



벤자민 비 롱크스



몬트 제이 브러프



워드 피 롱



펠리오 알 카마고



조 제이 크리스틴슨



진 알 후



테리 예이 커스버트



아람 디아가



폴스 디데이



조지 아이 케년



셀버트 클즈 이세



스펜스 제이 폰디



리그랜드 알 커티스



플린톤 엘 카블러



로버트 칸트 멀린바호



로이드 피 조오지



로렌 시 던



본 제이 페더스토운



고슬윈드



존 에이치 그로버그



더블류 유진 벨슨



프랭시스 웜 기번스



에프 펄빈 하운드



조지 알 윌 3세



에워드 지 윌럼



펄롱 셋 셉슨



케네스 존슨



엘 비오벵 렌드릭



제프리 알 톨먼드



에프 버론 하워드



말린 케이 켈슨



요시히코 기쿠베



에드니 와이 고마즈



존 알 라스터



리처드 피 윌지



윌린 알 리버프



테글러스 제이 마튼



펄 세시오 마틴스



제임스 이 펄진



린 에이 미켈슨



에이치 버크 피더슨



유 더블류 피닉스



로널드 이 포용켄



하프만 레터 이세



한스 비 윌지



알렉산더 비 모리슨



엘 알론 포터



글렌 엘 라드



가드너 에이치 러셀



디글러스 에이치 스미스



디글러스 에이치



린 에이 소펠슨



로버트 이 웨스



포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케이 델라드 러시번



더링 에이 울저



켈리 비 아이어링



포버트 디 웨일즈



글렌 엘 페이스

관리 감독단

칠십인 제이 정원회



하나님의 증인이 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은 단순히 기부하는 것 이상의 완전한 헌납 즉 현재 우리의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모든 것을 완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수많은 아름다운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돌려드려야 하는 어떤 헌납 즉 시간이나 돈이나 기타 자원들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가치있고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드리는 완전한 헌납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은 단순히 기부하는 것 이상의 완전한 헌납 즉 현재 우리의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모든 것을 완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 활동에 대한 헌신은 항상 강조되어야 하지만 거기에만 국한시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의 품행, 개인적인 성실성, 충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은 서로 연관이 있으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이 우리 인생의 모든 면 즉 그의 이름을 지닌 교회에 헌신할 때 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직장 및 지역 생활에서 우리의 행동을 잡아주고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생활하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우리 자신의 가장 훌륭한 원형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면에서 일관되고 충실하게 되는 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지 거룩한 행실 및 신념의 표준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던지 시장에 있던지, 학교에 있던지 학교를 떠난지 오래 됐던지, 혼자 행동하던지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행동하던지 간에 우리의 길은 분명하고 우리의 표준은 명확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사이야서 18장 9절의 선지자 엘마의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어느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와 같이 실행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실함에는 분명히 교회 조직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 중의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던지 간에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 방법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경전에서 그러한 훌륭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세 젊은이는 그들이 원리에 충실하고 성실성을 지킨다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에 충실했으며 성실성을 지켰습니다.

주전 586년 경에 바빌론의 왕인 느브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정복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자질과 충명함에 매우 감동되어 그들 중 몇 명을 궁전으로 데려 왔습니다.

느브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어 바빌론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경배하라고 명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쳐 왔습니다. 그 명령을 이스라엘 세 젊은이인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을 보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 오라 명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다니엘 3장 1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한 후 자만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세 젊은이는 공손히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는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리나니 하실찌라도 [어떤 이유로 우리를 불에서 구해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느브갓네살은 더욱 진노하였으며 풀무 하나를 평상시 온도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용감한 젊은이들을 풀무 가운데 옷을 입은 채 던지라고 명했습니다. 참으로 왕의 명령이 엄했고 풀무가 몹시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메고 온 병사들이 그 포로들을 앞으로 집어 던지다가 풀무의 불꽃에 타죽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기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충실한 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세 젊은이는 풀무 가운데서 조용히 걸어 다녔으며 불에 타지 않았습니니다. 놀란 왕 자신이 그들을 풀무에서 불러내었을 때 그들의 웃은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살갓도 타지 않고 그들의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습니니다. 이 용감하고 결의가 굳은 젊은이들에게서는 불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니다.

“느브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찌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다니엘 3:28, 30)

원리에 충실하고 신념에 따라 성실성과 신앙을 지니고 생활하는 능력, 그것이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기부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 개인 생활에서, 우리 가족 및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고 영향을 주는 모든 장소에서 참된 원리에 헌신하는 것, 그 헌신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인 고 스테픈 엘 리차즈 장로님이 “노력하여 부족함을 찾지 못함”이란 주제로 몇 년 전 대학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리차즈 장로님은 때때로 우리 모두의 인생에 주어지는 충실함과 성실함에 대한 여러 종류의 시험에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오늘날 젊은이들을 포함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든 예 중에 어떤 것도 불타는 풀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극적인 경우는 없었지만 성실성이 포함된 것은 같았으며 높은 원리에 헌신할 필요성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예와 성실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관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은근히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회 방문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사실을 묵과하거나 그릇되게 전하는 것을 얼마나 허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이나 전쟁, 정치 및 대학 운동 경기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일을 해도 좋다는 말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무근한 소문이나 이야기를 퍼트리거나 다른 사람들과 저속한 우스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스테픈 엘 리차즈, *지혜는 어디에?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북, 1955, 80~81페이지*)

같은 맥락에서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외설물들을 없앨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저의 가족들과 저는 그것을 사거나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평판이 나쁜 사업을 막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불명예스럽고 평판이 나쁜 곳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즐기거나 모든 결혼 가정과 좌절해 있는 자녀들을 구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저의 가정을 쾌적한 곳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로, 가정을 천국과 같이 그리고 자녀들을 잘 적용시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도덕적인 범으로부터 자유를 주장하는 욕구의 증가와 부도덕한 성에 대한 변화하는 모든 의견들, 늘어나는 악습들을 막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제 가정에서는 모든 높은 이상과 표준에 전념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으며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서로 돕는 영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높은 위치의 사람들의 불법적이고 부정직한 것을 막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저 자신은 정직하고 청렴하며 성실과 진정한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블, *기적을 낳는 신앙,*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2,



대외 방문자

247페이지)

이러한 것은 일상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성실성과 명예를 지니고 기꺼이 진리를 지켜야 하는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시험입니다. 예의를 갖추어야 할 사교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모사이야서 18장 9절에서와 같이 기꺼이 “죽을 때까지 어느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국가의 국민으로, 민족의 일원으로, 또는 완전히 성공적인 교회 회원으로 존재하려면 그러한 노력과 헌신이 보여져야 하는 사회의 한 장소를 강조함으로써 저의 말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사랑과 성실성과 강한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과 자녀에게,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변함없는 책임을 저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최상의 성공으로 간주되는 곳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노력하며, 좀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여주는 원리들을 가정에서 생활에 옮기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가정은 분명히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더욱 복음대로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충실하게 헌신해야 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어린이는 가정에서 안전함을 느낄 권리가 있으며 바깥 세상의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장소를 가졌다고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의 단합과 성실함은 이러한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주는 데 필요합니다.

자녀는 서로의 관계가 행복한, 이상적인 가정 생활을 이루기 위해 행복하게 일하는, 자녀들을 진지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껴주는 그리고 가족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실성이 가정 생활을 다스리게 될 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성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할 것입니다. 결혼 외에 성적인 관계를 갖고 생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충만하고 자녀와 부모는 서로를 존중할 것입니다. ...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이 정직과 성실성의 가치를 배우게 되겠습니까? (엔사인, 1977년 5월호, 16페이지)

성공적인 삶, 선한 삶, 의로운 기독교인의 삶은, 기부하는 모든 것이 가치있는 일일지라도 기부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헌신 즉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가 참됨을 아는 원리에 온 마음을 다하고, 깊이 지지하며, 영원히 소중하게 될 그런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그와 같이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 개인의 습관과 행동에서의 충실함, 좀 더 넓은 지역 사회와 상업 중심지에서의 성실성, 그리고 미래를 위한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 및 가족에서의 헌신과 역할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원리에 참되고 충실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자 굳게 결심한다면 어떠한 왕이나 경쟁이나 불타는 풀무도 우리를 약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사이야서 18장 9절의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어느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인간의 작은 한 발자국이 인류의 거대한 도약이 됨”

칼로스 이 에시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믿음에 찬 한 소년이 ‘작은 한 발자국’을 내딛으며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결과로 온 것은 의당 ‘인류를 위한 거대한 도약’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성스러운 주제, 즉 교회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구도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969년 7월 20일은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에서 이십 삼만 구천 마일이나 떨어진 달에 착륙한 날입니다. 수 백만 세상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지켜 보면서 우주선이 달 표면에 안착하자 경이의 눈으로 주시했습니다.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우주선 밖으로 나와 “한 인간의 작은 한 발자국이 전 인류의 거대한 도약이 됩니다.”라고 일성을 토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기념비적인 성공을 대서 특필하였습니다. 수 일간 신문 일면의 머릿 기사의 제목을 차지하였으며 주요

기사 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달 착륙은 우주 여행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고 우주에 관한 새 지식을 드러내었으며 인간이 심혈을 기울인 대 역사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달 착륙을 그리스도의 부활 이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보도했습니다.

저는 우주 공학의 최근 발전을 경외합니다. 저는 우주를 탐사한 세상의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한 조각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달에 인간을 착륙시킨 것을 지난 이천 년 간의 최대의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우주의 창조자께서 친히 지상에 내려와 미천한 한 소년의 겸손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참된 진리를 알려주신 사건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성공은 여러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크기, 가격, 수량, 지위라는 관점에서 측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다 더 나은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을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성공은 빛, 진리, 선함, 그리고 기독교적 봉사에 있습니다. (교성 93 : 39; 마태복음 23 : 11 참조)

교리와 성약 14편 7절을 참조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중 가장 큰 것”이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류에게 알려주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모두에게 혜택받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대한 존재가 되고 위대한 사건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려는, 무지한 세상에서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 한 평범한 이 어린 소년은 어떤 단체의 후원을 받지도, 전문 지식인들의 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자는 커녕 예언자의 아들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성역을 행하도록 부름받았던 과거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는 평범한 농촌 소년이었습니다. (아모스 7 : 14~16 참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 즉 의에 묵마르고 순수하고 주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지닌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가정이 학교였고 다정한 부모가 선생님이었고 성경이 교과서였습니다. 그러나 열 넷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면전에 밀어 넣을 정도의 강력한 신앙을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9 : 23 참조)

그가 뉴욕주의 한 시골 나무 숲 속으로 들어갈 때, 그를 포착하는 단 한대의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는 환호의 무리나 지지자도 없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을 취재하려고 출동한 신문 기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굽어 보시는 가운데 그는 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리라는 완전한 확신을 갖고 마음속의 진지한 소망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는 새 날의 여명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왔던, 영의 세계의 기뻐하는 무리들의 소리없는 환호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회복의 기적을 위해 그가 사용한 것은 돈도 기계도 수많은 인력도 과학 기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과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1820년의 요셉 스미스의 기도와 첫 번째 시현은 비록 “어린 소년의 작은 한 발자국”으로 시작되었으나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것은

인류를 위한 거대한 도약이었음이 증명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공할만한 신앙의 행위가 영적인 암흑의 긴밤을 종료시켰고 많은 참된 진리를 회복시켜 주었고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맞아 들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 탐사로 인한 부대 효과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대 효과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실질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의 기도의 음성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사의 결과는 한없이 더 위대하며, 따라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며 장차 이룰대로 이야기 하는 만물이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야곱서 4:13 강조 첨가)

요셉은 숲속에서 나올 때 주머니에 월석을 갖고 나오지도 신발에 달의 흙먼지를 묻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변화된 모습으로 마음과 가슴에 진리의 금광을 쫓고 나왔습니다.

1. 요셉은 종교 문제를 놓고 논쟁하는 것에는 승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스미스서 2:12 참조) 니파이삼서 11장 29절에 보면 사탄은 "분쟁의 아버지"이므로 그런 다툼은 사탄의 손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영적인 문제에 관한 중요한 의문은 종교 교사들이 같은 구절을 상반되게 이해하는 한 "성경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요셉스미스서 2:20 참조)

2. 요셉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혀를 굳게 하고 캄캄한 어둠으로 그를 엄습한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어떤 실체의 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힘은 요셉 스미스를 악마의 왕국인 죄악과 사악의 왕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본 악마가 부린 것이었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16 참조)

요셉보다 더 악마를 괴롭히고 진노케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셉보다 더 암흑의 결합된 힘을 겪어 본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요셉보다 더 사탄에게 근엄히 승리를 거둔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20 참조)

3. 요셉은 모세가 오래전에 배웠던 것, 즉 하나님의 빛과 자유에 비교되는 사탄의 암흑과 무가치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서 1:10~15 참조)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머리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이 빛 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힘으로부터 풀려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16~17)

교리와 성약 93편 37절을 보면 "빛과 진리는 저 악마를 버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흑의 권세는 밤이 새벽에 쫓겨 가듯이 빛의 권세 앞에서 달아나고 맙니다.

4. 요셉은 경전이 정확히 증명하듯이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빌면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17)

순식간에 비인격적이며 감정도 없고 이해불가능한 하나님이라는 저주스런 신화가 일소돼 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참 속성이 인간의 죄를 구속하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밝혀졌습니다. (히브리서 12:9 참조)

울슨 프랫 사도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영원한 세상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 가르치신 일 분 간의 가르침이 영감받지 않은 인간이 지어낸 모든 책보다 더 가치있는 것입니다." (울슨 프랫, 설교집, 12권, 354 페이지)

5. 요셉 스미스는 당시의 모든 교파가 그러며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묻고자 한 것은 내가 어느 교회에 가입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알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신이 들자 곧 빛 가운데 계신 그분들께 어느 교파가 옳으며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나는 모든 교파가 다 그르니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요셉스미스서 2:18~19)

그 당시 가족들은 한 특정 교파에 가입해 있었으며 요셉 자신도 다른 교회를 좋아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처음에 요셉을 당황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며 그는 이것에 대해 재론치 않았습니다.

6. 요셉은 기성 교회에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스미스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그들의 신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며 그들의 교사는 부패하였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심히 멀도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스미스서 2:19)

그가 본 것을 보았고 그가 들은 것을 들었는데 어찌 그가 전능자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교파에 가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몇몇 교사는 겸손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였을 것입니다. "비록 인도되어 가기는 하였으나 사탄의 가르침을 좇는지라 여러 가지로 잘못을 범하느니라." (니파이이서 28:14)

아마도 다소의 노력이 몇몇 정직한 사람들에 의해 취해졌을 것이나 어떤 노력이 행해졌든 "누구에게든지 옳바른 길을 가르치기" (니파이이서 25:28~29)에는 충분치 못하였습니다.

7. 요셉은 "지혜가 부족하거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는 야고보의 간증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26)

그는 또한 19세기 초엽의 백성들도

모세 시대나 절정의 시기의 백성들 만큼 하나님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주께서 나타나셨겠습니까? (엘마서 39:17 참조)

8. 그후 곧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과 그의 이름이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알려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예언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설립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에 따라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조용하게 매우 단순하게 그리고 너무도 훌륭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에 찬 한 소년이 "작은 한 발자국"을 내딛으며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를 위한 거대한 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류가 쌓은 어떤 탑도, 쏘아 올린 어떤 우주선도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늘로 더 높이 난다 하더라도 그들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회복된 예언자를 통해 밝혀진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아내지도 그분의 얼굴을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혹자는 어리석게도 "요셉 스미스와 그의 숲속의 기도와 첫번째 시현만 삭제하면 당신네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드린 구원의 진리의 보물을 땅에 묻고 "그리스도의 성역의 때로부터 그 일이 일어났던 영광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브르스 알 맥콩키, 물론 교리, 제2판, 슬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68, 285페이지)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생애를 보냈고 또 위대하게 죽었습니다." (교성 135:3~4) 그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대외 방문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 (교성 135:3) 습니다.

그의 기도는

"한 어린 소년이 내디딘 작은 한 발자국이 인류를 위한 거인의 도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신앙을 갖는다면,

"또한 한 번 작은 한 발자국을 내딛는다면." (아트 헤리스, "작은 한 발자국")

그렇습니다,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물론경을 번역한 도구였으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조직하였고 충만한 복음을 밝힌 이분을 찬양합시다.

저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이었음을 압니다. 그의 수고의 결실이 아름답고 변치 않으며 성령이 제 영혼에 이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위대함과 신성한 부름을 간증하는 수 백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신앙이나 위대한 업적을 자랑하지 말찌니”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인상을 주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성취한 바를 알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람은 우리의 신용을 떨어뜨리며 자주 친구나 직장 동료, 가족, 심지어는 우리를 주시하는 이들마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더 왕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더 왕 전설에서 귀네베어 여왕은 원탁의 기사들 중 가장 용감한 랜스롯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줍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의 합당함을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를 알리지 않는게 좋을 것이요.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먼저 당신의 이름을 알도록 하시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업적을 역설하거나 팔목할만한 성공을 강조하기 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훌륭한 업적을 보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 수의 증가나 교회의 성장에 대해 자랑할 때 우리에게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발전이나 가족들의 성취를 남에게 이야기 함으로서 오해를 사기 보다는 남들이 우리의 업적에 대해 그들 스스로가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더 훌륭한 것입니까?

자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며, 헛되고 뽐내는 자세로 말하는 것이며 특히 어떤 공적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람은 자만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교만하고 허풍 떠는 것이며 또한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뽐내는 것입니다.

때때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남의 주목을 받기를 몹시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이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행동의 실질적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암몬은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어떤 각도에서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훌륭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암몬이 말을 마치자 그의 형제 아론이 경계하여 이르기를 암몬이여, 너의 기쁨이 교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노라 하니

“암몬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힘이나 지혜를 자랑함이 아니라 보라 나의 기쁨이 차고 넘치나니 하나님께 뜻 안에서 기뻐하려 함이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노라 나는 힘이 약하여 나를 자랑할 수 없으나 주의 힘으로 만사를 다 할 수 있으며 나의 주를 자랑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땅에 큰 기적들을 행하였으니 이로써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다.”(앨마서 26:10~12) 우리가 남들과 하는 대화나 행동에서 자랑하는 방식으로 대화나 행동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인상을 주기 보다는 다른사람들이 우리를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성취한 바를 알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람은 우리의 신용을 떨어뜨리며 자주 친구나 직장 동료, 가족, 심지어는 우리를 주시하는 이들마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늘어나는 침례 숫자와 세상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의 증가와 또한 계속 증가하는 교회 직무에 대한 회원들의 헌신에 대해 겸손히 감사함을 나타냅니다.

수 년 전 우리의 예언자이셨던 킴볼 대관장님이 온 세계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의 상당한 숫적 증가에 대해 누군가 언급했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그러한 발전에 대해 감사합니다만 결코 자만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표현하였지만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칭찬받기를 삼가하고 더 높은 수준과 차원을 추구할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도는 그분의 교회에 속한 우리가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들인 노력과 근면의 대가가 오직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써만 된 것이라는 인상을 조금이라도 지어낸다면 아마도 상당한 실망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최근에 특별히 열린 여성 대회에서 한 연사는 그가 토지 개발에 얼마나 성공적이었으며 그로 인해 그가 관여한 지역은 모두 금덩어리처럼 비싸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또한 충실하고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했으며 복음안에서 매우 활동적인 형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선교부장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선교부장이었고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친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을 통해서 그는 지속적인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인사였고 사업 또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부장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마음속에서 드디어 그는 모든 면에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교부장으로 부터 해임되고 돌아온 후 변동되는 이자율과 다른 경제적 요소가 그의 번창하던 사업을 급격히 격하시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제는 말하기를 "저는 제가 그동안 상당히 자만하고 교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제가 이룬 모든 성공이 저의 근면과 지혜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저에게 닥쳐 왔을 때, 저는 이 모든 훌륭한 일들을 제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한 것이었던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교만과 뽐내는 인생 속에 살아 온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힐라맨이 그의 아들 니파이와 리하이에게 준 충고에서 우리는 오늘날에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선을 행하기를 바라노라..."

"나의 아들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더욱 권고하거나 너희는 스스로 뽐내는 일을 삼가며 영원하며 사라지지 아니할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일을 행하라. 그리하여 우리 조상들이 분명히 얻었으리라고 우리가 믿는 영생의 진귀한 은사를 너희가 얻도록 하라." (힐라맨서 5:7-8)

힐라맨은 그의 아들들이 올바른 동기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 선을 행하기를 바랐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자주 인용되는 귀절입니다. 이 귀절은 특별히

우리가 방황하거나 고통받거나 지쳐있는 사람을 위안해 주고 위로하며 도와주어야 할 기회가 있을 때 더욱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남을 도와주었을 때 우리가 갖게되는 기쁨이나 성취감 같은 것은 자랑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침묵 가운데 행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는 참으로 영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결코 그 친절한 행동이 어떤 것이었으며 어디에서 행하여졌는지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계시를 받으며 또 능력있는 일을 많이 행할 권능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며 자신의 의지와 속된 욕망을 좇아 행하면 반드시 타락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양갈음을 자초하리라." (교성 3:4)

세상에서의 성공이 인간의 기술과 노력으로만 이룩된 것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훌륭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은 합당한 말일성도에게 항상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축복으로 받은 자녀의 수와 선교사로 봉사한 자녀의 수와 자녀들의 성전 결혼 그리고 가족들의 성공에 대해서 행복해 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다행스럽지 못한 이들은 죄책감이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과 같은 축복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의 축복의 손길에서 벗어났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감사는 충심으로 느껴져야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주 표현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소리로 말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받은 축복과 우리의 지혜의 근원에 대해 감사해야 하며 개인적인 성취에 대해 과대 평가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위치에

있었다거나 혹은 현재에 갖고 있는 위치 또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것에 치중하게 될 때 존경보다는 오히려 분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마음에서 행해졌든 그렇지 않은 자랑이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랑은 남보다는 자기에 대한 관심을 중요시하는 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단체 경기에 참여했던 경험으로 보아 자기의 성과나 기록을 자랑하는 스타 선수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기록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은 동료 선수, 코우치, 그리고 매니저의 장점을 찾아내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준 특별한 재능과 능력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운동 시합에서 적수는 힘을 자랑하는 팀을 참패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뽐내며 덤비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의 만족은 보통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한 과업에 대해 말로서든 어떤 암시로서든 우리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힘과 영향으로 이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아고보서 3장 5절에서 배우듯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있는 말일성도는 절대로 자신의 말이나 태도나 표현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자랑하는 자는 개인적인 성취의 진정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는 결코 지속적인 성공을 맛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나 훌륭한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상기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겸손이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 만으로는 견디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자랑하거나 잘난척 하는 사람은 그의 동료들로부터 어떤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그러한 성취를 이룬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육신의 권세에 의지하고 또 그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교만에서 비롯되며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를 갖도록 합니다. 인간이 그가 갖고 있는 부나 정치적인 권력, 세상적인 지식, 신체적인 능력, 사업 능력, 심지어는 옳은 일을 행함 등으로 인해 오는 자기 환희에 알게 모르게 빠질 때 주님의 영광 화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돌리고 끊임없이 감사하던 구세주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그리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천국 회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서 4:2)

예수님은 이 지상에 살아 계신 동안 아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 지라”라고 누가는 적었으며 그들 또한 기이히 여겼으나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56)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경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43)

죽음을 삶으로 변화시킨 그분의 역사하심이나 무덤을 이기실 승리를 미리 예상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증거하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오직 의로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이 위대한 기적은 실제로 마태가 말했던 것 같이 온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떨치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24 참조)

사실 그 소녀의 부모는 벌써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게된 사실을 비밀로 덮어 둘 수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수께서 몸소 계속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사하시어 그 작은 소녀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소녀의 죽음은 이미 군중들에게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로부터 그 소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며 그 소녀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곧 그 소녀가 다시 산 것을 알고 어떻게 그 소녀가 다시 살게 되었는가를 기이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 소녀의 부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지시 받았으나 이 기적에 대해 알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기이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자나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의 표준의 하나로서 그러한 영적인 축복에 대해 자랑하지 말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은 신앙을 가진 자나 고대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로 그 진리를 믿는 자에게 오는 기이한 표적들에 관해 말씀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명 하나를 저들에게

주리니, 저들은 스스로 이 일을 자랑하거나 세상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지니라. 이 일은 너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진 것임이라.” (교성 84:73)

아마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하신것은 이러한 일들을 자랑하듯 이야기 하지 말며 교만한 마음 자세, 즉 태함 받았다는 우월감이 우리의 영혼에 깃들이는 것을 염려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한 때는 예수님이 그가 병고침의 은사로 치유한 자들에게 나가서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모든 이에게 증거하라 하신 때도 있었고 또 다른 한 때는 그런 일에 대해 자세히 증거하는 것을 금하신 적도 있습니다.

경전에 자주 나와 있는 자랑하지 말라는 훈계는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재능, 창조력, 능력, 통찰력 그리고 힘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암몬이 그의 형제들에게 증거했던 것같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엘마서 26:10-12 참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 보다 인간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랑은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돌릴 때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의 축복과 인도를 받아 들이도록 도와 주십니다. 지혜롭고 헌신적인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며 개인의 성취나 자랑을 나타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위대한 사업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식과 간증을 더욱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훈련된 제자라는 사실을 자비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훌륭한 연차 대회에서 말씀드리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 만 명의 회원들이 큰 기대 속에 이곳 태버나클에서나 가정 또는 천 개 이상의 교회 건물에서 이 말씀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형제 자매로서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신앙과 충실함을 지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살고자 하는 소망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 대부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을 잘 압니다. 또 여러분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고자 열망하고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에 이르도록 혼계되어 왔지만 어느 누구도 완전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느껴지는 주제를 택하여 여러분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수 많은 사람을 산 위에 모아놓고 말씀하신 산상수훈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비를 받을 것이요”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7)

우리는 지금 너무나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개심과 비열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능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생각치 않고 완전한 이기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혼자 사는 젊은 부인과 대화하였습니다. 그녀는 서투른 기술로 자녀들과 생활을 꾸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받고 좌절한 그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 세상은 너무 거칩니다. 자비가 없는 밀렵 시대와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비는 얼마나 신성한 것입니까! 자비는 법으로 제정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슴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자비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생성되어야 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성스러운 장자의 상속권을 받은 자로서 부여받은 특별한 은혜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크고 넓은 자비를 타인에게 베풀 것을 간청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 다른

사람의 자비를 간절히 바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비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주신 비유가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하는데 “나사로서 이름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베불리며 하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누가복음 16:19-26)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자는 자비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확실히 답해 우리 인간 관계에서 강한 동정심과 높은 자비심을 베풀 것을 간청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는 최근 몇 달 동안 동부 유럽의 몇 나라에서 기이하고 거의 믿을 수 없는 변화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독재자들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목소리가 다시금 새로운 자유의 노래 소리와 함께 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냉혹한 전체주의를 행해왔던 사람에게 주어진 빠른 재판을 지켜 보았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의 순간에서 독재자는 자기를 고발한



대회가 끝난 다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판장님이 그의 보좌들과 함께 심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퍼우스 장로와 심이사도 정원회의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심

사람으로부터 자비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독재자와 그의 부인이 행해왔던 재판 제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짧게 내용을 듣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빨리 집행을 했었다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독재자는 오랫동안 가혹하고 무정한 압박을 가하며 자비를 보여주지 않았고 또 이러한 격변기인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 독재자에게 자비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훈련된 제자라는 사실을 자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마태복음 5 : 39)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를 걷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달라거든 겹옷까지 주어라”(마태복음 5 : 40)

또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 주어라”(마태복음 5 : 41)

“네게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거절하지

말라”(마태복음 5 : 42)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죄 지은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한복음 8 : 10~11)고 하셨습니다.

아주 심한 고통 중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께서는 “아버지시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 : 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자비의 위대한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불쌍하고 병들고 핍박받고 불의와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의 희생물이 된 사람들에게 동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십자가 위의 희생은 모든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자비는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자비는 은밀하며 겸손한 것입니다.

자비는 신문 기사에 거의 보도되지 않습니다. 자비는 복수와 증오 그리고 욕심과 공격적인 이기심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며 하늘로부터 지구를 향해 조용히 내리는 비와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배로 축복받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도 복이 있으며 자비를 받는 자에게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 왕은 왕관을 갖는 것보다 자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왕권은 세상적인 힘을 보여주지만 자비는 세상의 왕권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자비는 왕들의 마음 속에 높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베니스의 상인, 1막 4장 184~195행)

자비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생성된다면 참혹한 전쟁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북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충돌을 지켜 보았습니다. 확실히 그 충돌과 인접한 사람들과 그 충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실증을 느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양편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오랫동안 존재했고 성장해 온 파멸적인 증오를 극복케 해 주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양편이 서로에게 큰 동정심을 베풀 때입니다. 저는 확실히 자비로운 사람이 자비를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찾아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미국을 괴롭혀 왔던 모든 전쟁 중에서 남북전쟁처럼 고통과 죽음의 값을 크게 치르고 서로를 해치며 미워했던 전쟁도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 보기도 못한 한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1865년 4월 9일 버지니아주 아포마톡스 코트 하우스에서 로버트 이 리 장군이 올리버스 에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랜트 장군은 남군에게 간단한 내용의 친서를 보내 그들의 개인 무기 및 말과 짐을 가지고 그들의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풀어 주었습니다.

고발도 없었고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용서를 빌게 하거나 형벌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위대하고도 찬미할 만한 자비로서 전쟁

역사속의 기록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에서도 인디안에 대한 브리감 영 대관장의 모범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인디안과 싸우는 것보다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불쌍한 자에게 보여 준 동정의 태도 속에는 그의 영혼에서 우러나온 자비 뿐만 아니라 본래 지니고 있던 위대한 지혜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의 가족 역사에서도 이와같은 자비를 보여 준 실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아이라 나데니얼 핑클리는 1867년 브리감 영 대관장 지시 아래 여행자들이 인디안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유타주 남방의 도로에 있는 코브 강변에 요새를 만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께서 그 고독한 요새에서 일하시던 몇 년 동안 브리감 영 대관장이 인디안에게 배푸신 자비의 정책을 따라 실천했기 때문에 인디안으로부터 오는 어떤 중대한 불상사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니다.

조그마한 자비에 의해서도 개선될 수 있는 우리 사회에 많은 다툼과 충돌이 있습니다. 한 개의 눈은 하나의 눈으로 하나의 이는 하나의 이로 갇으라는 모세의 율법은 하나의 눈에는 세계의 눈 하나의 이에는 세계의 이로 보복이 확대되어지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비탄에 잠긴 피해자들은 친절을 요구하지만 수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노동자와 고용인 간의 폭력 행위와 이성을 잃은 고발로 인한 충돌을 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비의 원리를 서로가 적용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충돌은 대부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아동 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산업체에서는 여전히 어린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이용하고 있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아직도 “가난한 자의 얼굴에



참심인 제이 정원회의 새로 지지받은 회원들 왼쪽부터: 제이 벨라드 워시번 장로, 리그랜드 알 커티스 장로,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장로, 해롤드 지 윌렘 장로, 헬메시오 마틴스 장로, 클린튼 엘 커티스 장로, 더럴 에이 울저 장로, 톰 에이 미켈슨 장로. 사진을 찍지 않았신 분: 에두아도 아얄라 장로

맺들질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3 : 15)

공직이나 지도자직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도 그들 자신이 잘했고 현명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는 신문 방송에 종사하는 혹평가들에 의해 우리 세대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건의 문맥에서 한 줄이나 한 구절만을 취하고 사람을 죽이는 별때처럼 희생물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격을 가할 수 없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다른 쪽 빵을 내주며 그들의 생활을 묵묵히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비판과 모욕과 명예를 훼손합니다.

세상의 도처에서 정부는 마약 퇴치 전쟁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약을 운반하고 파는 것을 막는 관계 기관원들의 노력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수행하면서도 많은 마약 복용자에게 동정심을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길을 찾도록 도울 때마다, 우리의 노력은 분노로 인해 생겨나는 질책을 가하는 행동 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로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집없는 사람들의 슬픈 문제는 미국의

위대함을 공공연히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간에 가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뚜렷한 친절의 정신으로 돕고 먹이고 음식을 공급하고 양육하며 축복하는 사람을 저는 참으로 높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과 그들 자손들에게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관대하게 주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곡간을 비우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식탁에 음식을 채울 것이며 그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자비를 보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자제심, 친절, 관대함, 동정심을 포함하는, 자비가 너무도 필요한 다른 영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을 통해 착한 사람으로 또는 나쁜 사람으로 혹은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으로 됩니다.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가정 교육이 그들의 생활에 크게 미치고 반영됩니다. 가정에 가혹함과 학대와 자제치 못하는 분노와 불충실이 있다면 그 결과는 뻔하며

아마도 이러한 나쁜 영향은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자제와 용서, 존경과 배려, 친절과 자비 그리고 동정심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 열매가 보기 좋을 것이며 그들은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긍정적이며 사랑스럽고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는 부모에 의해 주어지고 가르쳐지므로서 다음 세대의 생활과 행위에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부모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혹한 비평이나 행동을 금하고 노함을 자제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비와 사랑과 존경을 표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을 중시하지 않는 종교, 사랑이 깃들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교회 회원은 모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와 같습니다. …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과 정결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직, 영혼의 고결성, 순결, 양심의 자유, 모든 사람 심지어는 적에게까지 기꺼이 행하는 선행, 인자 등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종교를 세상에 알려지게 하는 열매라 할 수 있으며, 교리를 선포하고 이론을 선언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있는 행위입니다.”(신앙개조,

솔트레이크시티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68년 429페이지)

현대 계시에서도 주님은 똑같은 맥락으로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북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교성 81 : 5)

그리고 다시 “그러므로 네 모든 대화로, 네 모든 기도로, 네 모든 훈계로, 네 모든 행위로 네 형제를 격려해 주라.”(교성 108 : 7)

우리 미국 사람들은 최근 몇 달 동안 “더 친절한 국가, 더 온화한 국가”가 되자는 구호를 자주 들었습니다.



대외 방문자

그렇게 되고 싶다면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의 더 친절하고 더 온화한 마음의 자발적인 표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자비롭게 됩시다. 우리의 생활에서 교만과 자만 그리고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립시다. 더욱더 동정심을 갖고 더 온화하고 자제하고 인내하며 서로를 존경합시다. 우리들의 이와같은 모범은 다른 사람을 더욱 자비롭게 하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자비를 더욱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보라, 우리가 모두 결식하는 자가 아니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곧 우리의 음식과 의복과 금은 그밖의 온갖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제 너희를 주관하시고 너희의 생사화복과 너희가 가진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면 무엇이랴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실진대, 어찌 너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지 아니하겠느냐.”(모사이야서 4 : 19, 21)

베냐민 왕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다면 그리스도의 권능은 확실하고 그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는 동정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자비를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 : 7)

저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질병이나 쇠약, 가난이나 비탄, 다른 인간이나 자연에 의해 가해지는 어려움이 닥침으로 인해 자비를 구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주는 나를 두려워 하는 자에게 자비로 우시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로다.”(교성 76 : 5~6)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는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으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줌으로써 우리도 그 자비로 인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세계 평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면 지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몇년 전에 워싱턴 디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있던 한 친구가 운전 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시 청사로 갔습니다. 그는 직장 주소와 업무 분야를 기재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는 막 미국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터라 직장 주소란에는 대법원 주소를 쓰고, “업무 분야”라고 표시된 빈 칸에는 **판사(justice)**라는 단어를 써 넣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던 사람이 그가 제출한 서류를 자세히 살펴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면서, “정의(justice)? 정의라! 뭐, 괜찮겠지. 지난 주에는 **평화**라고 쓴 친구도 있던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평화**”의 업무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화**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와 같은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고 자동차 완충기에 **평화**를 주장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많은 의인들이 전쟁을 반대함으로써 **평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들은 전쟁을 철폐하거나 무장 해제, 또는 군비 축소를 위한 법률이나 조약을 주장합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쟁의 가능성이나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쟁에 반대하는 것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 이상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50년이 넘도록 저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가져다 주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상태입니다. 복음이 주는 **평화**는 무력을 사용하고 안하고에 관계없이 모든 충돌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제1차 세계 대전 중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사람들은 전쟁 준비를 함으로써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재의 이 전쟁은 **평화**는 사람들에게 정직과 정의를 훈련시키고 사람들의 의로운 뜻을 존중하는 통치자를 선출하는 등 **평화**를 준비함으로써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세상에 **평화**를 안치시킬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통치자와 국민 모두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며 실행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14년 9월호, 74~75 페이지)

한 세대가 지난 후, 제2차 세계 대전의 잔혹한 교전 중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평화**는 **평화**의 원리가 승리하고, **평화**의 적인 미움, 시기, 부정 축제, 인간의 불의한 권력 행사 등이 정복됨으로써만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적들을 이기지 못하면 개인에게는 고통이, 가정에서는 불행이, 국가 간에는 전쟁이 초래될 것입니다.”(복음 이상,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53년] 280페이지)

어느 시대에나 예언자들은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구상의 최초의 가족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즈음 사탄이 사람들 가운데서 위세를 떨치고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었더라. 그 때부터 전쟁과 유혈의 참극이 벌어지며...”(모세서 6 : 15)

그의 시대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같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레위기 26 : 3, 6)

주님은 물론경 전체를 통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번성할 것”(니파이서서 1 : 2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핍박과 국민간의 다툼의 원인을 캐보면 주 원인은 거의 언제나 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세기의 대량 학살들은 인류에게 가해진 가장 잔인한 범죄에 속합니다. 나찌들이 유럽에서 오백만이 넘는 유대인을 집단 학살한 행위와 소련에서 스탈린이 오백에서 천만 명을 죽였던 숙청 및 노동 캠프, 그리고 비아프라 전쟁에서 2~3백만 명의 양민들이 학살당했거나 굶어 죽은 사실들은 인간의 이해력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윌리만 및 덤크스키, 민족 근절과 현대, [그린우드

출판사, 뉴욕), 1987년, 46페이지; 민족, 1989년 3월 6일, 294페이지 및 1989년 8월 7/14일, 154페이지 참조)

위의 모든 대학살과 기타 그와 비슷한 참사들은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인을 할 수 있다는 인류 초기부터 있어온 사탄이 가르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세서 5:31 참조) 이 시대의 집단 살인자들은 부를 취득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학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모세를 통하여 다음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찌니라

“간음하지 말찌니라

“도적질하지 말찌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탐내지 말찌니라”(출애굽기

20:13~17)

모든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윤리 기준인 이 계명에 순종했다면 금세기의 가장 큰 비극들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간에 전쟁이 일고 있으며, 피차에 무기를 들고 싸우고, 심한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매일 어디에선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며 반목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평화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땅끝의 모든 백성들이 나에게로 오라.”(니파이서 26:25)고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문경에서 가르치셨듯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인이 하나같이 귀”(야곱서 2:21)합니다. 주님은 “만인에게 값없이”(니파이서 26:27) 구원을 주셨으며 따라서 “만인에게 각각 선하심을 취할 권세가 주어져 있음에, 금지당한 자”(28절)가 없습니다.

“만인을 부르사 그의 선하심을 취하게 하시고,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면 검거나 회거나 속박된 자거나 자유인이거나, 남자나 여자이거나를 부인치

아니하시고, 이교도까지라도 기억하시리니,”(니파이서 26:33)

복음의 축복 및 평화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전쟁과 다툼은 악의 결과로 오는 것이며, 평화는 의로움으로 인해 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국가의 정부에서 일어나는 혁신적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쟁이나 큰 피흘림이 없이 성취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나 전세계적으로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완전한 평화는 멀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칼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모습을 만들 것”(미가 4:3)이라고 기록한 구약시대 예언자의 말씀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가 그 길로 행”(미가 4:2)할 그 시기 뒤에 올 평화의 때에야 적용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사방에서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반대파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의 권력자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개인 및 공공 재산을 사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굶주리고 집도 없는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게을리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도둑, 공무원들의 타락 및 가난하고 보호받을 길 없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압제에 의해 빈곤이 가중됩니다.

어떤 국가의 국경선 바로 너머에는 고통스런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피난민들의 초라한 막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의 도덕적인 상황은 예언자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다음과 같이 “피의 도시”로 비유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이 땅의 백성들은 강조하며 극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에스겔 22:27, 29)

민주주의가 평화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국가가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될 때, 그 국가의 행위는 백성들의 의로움이나 사악함을 반영하게 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의롭지 못하면 그 국가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존 에이 윌소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유일한 길은 평화를 사랑하고 조성하는 사람들을 길러 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교리에 따라 세상의 평화를 걸머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는 세상의 평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회나 기타 통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에도 전가될 수 없습니다.”(대화 보고, 1943년 10월, 113페이지)

만일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그들의 행위를 다스릴 수 있는 기본적인 선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세계 평화는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한 국가의 탐욕, 혐오, 또는 다른 국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 국민 개개인의 탐욕, 혐오, 또는 이기적인 욕망을 반영한 것 뿐입니다.

반대로 국민 각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 평화롭게 생활한다면 세상의 평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노래 가사에서 표현된 기도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 평화 내게서 피조자에게 하옵소서.”(밀러와 질 잭슨, “지상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

구세주와 그분의 사도들은 개인의 의로움 외에 세상의 평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로마의 법규나 지역의 전제



새로 지지받은 해럴드 지 윌렘 장로와 인사를 나누는 침실인 장로회의 회원들, 왼쪽부터 : 아담 디아가 장로, 벨콤셋스 켈슨 장로, 조지 알 힐 3세 장로, 리차드 피 린지 장로

군주들에게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분들은 개인의 의로움에 대해 강론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마태복음 5 : 44 참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로마서 12 : 18)고 가르쳤습니다.

근래의 역사는 전쟁이 끝나고도 다른 국민들을 계속해서 미워하는 백성들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게 되는 반면, 남을 용서하는 승리자는 평화와 변역을 나누게 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교회 회원들은 2차 대전이 막 끝난 후, 독일 성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식량과 의복을 보냄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힘을 보였습니다. 해리 에스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께서 그 물품들을 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자 무척 놀라서 “그걸 사람들에게 그냥 준단 말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짧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이며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에드워드 엘 킴볼과 앤드루 이 킴볼 이세, 스펜서 더블류 킴볼,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77년], 222페이지)

몇 개월 후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님은 한 독일 회원이 밀죽 그릇 속으로 손을 넣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벤슨 형제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서리 엘 듀, 에즈라 태프트 벤슨, 1987년, 219페이지)

세계 평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인적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감독은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오랫동안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학대 행위의 희생자 역시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남 청년들은 자기 만족을 위한 활동과 같은 일시적인 쾌락을 버리고 봉사 활동이나 친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인간성에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범죄 행위는 다른 사람들, 특히 부모 또는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에 의해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 어긋나게 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거나 양육하는 자녀를 사랑으로 보호하며 의롭게 성장시키는 부모님들은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왕의 권고에 따라 자녀를 가르치며, 분쟁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기를 가르치”(모사이아서 4 : 15)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다른 백성들간에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또한 평화를 위한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친절하게 또는 화목하게 행동하는 것 또한 평화를 위해 중요합니다. 링컨의 전기에 그와 같은 행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 연방군 장교가 자기 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그의 상관에게 외출 허가를 청했습니다. 링컨은 통명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곧 새로운 전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장교들이 동원돼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링컨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 보고 그 장교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 있는 장교의 방으로 가서 그의 손을 잡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령, 어젯밤엔 내가 너무 심했소. 뭐라고 사과해야 할 지 모르겠구려. 나는 너무도 지쳐 있었소. 그러나 나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사람에게 것처럼 무례하게 대할 권리가 없소. 하물며 큰 슬픔에 빠져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렇소. 밤새도록 후회를 했었소. 그리고 그대에게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요.”(카알 샌드버그, 전시의 아브라함 링컨, 전4권, 뉴욕 : 하코트 브레이스앤 코, 1939년, 1 : 514페이지)

장로 및 자매 선교사들과 부부 선교사 여러분은 세계 평화를 위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충실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내보내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선교사들 또한 정치적인 의사 일정표나 군사력 감축이나 군비 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탄원서를 돌리거나 어떤 입법을 주장하거나 어떤 후보자를 나서서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종들이며, 세상의 평화를 위한 그분의 계획은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라 의로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에는 플래카드나 피켓이 아니고 회개와 혁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의를 가르치므로써 전쟁의 원인을 없애려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들 개개인의 부패와 탐욕과 억압에 대해 회개하도록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혁신을 통해서만이 단체나 국가에 의해 야기되는 부패와 억압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하여 개개인의 마음과 행위를 변하게 함으로써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내에서 우리는 예언자 베냐민 왕이 정해 놓은 신앙 형식을 따릅니다. 베냐민 왕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롭고 진실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서로 화평하게"(모사이야서 4:13) 지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면 지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되돌아가는 길을 찾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되돌아가는 길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현재 살고 계신 삶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원하는 삶을 찾으시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저는 원하지도 않으며 또한 즐기지도 못하는 삶의 틀에 붙들려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겉으로는 만사가 다 잘되고 있다고 공언하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며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이 돕고자 하는 노력도 거절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혼자 조용히 있게 되면 자신이 비참하고 외로우며 때로는 두렵기까지함을 압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너무 골똘히 생각하는 것은 회피하고 맙니다. 잠시 동안은 육체적인 만족을 주지만 오랫동안 정신적인 고통이 뒤따르는 욕구에 이끌리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함으로써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극복하시도록 돕기 위해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상관없습니다. 만일 주님의 계명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여러분이 의의 원리를 실행함으로 인해 주님은 사탄의 모든 영향력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되돌아가는 길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니파이이서 2:6-8 참조)

누군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게 되며 그 잘못들이 실제만큼 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밖으로 들어난 것만을 인정하며 다른 것들은 그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나쁜지를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자신을 속이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데 만사가 다 괜찮은 것처럼 가장하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태도는 필요한 도움을 얻는 데 장애가 되며,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익숙치 않은 길을 택해야 하는데, 그 길은 언덕길이며 좁은 길입니다. 다른 길은 훨씬 쉬워 보이지만 고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같은 잘못을



활성인 정원회의 회원이며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보좌인 에드니 와이 고마즈 장로가 대회 방문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음

범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을 결코 언덕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교성 10:25 참조) 그들을 따를 때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불행과 실패와 실망과 커다란 두려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루시퍼는 여러분을 속박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전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탄은 다음과 같이 속삭입니다. “절대 아무도 모를꺼야.” “딱 한번만 더.” “너 변화할 수 없어, 전에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었지.” “너무 늦었어, 이미 너무 깊숙히 들어 왔는걸.” 사탄이 여러분을 낙담시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세주의 길인 그 힘든 오르막길을 택하며 그 길을 따라 계속 가면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할 때, 유혹을 물리칠 때, 목표를 달성할 때엔 그것에 대해 커다란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 느낌은 계명을 어겼을 때 갖게 되는 느낌과는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화평과 위안을 느끼며 계속 전진하겠다는 용기를 갖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주님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권고를 줄 신권 지도자와 도움을 줄 친구들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그 여정을 위해 설치해 놓으신 규칙을 따를 때에만 도울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영원한 발전도 여러분 스스로의 변화하겠다는 의지에 의해 가능합니다. (모사이아서 3:17~20 참조)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다면 계속해서 강해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허용해 버린다면 결코 회개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행해진다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배우지도 않게 되며, 따라서 자신감이나 변화하기 위한 힘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참된 신앙과 진실한 회개, 순종 및 이기심을 버림으로써 찾아올 것입니다. (엘마서 26:22 참조)

왜 이기심을 버려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기심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심과 죄악이 성행하는 곳에는 주님의 영이 거하시지 못하며 따라서 축복을 주실 수 없으십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 표시가 자기에게로 향해 있으면 자신의 시야를 가리는 역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친절한 행동과 사랑을 통해 밖을 향하게 될 때에는 여러분에게 행복과 평화로 통해 있는 길을 비춰 줄 것입니다.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여러분은 필요할 때 주님의 힘을 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생활 속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생을 절망 가운데서 보내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부터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니파이일서 22:26 참조)

처음 시작하기가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경전을 펼쳐 들고 그것에 몰두하십시오. 좋아하는 구절들을 찾아 보십시오. 주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종들의 간증에 의지하십시오. 그을린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니파이일서 4:15~16) 경전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힐라멘서 3:29~30 참조)

만일 여러분의 생활의 질서가 실물치처럼 엉켜 있다면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한꺼번에 모두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매듭 하나 하나, 결정 하나 하나부터 시작하시고, 매듭을 풀고 있는 동안 더 이상의 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다음 예는 여러분이 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언입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여러분의 자동차 앞으로 달려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 단계를 신중하게 분석함으로써 여러분이 심각한 습관을 극복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멈추고자 결정합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다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엘레베이터에서 발을 땁니다. 한 발을 엘레베이터에 올려 놓고 또 다른 발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세운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브레이크를 힘껏 밟습니다.

깊이 빠져 있는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금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생각과 건전치 못한 환경 및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친구 등 그 습관을 굳혀가는 모든 것을 찾아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거나 극복하십시오. 그런 다음 부정적인 것들을 영구히 금하십시오.

두 번의 변화 기간을 거치게 됨을 인식하십시오. 첫번째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제해온 호랑이를 우리에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를 뒤흔들고 으르렁거리며 위협 자세를 취하며 여러모로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틀림없이 지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릴지는 죄의 심각성, 결심의 정도 및 주님께 구하는 도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확고히 결심하는 한 그 기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떠한 적의 공격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간 또한 지나갈 것이며, 여러분은 더 큰 평안을 느끼고 생활을 좀더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고장난 줄자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뚜껑을 벗겨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부속품들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줄자와 스프링들이 사방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들을



활심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새로 지지받은 헬베시오 마틴스 장로가 선교부장 제임스 그의 선교부에서 봉사한 선교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음. 마틴스 장로는 새로운 부름을 받을 때 브라질 포탈레자 선교부의 선교부장이었음

다시 제자리에 맞추어 놓으려는 노력은 그야말로 어려움과 좌절이 뒤이은 일이었습니다. 짜증스러워 통째로 집어 던져 버릴려고하다가 "이 줄자도 사람이 만든 것이잖아. 이것을 작동하게 하는 원리만 찾아 낸다면 고칠 수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해서 스프링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감으면 튀겨 나가거나 팍 끼지를 얇고 제대로 작동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스프링을 다시 감아서 조심스럽게 통에 넣고 줄자를 함께 넣어 조립한 후 뚜껑을 닫았습니다. 줄자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면 억지로 강요해서는 전혀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주의 계획을 탐구해서 그에 따름으로써 좀더 유연하게 될 것이며, 좀더 쉽게 "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영향력 아래서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첫번째 가장 어려운 단계는 서로 상반되는 느낌,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걱정,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두려움 등의 내면적인 투쟁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이 투쟁은 계속되며, 그것은 곧 점점 더 고통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깨끗하게 하겠다고 확고하게 결심을 하게 됨으로써 끝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일단 그 결심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결정 및 행동이 따르는데, 지나치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결정 및 행동들이 함께 합쳐질 때, 우리 생활을 억압하는 괴물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하는 것과, 필요한 경우 감독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입니다.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나머지 과정은 생각보다 쉬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힘든 날들도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자유 의지를 행사함에 따라 주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주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므로 그 과정은 점차로 쉬워질 것입니다. (욘나이사 1:26 참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십시오. 배가 표류하고 있다면 방향 키가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방향 키를 작동시킬려면 배를 제대로 전진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솔트레이크 템플

여러분도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자신을 합리화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참되다고 믿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진리로부터 이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할 것입니다. 합리화는 여러분을 삶의 어두운 계곡으로 이끌어 내리며, 영적인 권세를 고갈시키고, 진리에 대한 이해력을 왜곡시킴으로써 행복으로 향한 길에다 장벽을 쌓아 놓을 것입니다. 진리와 긍정적인 결심으로 합리화를 극복하십시오. 그것들을 통해 언젠가는 여러분이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악영향에 저항할 수 있는 성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변화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아무도 몰래 자신의 약속을 어길 방법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경우 자신감을 잃게 되며, 여러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신뢰심을 약화시켜서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진리에 불순종함으로써 스스로를 속이는 데에는 어떠한 유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 외에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 결코 성취해 본 적이 없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전에는 결코 행한 적이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경험과 이해력과 능력에만 의지하여 문제에 직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여 주님의 무한한 권세에 의존하십시오. (니파이이서 31 : 19-21 참조)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소홀히 대하는 듯하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도움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십시오. 변화하고자 하는 진실한 노력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이번에는 주님의 방법에 따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해시키십시오.

되돌아 오는 길을 걸어감에 따라, 여러분은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염려와 이기심 없는 사랑,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및 자존심과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마치 터널 끝에서 반짝이는 불빛처럼 진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의혹을 저의 확신으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권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회개하여 삶을 변화시키고자 결심을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임을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주께서는 필요할 경우 항상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도움을 느낄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주님은 결코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고 계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

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직에서 최근에 해임됨

“행복했던 기억과 따뜻한 우정을 얻는 것은 아마도 모든 축복 중 가장 감미로운 축복일 것입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해임을 받아들입니다. 정규적인 임무 지명의 교대로 인해 우리가 해임되고 새로운 회장단이 지지되었으므로, 우리는 새로 부름받은 분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진실한 지지를 보냅니다.

루서 버뱅크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 해 끝나가는 여름날처럼, 나는 내게 허락된 시간의 막바지에 서서, 지난 일을 회고하고 나의 경험과 성장과 우정과 추억의 수확을 위해 지금 잠시 멈추어 있다.

나의 수확은 무엇이었던가?...
“성취한 사업과 도달한 목표의 수확...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친 경험과 교훈들...
“소중한 우정과 행복한 추억들의 수확...
“크고 풍성한 수확이다.”(인생의 수확,

매사추세츠 캠브리지 : 호손 미플린사, 1931년, 280~281페이지)

크고 풍성한 수확. 상호부조회의 사업은 신앙을 발전시키고 간증을 전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선 사업을 하고, 지상과 영원의 세계에서 우리의 가족을 강화시키며, 모사이아서 18장 21절에 기록된대로 “마음을 하나로 뭉쳐 단합하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면서” 일하도록 하는 복음의 단순하고 간단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경험과 교훈들이 많은 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로 혹은 직접 만나서 우리와 나누었던 열망과 소망들을 우리는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임무와 권고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교회로 전달되었고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의에 굽주리고 목말라 있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어 그곳에 있는 동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니파이삼서 12:6 참조)

우리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서로를 인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구세주에게로 가져가기 위해 함께 일하는 신권 지도자들과 그 자매들과 보조 지도자들을 봅니다.

행복했던 기억과 따뜻한 우정을 얻는 것은 아마도 모든 축복 중 가장 감미로운 축복일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똑같은 사قم이 하늘에서도 있으리니 다른

것은 다만 그곳에서는 우리가 지금 향유하지 못하는 영원한 영광이 함께 따르는 것이니라.”(교성 130:2)

저를 후원해준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유능한 보좌들과 본부 서기와 직원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자매 조직의 간부와 직원들 뿐만 아니라 헌신적이고 유능한 간부와 지원자와 안내를 맡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음을 또한 감사 드립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훌륭한 아들들이 총관리 직원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특권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고결함과 충성심과 사랑과 동정심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헌신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육 년 전에 남편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선교부를 관리 하였습니다. 우리는 저의 상호부조회 회장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 년 일찍 귀환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자 그대로의 선교 사업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남편은 그가 청년 시절에 열심히 봉사했던 체코슬로바키아 선교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곧 올 다른 과제를 겸손하게 기다립니다. 지난 육 년 동안 변함없이 저를 지원해 주었던 남편을 이번에는 제가 지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사이아의 아들들에게 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선교 사업의 영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들 위에 영을 내리사 저들과 동행케 하시며, 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로 삼으시도록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였으며, ...저들의 형제인 레이맨인들에게... 진리의 뜻을 가르치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더니.”(앨마서 17:9)

최근에 선교부장 훈련 모임에 참석한 동안 캘리포니아 선교부에서의 어려웠던 문제들이 제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지만 비슷한

문제들을 우리는 다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훈련 모임이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느낀 이러한 불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설레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세에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 들었을 때에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 생활에는 역경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겠지만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기대로 환성을 질렀습니다.

지금 저와 남편은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이 새로운 기회를 위해 준비하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났고 풍부한 경험을 했던 상호부조회에서의 봉사 기간을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셨고 다음 해를 위한 씨를 싣트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보잘 것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목적을 이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에게 봉사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가서 행하겠나이다”

엘레인 엘 잭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저와 보좌들은 열심히 봉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있는 여성들이 교회를 팔복할 만하게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도록 도울 수 있는 면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먼저 니파이일서 3장 7절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라는 말씀을 믿고 있음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이 막중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바바라 윈더 자매님처럼 저보다 앞서 이 부름을 수행하셨던 훌륭한 여성들에게 깊은 감사를 포함합니다. 윈더 자매님이 제 인생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친구와 이웃 및 청년 임원인 제인 앨란 자매, 그리고 늘 가깝고 소중한 관계를 지녀온 역원 등 제 주변의 많은 선한 사람들의 영향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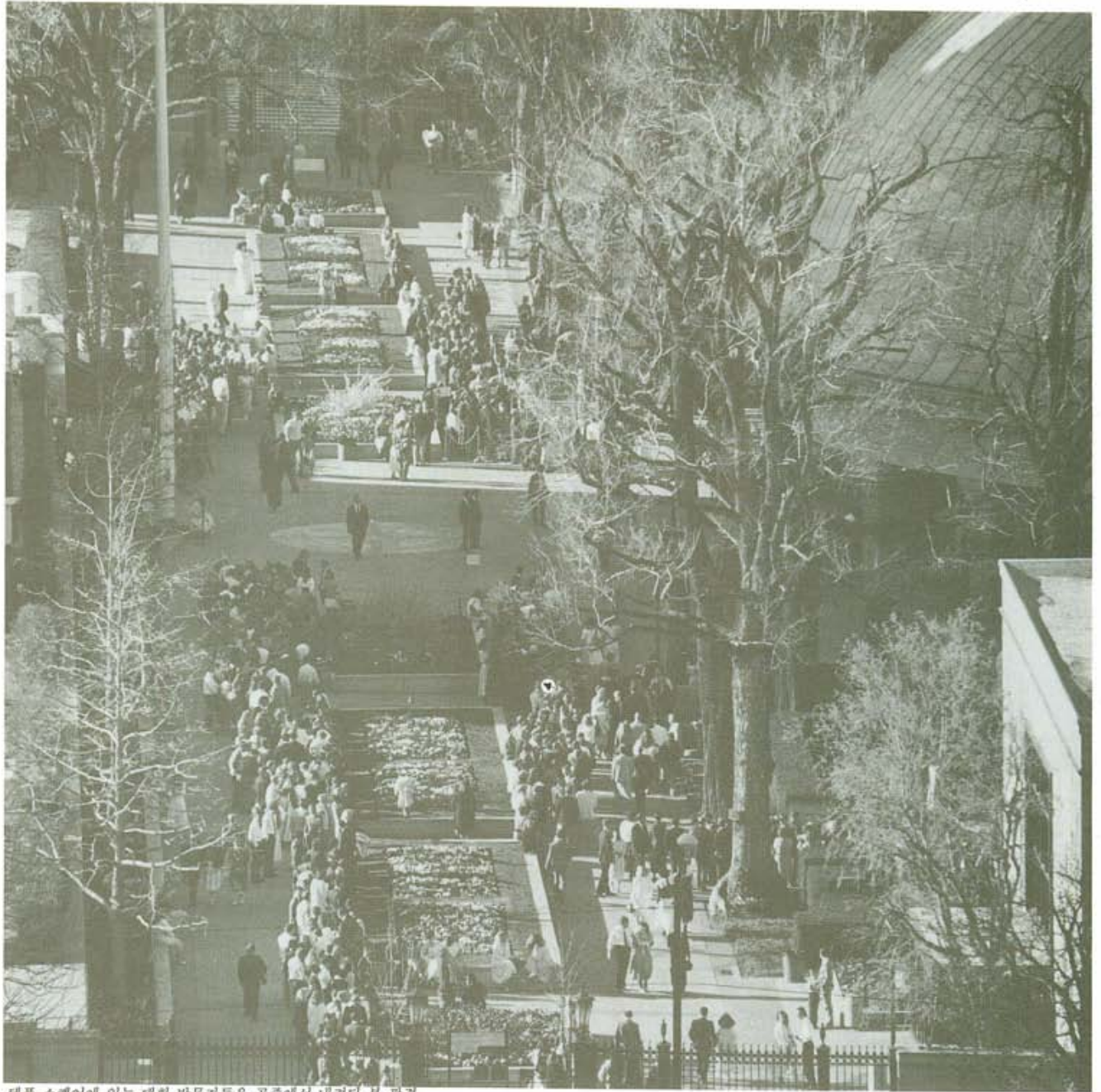
네 아들들과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오는 사랑과 큰 힘을 느낍니다. 그들의

솔직함과 즐거운 유우머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 대서양과 태평양 양쪽 연안에서 그들이 이 중계방송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야? 와, 정말!”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큰 아들에게, 몬순 부대관장님이 나에게 오늘 짤막하게 말씀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몬순 부대관장님은 “자매님에게 긴 설교를 하라고 부탁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브는 “어머니, 그 말씀은 우리가 수년간 어머니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저와 매우 친한 언니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의 언니와 같은 언니를 가진 자매는 축복을 받은 분이며 그런 언니를 하나 이상 둔 자매는 몇 배의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아데스 지 캡 자매님은 저에게 친언니와도 같습니다. 저는 캡 자매님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온 세상에 있는 청년들을 인도하도록 주님이 부르신 원대한 이상을 가진 위대한 여성이라는 찬사를 보냅니다. 캡 자매님은 저를 개인적으로 가르쳤고 격려해 주었으며 제가 성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청년 조직에서 보좌로 봉사하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준비하게 도와 주는 복음 원리들, 즉 청년 가치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정과 가족과 자신의 성장을 책임지고



템플 스퀘어에 있는 대외 방문자들을 공중에서 내려다 본 광경

있는 자매는 복음에 헌신적인 남편의 사랑과 지지없이 아무도 이 부름에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저의 남편 조우는 헌신적이며 제 인생에 커다란 힘과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예언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권고와 그분과 함께 봉사하고 계신 모든 형제님들의 권고를 따르겠습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제가 주님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주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성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한 예언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일에 성취되는 교회의 주요 성장은 대부분 교회의 여성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의로움과 분명한 생활 태도를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행복한 면에서 세상의 여성들과 뭔가 뚜렷하고 다르게 보여지는 정도에 비례합니다.”(1979년 10월 연차 대회)

이것은 큰 기쁨을 주는 복음입니다!

저와 보좌들은 열심히 봉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있을 여성들이 교회를 팔복할 만하게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도록 도울 수 있는 면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르침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장로
철심인 정원회

“우리의 개인 생활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해야 할 진정한 도전이라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며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살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 사항과 관심사를 지켜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시작했던 발전을 계속하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이 지켜주시고 신중히 인도하시는 가정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가르침과 권고 및 꾸지람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면전을 떠나 다른 장소에 가서 자유 의지를 행사하여 스스로 결정을 하며 생활할 또 다른 장소와 생활 수단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리신 데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우리를 홀로 남겨 두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우리들 각자를 염려하시어,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신 목자를 보내셨습니다. 구세주께서도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반자가 되실, 성신과 경전과 살아 계신 예언자의 가르침을 동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작은 개미는 우리에게 근면과 성실을 가르치며, 꿀벌은 조직 생활과 선견지명에 대해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꽃과 식물 및 모든 자연으로부터 교훈을 얻습니다. 백과사전이나 교과서를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작품들에 대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전 밖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스스로의 삶과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련입니다. 영을 느끼며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자녀 각자에게 직접 와 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가 그것들에 의해 굴복당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시키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문제들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우리는 경험을 쌓아가게 되며, 자신감과 신앙이 커질 것입니다.

100미터 허들 경주에서 경주자들은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경주자들이 앞에까지 뛰어와서는 멈추어 서서 낙담을 하며 출발선으로 되돌아 가도록 하기 위해 놓여진 것이 아닙니다. 경주자를 파멸시키기 위해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주의 맛과 흥미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장애를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해야 할 진정한 도전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볼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젊은이들은 이것을 배웁니다. 저는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을 마치면서 그 “훌륭한 문제들”에 대해 감사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움은 신앙을 통해 영과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극복될 때 주어지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련, 질병, 사고, 실직 또는 죽음이 닥칠 때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 “왜 나에게 이 일이 생겼는가? 이건 불공평해”라고 말하던가 아니면 너무도 절망한 나머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몰락하여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교리와 성약 29편 39절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악마가 인간의 자녀를 유혹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악마의 유혹이 없으면 자신의 자유 의지를 행사할 수 없나니, 인간이 쓴 것을 알지 못하면 단 것도 알 수 없는 연고니라.”

얼마전 저희 가족은 그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통스런 시련이었으나 감미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아내와 저는 세 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큰 딸은 결혼해서 델아웨어 주에 살고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세 자녀를 데리고 우리를 방문했습니다. 막내인 데이비드는 생후 15개월로 우리 손자 중 가장 어리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냈던 날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잊을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참으로 기뻐하며, 태어날 때만 보았던 데이비드를 알게 될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제가 보아온 어떤 아이보다도 순했습니다. 심지어는 아프거나 고통스러워도 울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독립심이 강했지만 아주 사랑스런 특별한 영이었습니다.

같이 지내던 날들이 지나가고, 딸의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간 뒤 이틀 후 불행하게도 데이비드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4시간 후 죽고 말았습니다.

저와 내내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자녀들과 함께 하기 위해 즉시 떠났습니다. 밤새도록 비행기를 탔으며, 일어난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지루한 시간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어떻게 딸과 사위를 위로해야 할 지 물었습니다. 내 자신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데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저는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들은 적절한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주어져서 “내게서 배우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영의 부드러운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교성 6 : 22~23) 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슬픔이 너무도 커서 그 고통의 목적과 가르침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었지만 아직은 너무 젊었기 때문에 것처럼 엄청난 시련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내내는 우리가 받는 응답을 일러 주었으며, 그것을 이해하게 된 딸과 사위는 더 많은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서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과 그의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대외 합창단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계심

마음에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만일 더 많은 증거를 원하면 이러한 일이 참된지를 알기 위하여 네 마음속으로 내게 간구하던 그날 저녁 일을 깊이 생각하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 네게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줄로 여기느냐?”(교성 6 : 22~23)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고, 대신 영이 전해주시는 평온한 느낌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저는 딸과 사위가 그 힘든 장례식을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치르는 데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굳건함을 보이며 심지어는 다른 친척 및 친구들을 위로하기조차 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은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데이비드가 떠난 것은 그가 특별한 영이었기에 더이상 이 세상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데이비드가 다른 곳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데이비드를 알게 되고 그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데이비드를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비드와 함께하던 시간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데이비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함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으며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합당해지기 위해 우리는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데이비드로 인해 우리는 삶에 대해 장막 저편까지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 결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축복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변화되고 성장했습니다. 이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데이비드가 세상을 떠난 며칠 후 딸은 다시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무도 많은 사랑을 주셨으며, 우리는 또 다른 가르침에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사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심을 말끔히 씻어주시는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즐거운 경험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말일성도 사마리아인

멀린 알 리버트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는 활동이 저조한 형제 자매들과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큼 친해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치유받고 있는 동안 돕고 지지해야 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오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 영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아시아 교회 회원들을 대신해서 벤슨 대관장님과 그들이 알고 있는 기타 지도자들 및 온 세상에 계신 모든 회원들에게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봉사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또한 저의 가족과 연로하신 부모님께, 변함없이 지원해 주시며 사랑과 감사를 표시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엄청난 사업에 비추어 제 자신을 저울질 해 볼 때면 온 몸을 휘감는 겸손을 느낍니다. 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업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구세주께서 하신 비유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대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누가복음 10 : 25)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율법사가 유대인 율법 학자와 동등했으며, 이들은 전문적인 법률 학도인 동시에 법률 선생으로,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 율법을 포함하여 모든 법률을 다루었습니다.

이 학자는 주님이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시험하려 했거나 또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 했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그 질문에 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누가복음 10 : 26)

그 율법사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누가복음 10 : 27)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누가복음 10 : 28)고 하셨습니다.

율법사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주님의 질문을 통해 율법사 자신의 입을 통해 나왔으며,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그가 알고 있는 바대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사는 것처럼 간단한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 다. 누가는 그 현학자가 “자기를 옹기 보이려고” 주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누가복음 10 : 29)라고 질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 주시어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테나리온 들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누가복음 10 : 30~35)

성전을 관리하는 임무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 우화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을 돕는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예배와 희생 의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멸시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반쯤 죽어 있는 상태에서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돕기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다른쪽으로 피해 지나갔습니다. 상처를 입은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긴 사람은 경멸받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발라 소독을 하고 나서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간호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관비를 치르고 추가로 드는 돈은 나중에 와서 지불하겠다고 여관 주인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구세주께서는 율법사에게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누가복음 10 : 36)라고 물으셨습니다.

율법사는 스스로의 죄에 빠졌으나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푸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0 : 37)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구세주께서는
두번씩이나 이 종교 율법 학자에게 그가
아는 원리에 따라 생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병이 들거나 기타 어떤
이유로든 상처를 입은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도와주도록 요구하심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아름다움은
그것들을 실제로 여러 경우에 실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교훈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비유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원리를 현재
생활 속에서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상에는 영적으로 상처를 받았거나
병들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한 때는
성도의 무리 속에서 함께 우정을
나누었으나, 이러 저러한 이유로 지금은
길옆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중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알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과 접촉을
했었으나 그들이 육체적으로 병이 들거나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흔히,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처럼 그들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이 연극과도 같은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존경받는 두 명의 종교인들과
멸시받는 사마리아 시민의 반응을
비교하셨습니다. 여기에 장로 정원회
회장, 대제사 그롭 지도자, 감독단 일원,
또는 가정 복음 교사와, 활동이 저조하게
되어 길 옆으로 빠져 나간 형제 자매와
유사한 점이 언뜻 비칩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들을 경멸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경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이들 무시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을 가지고 대함으로써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회 방문자

우리는 필요한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상처를 싸매주고, 우정을
나눔으로써 상처를 낫게 하는 기쁨을
발라 주며, 진실한 형제 자매애로 영혼을
치유하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의 차에 태워 우리의
가정이나 예배 장소로 함께 갈 수
있으며, 그들과 따뜻한 우정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바치고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상처를
입은 친구와 함께 밤을 새웠으며, 그가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야 그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활동이 저조한 형제 자매와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을만큼 친해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치유받고 있는 동안 돕고
지지해야 합니다.

이 비유에는 또한 약간의 희생과
시간과 돈을 바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을
치유하기 위해 돌보는 것은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리나라와야
합니다. 참으로 이 율법사마저도 이
이유를 통한 주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베푸 자”(누가복음 10 : 37)를 이웃이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상처를 입어 반쯤 죽은 체로 길 옆에
누어서 착한 말일성도 형제나 자매, 즉
말일의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언자께서는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우리에게 거듭
상기시키십니다.

저는 홍콩에 있는 한 주일 학교 회장이
말씀한 간단한 비유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 진취적인 칠면조가 다른
칠면조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시범을
보이며 그들에게 낯은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오후 내내 그들은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날아다니며 확 트인
새로운 정경을 보며 짜릿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칠면조들은 모두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활동이 저조한 형제
자매들을 찾아 나서도록 동기를 줄
포용력 있고 이해심 있는 마음을 키워서
참으로 착한 말일성도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마음을 준비시킴

에이치 버크 피터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은 사랑과 칭찬과 인내를 통해 옵니다. 잊고 용서해 주는 그런 관계가 있는 곳에 기쁨과 신뢰가 커집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저는 많은 성도들의 신앙과 간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염려됩니다. 심지어는 영적이 투쟁에 지쳐서 승영의 추구를 포기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을 돕고자 노력하는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구세주께서 탄생하시기 약 삼십 년 전에 한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 놓고 그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힐라맨이었습니다. 아들들은 니파이와 리하이였는데, 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어다. 그러할진대 악마가 그의 세한 바람을 불어 보내며... 그의 우박과 강한 폭풍으로 너희를 휘몰아칠지라도, 너희를 넘어뜨려... 놓지 못할지니,”(힐라맨서 5:12)

그는 쉬운 말로 아들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그분에 대한 간증을 얻으면 그들이 극복하지 못할 시험이나 시련은 닦쳐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확고한 토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 중 일부라도 서로를 도와야 하는 책임을 잊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을 무력이나 강제로, 또는 협박을 하여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어느 정도 조종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일에 관한 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존중과 존경심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신앙과 간증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세주라는 강하고 지속적인 간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먼저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이 원리는 친구와 이웃 및 직장 동료 사이는 물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의 사이 등 여러 종류의 인간 관계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간증이 싹트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들이 어떠한 행위를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마음속으로 진리에 대한 간증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게 되는 따스한 영이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그 자체로서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필요한 행위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더욱더 의로운 친구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때로는 너무도 어렵단 말야. 어떻게 하면 그 순수한 사랑을 느끼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 몇 가지 지침이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서 각각 좋은 점을 찾아내 진지하고 조리 있게 그것에 대해 말해줍니다. 우리가 매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할 때, 참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간증이 뿌리를 뻗으며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그것은 영성을 기르는 데 놀라운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한 언급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칭찬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간단한 행위라든가 훌륭한 자질을 알려주지만 함으로써 그것을 싹틔우고 번창시키도록 기폭제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좋은 점을 찾아내기 위해 하루 종일 살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무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딸 아이 중 하나가 자기 아들 방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 방은 마치 태풍이 쓸고 지나간 자리 같았습니다. 손자 아이는 그 어지럽혀진 방 한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좋은 점을 찾겠다는 결심을 떠올렸습니다. 필사적으로 좋은 점을 찾다가 딸은 마침내 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애야, 천장이 참으로 깨끗하구나!”라고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손자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고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방을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결점과 잘못을

뒤편 주고 상대방의 가슴속 깊숙히 느끼고 있는 것을 찾아 내려고 노력할 때, 그들의 결혼 생활은 놀랄만큼 행복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화가 모두 풀어질 때까지, 속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가셔질 때까지, 문제의 모든 면을 다 고려해 볼 때까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개인의 가치와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킵니다. 비판은 다른 사람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여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들은 완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족되지 못하면 비판을 가합니다. 어느 아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삶은 아주 외로운 투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내의 실패를 상기시키고 자기의 기대에 어긋나게 생활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남편을 만족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가해지는 비판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며 자신감을 잃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가족은 가족들이 서로 다투는 것으로 인해 실망해서 가정의 밤을 중단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성장하도록 도울 책임을 충분히 지각하고 있을 가장은 현명치 못하게 가족들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 시간을 거의 다 보냈습니다. 자녀들을 칭찬하려고 어느 정도 노력은 했지만, 그가 가하는 비판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여대생이 방을 같이 쓰던 친구를 미워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을 때, 친구의 눈에 거슬리는 습관이 사실상 그녀가 성장한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신권 소유자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은 사랑과 칭찬과 인내를 통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잊고 용서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는 곳에 기쁨과 신뢰가 커집니다.

여러분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실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사랑을 보이는 한 가지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들어줄 시간이 없다고 느끼실 때라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가정을 꾸민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경험을 여러분 스스로 충격을 받거나 즉시 꾸지람을 하지 않고 담담하게 들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말을 할 때와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밤늦게 귀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준다면, 그 자녀들은 감사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꼭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하기 위해 들어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그저 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이야기에 좀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관계를 운택하게 하고 강화시킬 수 있으며,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랑은 기도하는 가운데 표현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미는 몸이 아플 때면 가족들이 주님께서 그녀의 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듣습니다. 카메론이 직장을 얻고자 한다면, 가족들이 그에게 확신을 주는 기도를 하는 것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매일 그들 각자를 위해 부모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을 쌓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이 변화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사이사서 앞 부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베냐민 왕은 훌륭한 말씀을 한 후에 “백성들이 자기가 한 말을 믿는지를 알아보려 백성들에게로 사람을 보내”(모사이사서 5:1)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간의 이 훌륭한 연차 대화를 마치면서, 저는 만일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의 대답이 그 당시 그들의 대답과 같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왕이 이르신 모든 말씀을 믿으며,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모두 참되고 진실함을 믿나이다. 주의 영은 우리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갖게 하시어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하여 선행을 하게 하시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그의 계명에 복종할 것을 하나님 앞에 언약하여...”(모사이사서 5:2, 5)

그러자 베냐민 왕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맺은 이 언약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곧 그의 아들과 딸이라 이르리라. 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너희를 영으로 낳으셨음이라. 너희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너희 마음이 변화되었다 말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며,

“그를 머리로 하며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으며, ...생애가 끝날 때까지 순종하기로... 언약을 맺은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내가 원하노라.”(모사이사서 5:7~8)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 하는 제 간증을 더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감사는 구원의 원리임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홀름해지는 시초입니다. 그것은 겸손함의 표출입니다. 그것은 기도, 신앙, 용기, 만족, 행복, 사랑, 복지 등과 같은 미덕이 성장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이 대회가 끝나가는 시간에 저는 신앙의 표시로써 그리고 구원의 원리인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연단에 섰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교성 59 : 21) 이 성구에 의하면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교성 59 : 7)라는 말씀은 사회적인 예절 이상의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구속력 있는 계명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 왔다는 잊점 중의 하나는 상황이 지금보다 어려웠던 때를 자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역경을 통해 얻은 축복을 알 수 있을만큼 오래 살아온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의 기억은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던 대공황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가치관 중 한 가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대 초기에 미국을 뒤흔던 대공황은 우리에게 쓰라린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절약하는 생활을 배워야 했습니다.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나 분노심을 자아내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만든 뜨거운 빵과 오트밀, 시리얼 등, 우리가 받은 보잘 것 없는 작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다른 예로 저는 농장에서 직접 비누를 만드시던 사랑하는 메리 캐롤라인 로퍼 핀린슨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할머니께서 비누를 만드시던 재료에는 정제된 동물 기름과 세척제로 쓰이는 양젯을 소량 그리고 연마제로서 나무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 비누는 아주 자극적인 냄새가 났으며 거의 벽돌처럼 단단했습니다. 부드럽고 향기로운 비누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농장에는 더러워지고 땀에 젖어 세탁해야 할 옷들이 많았으며, 토요일 저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그 비누로 목욕을 하고 나면 아주 말끔해 질 수는 있지만, 몸에서 나는 냄새는 목욕을 하기 전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지금은 어렸을 때보다 목욕을 자주 하는 편이라 부드럽고 향기로운 비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매일 더 해갑니다.

요즘 시대의 악덕 중의 하나는 우리가 즐기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이 들어 왔으나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교성 88 : 33)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시대를 설명하면서 말일에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꾀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디모데후서 3 : 2)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악덕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사람이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때에 이 모든 악덕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았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을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누가복음 17 : 11~19)

문둥병은 너무도 역겨운 질병이라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름끼치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불행을 겪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레위기 13 : 45~46 참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들의 절규가 구세주의 마음을 움직였음이 틀림 없습니다. 그들이 깨끗하게 되고

제사장들로부터 깨끗하다는 승인을 얻어 사회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그들은 아마도 기쁨과 놀라움이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은 더할나위 없이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베푸는 분을 잊었습니다. 그들이 어째서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와 같이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는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돌아와 감사를 드린 단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와 같이, 요점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흔히 더 큰 의무감과 숭고한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원리로서의 개인적인 감사 외에도 저는 우리가 즐기고 있는 많은 축복에 가져야 하는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대에 교회에 속하신 여러분은 커다란 고통과 희생을 유산으로 받은 많은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희생은 결점이 있고 불완전하지만 숭고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 목적은 모든 인류가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쁘고 평온한 이해를 얻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키우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성스러운 의무이며, 우리의 예배의 정수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통신 수단은 인간 세상의 폭력과 불행에 홍수처럼 우리 가정안에 다 쏟아 붓습니다. 어떤 평화롭고 영적인 소생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정과 성찬식 모임과 성스러운 성전에서 영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처럼 평화스러운 환경 속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집에 온



대회 방문자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통가 왕국에 갔었습니다. 뮤티 스테이크 부장에 의해 스테이크 센터에서 가정의 밤이 열렸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연사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밤 모임은 통가 왕국의 전체군주인 튜포 4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왕과 그의 딸 및 손녀 딸들이 몸소 참석하였으며 그 밖에도

통가의 많은 귀족들과 외교 사절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노래와 시로 훌륭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왕의 손녀 딸 가운데 한 명이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요.”라는 제목의 독창을 불렀습니다. 존 손넨버그 장로와 저는 간단한 말씀을 부탁받아 기쁘게 응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국왕은 일반적인



본부 청년 회장인 아테스 지 캅 자매(중앙),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인 제인 비 앨런 자매(왼쪽), 새로 지지받은 제2보좌인 제니트 시 헤일즈 자매

왕족의 의례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교회 회원인 그의 국민들의 훌륭한 프로그램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사회적인 의례가 많은 장소에서 지켜지기는 하지만 친절을 표시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환영을 받습니다.

상반되는 성격 사이에는 마치 영혼에 조그만크의 공백도 남겨두지 않는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감사함이 결여되거나 사라지면 흔히 반란이 들어와 그 공백을 메웁니다. 사회적인 압제에 대한 반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깨끗함, 아름다움, 예절, 정직, 경건 및 부모의 권위에 대한 존중 등에 대한 반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훌륭해지는 시초입니다. 그것은 겸손함의 표출입니다. 그것은 기도, 신앙, 용기, 만족, 행복, 사랑, 복지 등과 같은 미덕이 성장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류의 인간 능력에 관련이 있는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근육은 약해지고 기술은 퇴보하며 신앙은 사라지게 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짧은 말 속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가장 훌륭하고도 간결한 길이 있으며, 지속적인 우정을 위한 공식 및 개인적인 행복을 위한 모범이 들어 있습니다."(완전에 이르는 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3년, 254페이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이 저에게 더하여지리니 참으로 백배 이상 더해지리라."(교성 78 : 19)

저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저는 밤 늦게 만원을 이룬 멕시코시티발 콜리칸행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좌석들은 촘촘히 놓여 있었으며, 그나마 모든 좌석이 멕시코 사람들로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 여기 저기에는 크고 작은 짐꾸러미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어린 아이들을 네 명이나 데리고 통로를 내려왔는데, 큰 아이가 네 살 정도 돼 보였으며 막내는 갓 태어난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녀는 기저귀 가방과 유모차, 그리고 다른 가방들을 옮기느라 무척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힘이 들어 울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좌석을 찾아내자 주변에 있던 승객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말 그대로 그녀를 도우려고 일어났습니다. 곧 아이들은 승객들에 의해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비행기 안의 모든 승객들의 사랑으로 여기저기로 건네지며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비행기 안은 어린 아이를 돌보아 주는 사람들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오래 걸리지 않아 자기를 안고 있는 사람들 품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분명히 아버지나 할아버지일 것 같은 남자분들이 창피함도 느끼지 못하고 갓난 아기를 보살피 주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여인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 어린 아이를 저에게 건네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이해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배웠습니다.

복음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 분투하고 희생한 온 세상의 개척자들의 신앙에 의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감사의 빛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박해를 피해 손수레에 얼마되지 않는 소유물을 싣고 피약벌이 내리찍는 평원을 지나고 눈으로 뒤덮인 산을 통해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계곡으로 여행해 왔던 이 용기있는 개척자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마틴과 윌리 및 그 밖의 손수레 부대의 신앙에 대해 그 후손들은 어떻게 그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인 웨인 에이치 옥스 장로가 대외 방문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음. 옥스 자매가 중간에 있음

감사의 빛을 갚을 수 있습니까!

이 용감한 사람들 중에는 가족도 없이 여행을 했던 어린 영국 소녀 엠마 배첼러도 있었습니다. 엠마는 윌리 손수레 부대와 함께 출발을 했는데, 그들이 포트 라라미에 당도하자 짐을 줄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엠마는 그녀의 짐을 모두 집어넣어 가지고 온 구리 주전자를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엠마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주전자를 길 옆에 내려 놓고서 그 위에 주저 앉았습니다. 그녀는 마틴 부대가 불과 수일 뒤쳐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엠마는 윌리 부대와 함께 출발하는 특권을 받았으며, 마틴 부대가 당도하자 풀 풀리 가족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의 한 어린 아들이 오랜 뒤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엠마 배첼러 자매와 합류했다. 엠마는 젊고 튼튼했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던 우리에게 밀가루를 나누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그녀와 함께한 것이 기뻐다.” 풀리 자매가 아기를 낳아 엠마가 산파역을 했으며, 이틀 동안 산모와 아기를 수레에 태워 간호하고 그 손수레를 끄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마틴 부대에 속해 여행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손, 발, 귀, 코 등이 얼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덜어 주는 자비로운 동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동상의 흔적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21세였던 엠마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시련을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일년 뒤 그녀가 브리감 영을 만났을 때, 그는 엠마가 동상에 걸리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엠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브리감 형제님, 저에게는 돌봐주거나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새비지 형제님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던 사람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보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매일 제 몫의 수레를 끌었습니다. 개울에 다다르면 저는 멈추어서 신과 양말과 걸옷을 벗어 손수레 위에다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수레를 개울 건너 편에 끌어다 놓고 꼬마 풀을 등에 업어 개울을 건넜습니다. 그런 다음 주저앉아 모직 목도리로 발을 문질러고 나서 마른 양말과 신을 신었습니다.”

이 개척자들의 후손인 우리들은 조상들이 자신들도 그에 속하기 위해 그토록 고생하여 수행했던 시온의 대업에 충실히 참여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고 갚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성공적인 생활 방식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축복을 향해 눈을 뜨게 됩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련해 주신 축복을 단단히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들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처치 뉴스, 1969년 6월 14일, 2페이지) 이 훌륭한 대회를 마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것처럼 자비롭게 내려주신 수많은 축복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성스러운 결의”

고든 비 힝클리 장로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는 영을 느꼈고 새롭고 성스러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제 그러한 결의를 성취할 용기와 불굴의 정신을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회가 끝날 때에는 대관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전례이지만, 벤슨 대관장님은 91세의 고령이시라 자리에서 일어서시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관장님이 이곳에 함께 참석하셔서 사랑스런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흔들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영적으로 크게 들어 올려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폐회 말씀으로 과거에 벤슨 대관장님이 이 연단에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셨던 말씀 중 일부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들이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권고와 교훈을 따를 것을 겸손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영을 느꼈고 새롭고 성스러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제 그러한 결의를 성취할 용기와 불굴의 정신을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회 보고, 1988년 4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재확인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주신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며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사도행전 4:12)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물문경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구원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성도의 빛, 1985년 12월호, 5페이지)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요, 세상의 구속주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시며 성역을 배부셨습니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들도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분을 의심하였습니다. 가장 신임했던 제자들 중의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기꺼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빌린 무덤에



회중이 태버나클 합창단과 함께 노래할 때 지휘하는 제럴드 오를리 형제

뉘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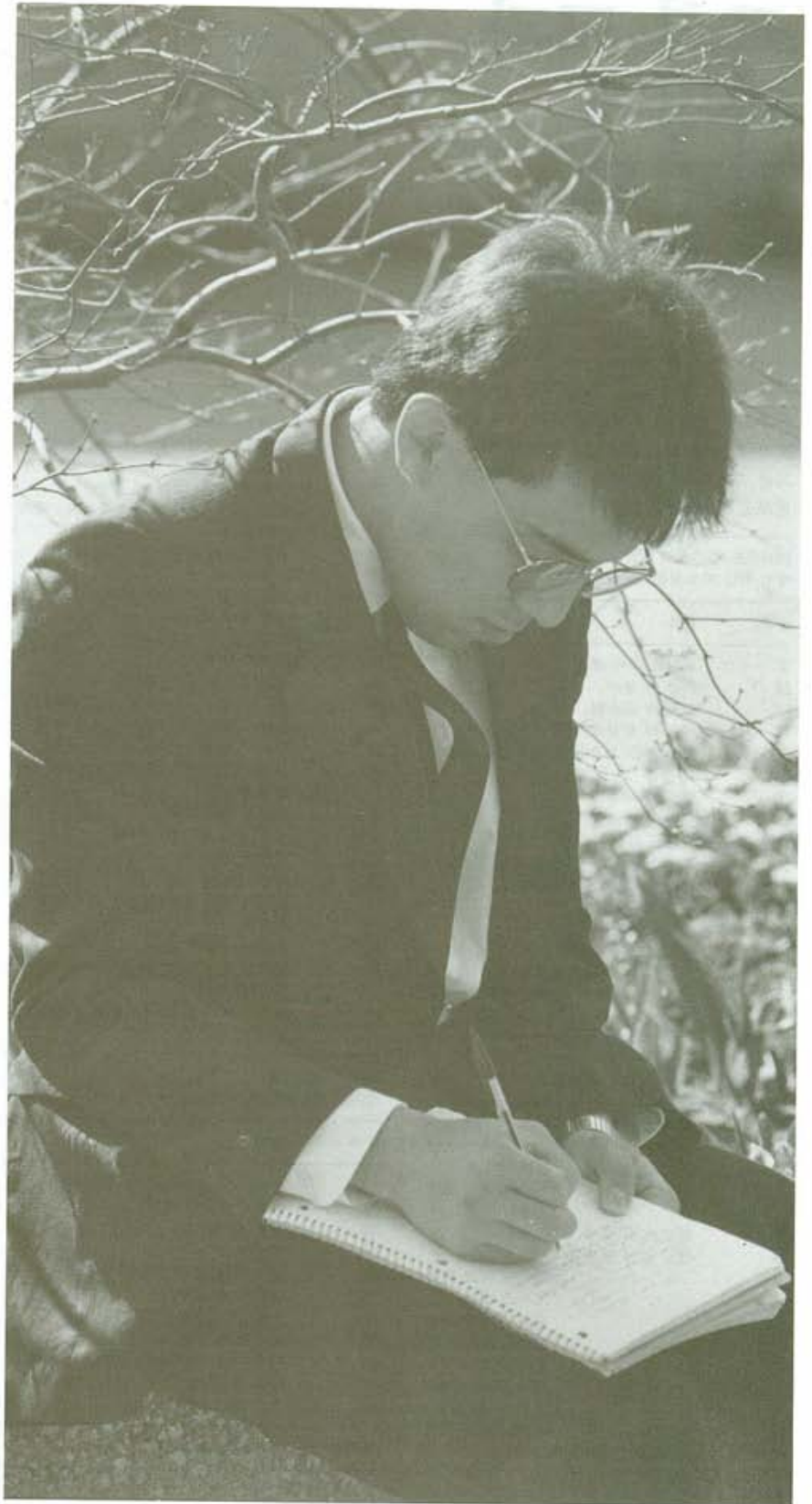
“키다리 돌이 무덤 입구에
놓여졌습니다.

“심히 놀라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말씀이 계속
되풀이 해서 메아리쳤습니다.”(대회
보고, 1964년 4월호, 119페이지)

지난 목요일, 성전에서 모든 총관리
역원들이 함께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간증을 전하고 주님의
성찬을 함께 드는 자리에서 벤슨
대관장님이 일어나셔서 확신과 감동에 찬
음성으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직분을
충실히 행하도록 축복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위대한
지도자의 영을 느끼면서 모두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마치면서
저는 벤슨 대관장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분을 대신하여 ‘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인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위대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라고 말씀하라고 저에게
당부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벤슨 대관장의 이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저의
간증을 더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구세주이며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인류의
구속주이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을 포함해서 이 교회의 대관장단의
직분으로 요셉 스미스의 뒤를 이은 모든
분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시대에
주님이 기름 부어 준 예언자들이십니다.
이 모든 간증과 축복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아래의 도표는 교회 회원, 부모 및 교사가 복음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이 도표는 1990년도 청소년 및 성인 교과 과정과 관련된 1990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을 소개해 주는 것이다.

1990년도 열기세백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PCMP1990KO)

공과	연사
2	보이드 케이 패커
12	러셀 엠 넬슨
13	조셉 비 워스런
17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델콤 셋 켈슨
20	렉스 디 피네가
23	로버트 디 헤일즈
26	하워드 더블류 헌터
27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엠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29	데릭 에이 커스버트
30	스펜서 제이 콘디
31	데이비드 비 헤이트
34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35	한스 비 링거; 에프 멜빈 하몬드; 멀린 알 리버트

1990년 상호부조회 개인 학습 지도서(PCRS1990KO)

공과	영적인 생활	가정 및 가족 교육
4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5	칼로스 이 에시	
6	에프 멜빈 하몬드	
7		에이치 버크 피터슨
8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렉스 디 피네가
9		렉스 디 피네가
10		보이드 케이 패커
11	엠 러셀 벨라드; 한스 비 링거	
13	하워드 더블류 헌터; 조셉 비 워스런	
15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17	제임스 이 파우스트	
18	보이드 케이 패커	

공과	자선 봉사 및 사회 관계	가정 관리
4	마빈 제이 에쉬튼	
5	데이비드 비 헤이트	
8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리차드 지 스코트; 리차드 피 린지	
10		하워드 더블류 헌터; 렉스 디 피네가

1990년 복음 교리반-구약전서(PCSS1990KO)

공과	연사
15	닐 에이 맥스웰
16	데이비드 비 헤이트; 한스 비 링거; 로버트 디 헤일즈
17	러셀 엠 넬슨; 델콤 셋 켈슨
18	엘 톰 페리; 제임스 이 파우스트; 렉스 디 피네가
19	스펜서 제이 콘디
20	닐 에이 맥스웰
22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23	마빈 제이 에쉬튼
24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26	리차드 피 린지
28	덜린 에이치 옥스; 리차드 지 스코트
29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30	칼로스 이 에시; 스펜서 제이 콘디
32	엘 톰 페리; 데릭 에이 커스버트; 에프 멜빈 하몬드
33	보이드 케이 패커
34	마빈 제이 에쉬튼
35	덜린 에이치 옥스
36	덜린 에이치 옥스
37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멀린 알 리버트
38	하워드 더블류 헌터
39	보이드 케이 패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엠 러셀 벨라드
43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후 모임); 조셉 비 워스런

1990년 초등협회 정의반 제1과정(PCPK1276KO)

공과	연사
15	하워드 더블류 헌터; 케네스 존슨
20	하워드 더블류 헌터
23	멀린 알 리버트
26	제임스 이 파우스트
28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32	리차드 피 린지
34	조셉 비 워스런
36	로버트 디 헤일즈
39	데릭 에이 커스버트; 리차드 피 린지
42	러셀 엠 넬슨
45	에프 멜빈 하몬드

정의반 제2과정(PCPR14B8KO)

공과	연사
21	에프 멜빈 하몬드
24	클린톤 엘 커티스
26	엘 톰 페리
36	리차드 피 린지
45	에프 멜빈 하몬드

용기반 제1과정(PCPR16D3KO)

공과	연사
15	데릭 에이 커스버트; 리차드 피 린지
16	조셉 비 워스런
18	엘 톰 페리
32	바바라 더블류 윈더; 엘레인 엘 켈
33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후 모임); 한스 비 링거
40	리차드 지 스코트
41	델콤 셋 켈슨
45	에프 멜빈 하몬드

용기반 제2과정(PCPR18C6KO)

공과	연사
37	엘 톰 페리
45	에프 멜빈 하몬드

불꽃반 제1과정(PCPR29C1KO)

공과	연사
15	러셀 엠 넬슨; 로버트 디 헤일즈
16	로버트 디 헤일즈
17	데릭 에이 커스버트; 리차드 피 린지
18	에이치 버크 피터슨
21	렉스 디 피네가
23	닐 에이 맥스웰;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24	엘 톰 페리; 조셉 비 워스런
27	하워드 더블류 헌터
38	칼로스 이 에시
39	조셉 비 워스런
45	에프 멜빈 하몬드

피요리반 제1과정(PCPR20C4KO)

공과	연사
16	러셀 엠 넬슨; 칼로스 이 에시
18	클린톤 엘 커티스
19	에이치 버크 피터슨
20	렉스 디 피네가
21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로버트 디 헤일즈
22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23	엘 톰 페리; 조셉 비 워스런
26	조셉 비 워스런
27	데릭 에이 커스버트; 리차드 피 린지
28	케네스 존슨
30	델콤 셋 켈슨
33	마빈 제이 에쉬튼; 리차드 지 스코트
39	칼로스 이 에시
45	에프 멜빈 하몬드

피요리반 제2과정 / 불꽃반 제2과정 / 주일학교 제11반(PCPR26E7KO)

공과	연사
19	리차드 지 스코트
20	데릭 에이 커스 버트; 리차드 피 린지
26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27	조셉 비 워스런
29	로버트 디 헤일즈
31	마빈 제이 에쉬튼
34	데이비드 비 헤이트
36	리차드 피 린지
42	조셉 비 워스런
45	에프 멜빈 하몬드

주일학교 제12반(PCSS24B2KO)

공과	연사
23	하워드 더블류 헌터; 팸콤 에스 잭슨; 로버트 디 헤일즈
26	데이비드 비 헤이트
29	고든 비 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32	말린 알 리버트
33	에프 델빈 하몬드

주일학교 제13반(PCSS26C7KO)

공과	연사
22	엠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24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데이비드 비 헤이트
27	리차드 지 스코트
28	델린 에이치 옥스
29	로버트 디 헤일즈
36	말린 알 리버트
38	엠 러셀 벨라드; 한스 비 링거
39	고든 비 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41	보이드 케이 패커
42	널 에이 맥스웰;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주일학교 제15반(PCSS30C9KO)

공과	연사
20	보이드 케이 패커
22	델린 에이치 옥스; 로버트 디 헤일즈
24	데이비드 비 헤이트
27	러셀 엠 벨슨; 칼로스 이 에시
29	러셀 엠 벨슨
31	리차드 지 스코트
35	렉스 디 피네가; 에이치 버크 피터슨
36	하워드 더블류 헌터; 조셉 비 위스린
39	로버트 디 헤일즈
40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데릭 에이 커스버트; 리차드 피 린지

주일학교 제16반(PCSS32C2KO)

공과	연사
22	델린 에이치 옥스; 로버트 디 헤일즈
25	로버트 디 헤일즈
26	팸콤 셋 잭슨
30	마빈 제이 에쉬튼
32	에이치 버크 피터슨
33	고든 비 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34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데릭 에이 커스버트; 리차드 피 린지
35	리차드 지 스코트
36	하워드 더블류 헌터; 조셉 비 위스린
38	널 에이 맥스웰;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39	엘 톰 페리; 렉스 디 피네가
40	고든 비 헝클리(신권 모임)

주일학교 제17반(PCSS346KO)

공과	연사
27	고든 비 헝클리(신권 모임)
29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30	에이치 버크 피터슨
32	엘 톰 페리; 렉스 디 피네가; 에이치 버크 피터슨
33	로버트 디 헤일즈
35	팸콤 셋 잭슨; 로버트 디 헤일즈
38	마빈 제이 에쉬튼
39	널 에이 맥스웰;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41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데릭 에이 커스버트; 리차드 피 린지
42	마빈 제이 에쉬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말벌반 제1과정(PCYW24F8KO)

공과	연사
1	렉스 디 피네가;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2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에프 델빈 하몬드;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4	러셀 엠 벨슨
10	리차드 지 스코트
12	로버트 디 헤일즈
13	로버트 디 헤일즈
15	고든 비 헝클리(신권 모임)
18	엠 러셀 벨라드; 칼로스 이 에시
21	제임즈 이 파우스트; 널 에이 맥스웰; 리차드 지 스코트
22	엘 톰 페리; 조셉 비 위스린
24	데릭 에이 커스버트
25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조셉 비 위스린; 로버트 디 헤일즈
26	고든 비 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리차드 피 린지; 한스 비 링거
27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일요일 오전 모임); 데릭 에이 커스버트; 리차드 피 린지; 한스 비 링거
29	로버트 디 헤일즈
31	조셉 비 위스린; 팸콤 셋 잭슨
32	데이비드 비 헤이트
33	팸콤 셋 잭슨
34	팸콤 셋 잭슨
37	마빈 제이 에쉬튼; 조셉 비 위스린
38	하워드 더블류 헌터; 마빈 제이 에쉬튼; 널 에이 맥스웰; 리차드 지 스코트
39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마빈 제이 에쉬튼; 에이치 버크 피터슨
40	팸콤 셋 잭슨; 말린 알 리버트; 로버트 디 헤일즈
44	스펜서 제이 콘디
45	스펜서 제이 콘디

장미반 제2과정(PCYW28E4KO)

공과	연사
2	데이비드 비 헤이트; 에프 델빈 하몬드
3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널 에이 맥스웰; 한스 비 링거; 말린 알 리버트
4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5	제임즈 이 파우스트
9	에이치 버크 피터슨
14	고든 비 헝클리(신권 모임); 러셀 엠 벨슨
17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일요일 오전 모임); 리차드 피 린지; 말린 알 리버트
18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마빈 제이 에쉬튼; 조셉 비 위스린
19	리차드 지 스코트
20	고든 비 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24	보이드 케이 패커
25	널 에이 맥스웰; 조셉 비 위스린; 팸콤 셋 잭슨
26	델린 에이치 옥스; 에프 델빈 하몬드
27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신권 모임); 데릭 에이 커스버트; 리차드 피 린지
29	조셉 비 위스린; 로버트 디 헤일즈
30	하워드 더블류 헌터
31	하워드 더블류 헌터

32	하워드 더블류 헌터; 널 에이 맥스웰; 조셉 비 위스린
33	하워드 더블류 헌터
37	널 에이 맥스웰
38	델린 에이치 옥스; 로버트 디 헤일즈
43	스펜서 제이 콘디
44	스펜서 제이 콘디

월계반 제1과정(PCYW32F7KO)

공과	연사
2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데이비드 비 헤이트; 에프 델빈 하몬드
3	널 에이 맥스웰; 조셉 비 위스린; 한스 비 링거
7	널 에이 맥스웰
8	렉스 디 피네가; 에프 델빈 하몬드;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9	렉스 디 피네가
12	고든 비 헝클리(신권 모임)
15	데이비드 비 헤이트; 러셀 엠 벨슨
16	고든 비 헝클리(신권 모임)
21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일요일 오전 모임)
22	널 에이 맥스웰;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23	널 에이 맥스웰; 조셉 비 위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24	조셉 비 위스린
25	델린 에이치 옥스; 로버트 디 헤일즈
26	리차드 지 스코트
27	고든 비 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28	데릭 에이 커스버트; 한스 비 링거
29	마빈 제이 에쉬튼; 리차드 지 스코트
30	보이드 케이 패커
31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일요일 오전 모임); 데릭 에이 커스버트
32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신권 모임, 일요일 오전 모임)
33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34	하워드 더블류 헌터; 조셉 비 위스린
35	로버트 디 헤일즈
36	로버트 디 헤일즈
38	보이드 케이 패커
41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42	에이치 버크 피터슨; 말린 알 리버트
44	널 에이 맥스웰
45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일요일 오전 모임); 에이치 버크 피터슨; 팸콤 셋 잭슨
49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일요일 오전 모임); 스펜서 제이 콘디

복지 사업

주제	연사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봉사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자비	고든 비 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도덕적인 문제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리차드 지 스코트
자선 봉사	엠 러셀 벨라드; 데릭 에이 커스버트; 리차드 피 린지; 말린 알 리버트;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복지에 관한 특별한 주제와 관련된 대회 말씀은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복지 원리와
정확을 가르치고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